

麟蹄文化

2008년 第23輯



麟蹄文化院

麟 蹄 文 化

2008년 第23輯



麟 蹄 文 化 院

2008 문화비전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 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동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류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발 간 사



인제문화원장 정 병 석

삶을 반추하는 것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기록한다든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제군민 주변의 일들을 모아 함께해 온 시간이 어느덧 23집의 인제문화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지 않은 시간과 기록 안에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창작에 대한 군민의 끝없는 열정입니다.

나름대로 힘들었던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침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창작과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창작에는 고통이란 말이 관용어처럼 따라붙습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산천에 넓게 자리 잡은 하얀 설원 아래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며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창조 또한 세상의 시작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창작욕도 창조의 어려움만큼 구도의 길이며 숭고한 일입니다.

가슴에 있는 감정을 글과 노래로 공감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도 천지를 창조했던 것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인제문화에 한 가득 우리 마음을 담아 내놓는 지금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인제문화는 그 마음의 편린을 모아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고 말의 사랑방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인제 군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금 더 움직이고 솔선해서 행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애정 어린 시선 하나하나에 담긴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인제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인제 군민 가슴 깊은데서 피어나는 어떠한 싹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아름답리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한권의 책으로 꾸며진 인제문화가 펼쳐주는 세상은 여러분들의 희망과 시선이 닿는 곳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상상의 멋진 기록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사업 화보



인제의 뗏목

(촬영 : 사진작가 최종익)



2008. 4. 2 인제문화원 정기총회



2008년 5월 15일 인제문화원 이사회의



2008년 2월 21일 정월대보름 축하행사



2008년 5월 9일 문화유적탐방



2008년 3월 7일 찾아가는 문화캠프(가훈써주기)



2008년 5월 31일 찾아가는 문화캠프(거리음악회)



2008년 7월 17일 인제지역초등학생 국악캠프



2008년 7월 29일 인제지역초등학생 공예체험



2008년 6월 11일 퇴울림의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2008년 12월 10일 인제군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



2008년 9월 20일 인제문화원 임원 한계산성 탐방



넷강마을(북면 월학1리)의 합강문화제 퍼레이드



2008년 9월 14일 전통문화 체험교실



2008년 11월 10일 인제문화원 뒤편 발표회



2008년 3월 17일 농악기 보급사업 운영



2008년 6월 2일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2008년 8월 16일 향토사 발굴사업(하추리 노인회관)



2008년 6월 5일 인제문화원 임원의 과천문화원 견학



문화학교 한글서예 강좌



문화학교 한문서예 강좌



문화학교 수묵화 강좌



문화학교 국악 강좌



문화학교 풍물 강좌



문화학교 요가 강좌



문화학교 문예창작 강좌



문화학교 꽃꽂이 강좌



2008년 아카데미 특강



2008년 아카데미 특강



2008년 아카데미 특강



2008년 아카데미 특강



2008년 아카데미 특강



2008년 아카데미 특강

제1장 기고문

인제지방에 살아 숨 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 김선일 28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 권태훈 56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의 주중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 최윤 80

문화원과 함께 냇강민속마을 가꾸기 · 백창현 96

6·25 參戰暫言漢詩 · 고 이원술 대위 101

忠勳詞 · 이해원 103

우리독도 · 이해원 104

地名에 對한 小考 · 정종암 105

제2장 아카데미 특강

꿈을 가진 사람은 서로 만난다 108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법 123

제3장 인제군 전설

인제군 전설	144
--------------	-----

제4장 향토문예

거니고개 · 한용운	182
거북바위 · 최광윤	191
젊은이들이여 많이 참자 · 문부자	206
눈, 물 · 박돈녀	210
소녀의 기도 · 한명숙	213
외로움을 이겨낸 한계산성아!!! · 신동현	230
새하얀 명함 한 장 · 이영웅, 김소운	232
가을이야기 · 나영옥	234
어머니 · 나영희	237
고마워요, 생쥐 · 정무교	240
아가페와 에로스 · 백창현	243
문화와 유적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 백창현	245
어머니의 초상 · 박돈녀	247
갯골 · 박돈녀	248
석류 · 박정옥	249
안개꽃 · 박정옥	250
어미니! 꿈에라도 · 원영애	251

가을걷이 · 원영애	253
괭이로 파서 만든 고추밭 · 김종근	254
안개꽃 · 정순덕	257
한계산성 · 정순덕	258
그루 같이(二毛作) · 오정진	260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이생명 · 오정진	261

제5장 임서전

출품자명단	264
인사말씀	265
임원현황	302
직원현황 · 원고모집	303



제1장
기고문

인제지방에 살아 숨 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강릉대학교 사학과 김선일

목 차

머리말

- I. 신라의 멸망과 마의태자의 선택
 - 1. 신라의 멸망
 - 2. 마의태자의 선택
- II. 마의태자는 왜 인제를 선택했는가?
 - 1. 인제로 들어 온 경로
 - 2.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과 유적의 분포양태
- III. 상남면 김부리의 大王洞祭
 - 1. 마을 공동체로서 김부리
 - 2. 치제 양태와 특징

맺음말

參考文獻

머리말

新羅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시대였고, 정치제도의 완비에 따라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때였다. 그만큼 신라는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韓國 傳統社會의 原型이 만들어졌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신라사는 고대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였고, 또 실제로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¹⁾ 특히 1960~1970년대에 이룩된 많은 발굴과 金石文의 발견은²⁾ 신라사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문헌과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연결되기 시작하였다.³⁾

일반적으로 신라의 시기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각각 상대(上代)-중대(中代)-하대(下代), 상고(上古)-중고(中古)-하고(下古)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와 하대 두 시기는 사회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에서 중대는 전제왕권 시기, 하대는 귀족들의 치열한 권력다툼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1950년대 말에 신라 정치사가 ‘귀족연합(상대-중고)-전제왕권/전제주의(중대)-귀족연립(하대)’으로 변천했다고 제시된 이래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체계화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틀을 전제로 삼았다.

이들에 관한 연구 방법의 시기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는 문헌을 고증하여 구체적 사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으로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많은 발굴과 금석문의 발견으로 앞 시기의 연구가 더욱 뒷받침되면서 문헌과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자

1) 신형식, 『現代韓國歷史學의 動向』, 일조각, 1982, p.43 및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p.9.

2) 1960년대 있었던 발굴은 感恩寺址(1961)·皇菩里古墳(1965) 등이었고, 70년대는 東萊福泉洞古墳(1971)·天馬塚(1974)·98호 고분(1976)·佛國寺復原(1976) 등이 있었고 그 외 丹陽赤城碑發見(1978) 등은 1970년대 말을 장식한 대표적 성과이다.

3) 金元龍, 「三國時代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이 나타났다. 하나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연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三國史記』 내용을 분류하여 항목별로 통계처리 하면서 신라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 두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를 더욱 보강하고 심화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내는 연구들도 나타났다.⁴⁾ 신라시대의 전반적인 연구가 많아지고,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마지막 태자였던 마의태자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거의 없었다.

新羅는 下代에 들어서면서 骨品制의 모순과 치열한 왕위 다툼으로 인한 왕권의 약화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하였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豪族 세력의 성장으로 약 1000년이나 지속됐던 신라는 결국 급격하게 무너졌다.

왕건, 궁예, 견훤이 후삼국시대를 풍미하던 주인공이라면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경순왕, 재위 927~935)의 아들 마의태자는 같은 시기 이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다. 마의태자는 아버지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 신라가 멸망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금강산에 들어가 풀을 베어 먹으며 여생을 마쳤다는 비운의 왕자다. 그런데 과연 마의태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을까?

고려에 항복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정에 신라의 정통성을 들며 반대의견을 내세웠던 태자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금강산에 들어가 허무하게 여생을 마쳤다는 기록과 달리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강원도 인제에는 유독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많다. 오늘날에도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 ‘부안 김씨’는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서

4) 한국역사학연구회 엮음, 『한국역사학입문 2』, 풀빛, 1996, p.39.

매년 음력 9월 9일에 마의태자를 기리는 동제를 지내고 있다.⁵⁾ 인제 지방과 마의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인제와 마의태자의 관계를 주목하고자 하며, 이것이 갖는 지방사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라의 멸망과정에서 파악되는 관련 자료들을 마의태자의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신라시대 교통망을 중심으로 마의태자가 인제로 찾아드는 경로를 짚어 보고자하며, 이어서 인제군 관내에 분포된 마의태자 관련 설화, 지명, 유적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그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서 이루어지는 ‘대왕동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로서 김부리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어서 치제양상을 통해 그 제의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I. 신라의 멸망과 마의태자의 선택

1. 신라의 멸망

1) 眞骨貴族의 分裂과 王權의 弱화

骨品制에 입각한 신라사회에서 최대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신분계층은 眞骨이었다. 실로 신라사회는 진골 만능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모든 요직을 진골 출신이 독점 했다. 이 점은 신라의 멸망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⁶⁾ 다만 하대에 들어오면서 왕위를 둘러싼 진골귀족들의 경쟁이 거듭 뒤를 이었다. 하대에는 155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즉위하여 왕의 평균 재위 연수가 8년도 채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

5) 한림대학교박물관, 『麟蹄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춘추각, 1996, p.14.

6) 국사편찬위원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한국사 11』, 탐구당, 2003, p.226.

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⁷⁾

첫째로 당시 골품제사회는 眞骨貴族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진골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왕의 近親일지라도 官界 진출에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진골귀족의 포화상태를 반영하여 준다. 이에 따라 왕실 및 진골귀족은 여러 家系로 분리되었다.⁸⁾ 그리하여 진골귀족의 각 가계 사이에 王位를 둘러싼 정권쟁탈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정권쟁탈에서 패배한 가계는 권력에서 소외되어 몰락하거나 지방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골품제사회는 地方人의 중앙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골품제는 진골 중심의 특권층만을 보장해 주는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지방사회의 실력가들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地方人들은 실력을 쌓았다고 해도, 지방사회에서 토착세력이 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에서 강력한 在地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고, 중앙에서의 진골귀족들의 왕위쟁탈전에 의해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신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호족세력으로 성장했다.

2) 豪族勢力的 등장

신라말에 지방에서 대두한 새로운 사회세력을 豪族이라 부른다. 호족은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장하여 사회변동을 주도하였다. 호족은 그 出身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 나누어진다.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落鄉貴族 출신의 호족, 軍鎮勢力 출신의 호족, 海上勢力 출신의 호족, 村主 출신의 호족을 들 수 있다. 호족은 출신이 다른 만큼 호족으로서 등장하는 과

7) 이기동,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pp.177-183.

8) 정청주, 「豪族의 대두」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일조각, 1996, p.12.

정이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호족세력은 중앙에서의 극심한 권력쟁탈전으로 인한 지배체제의 이완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다. 특히 통일 전쟁 시기에 戰功으로 얻은 광대한 食邑은 도리어 지방 세력의 경제적 바탕이 되어갔고⁹⁾ 따라서 지방에 거주한 귀족들과 촌주들은 중앙의 관할을 벗어나 독자적 지위를 고수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족들은 진골귀족이나 사원의 대토지소유와 수탈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던 농민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 당시 귀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祿邑이나 食邑에서 자의적인 수탈을 감행하였다. 또 開墾이라는 합법적인 방법 외에 강점이나 약탈, 고리대 등을 통하여 전장(田莊)을 형성하였다.¹⁰⁾ 그에 따라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유랑하였고 심지어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고, 호족세력들은 이런 농민들을 포섭하면서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 高麗에 대한 新羅의 降服

新羅의 敬順王이 高麗 太祖에게 귀부함에 관련하여, 『三國史記』나 『高麗史』 등의 史書들이 매우 간략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경순왕의 귀부는 신라 왕실이 오랜 숙고를 거쳐 고려 태조와의 협상을 거친 끝에 내려진 결단이라 여겨진다. 귀부를 결심했던 무렵의 신라는 王京을 제외한 사방의 국토를 모두 잃었고, 따라서 국가재정을 더 지탱할 길이 막혀 버린 데다, 민심마저 떠나버린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신라는 더 이상의 존립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차선책으로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귀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¹¹⁾

9) 신형식, 「羅末의 社會變動」 『新羅史』, 이화여대출판부, 1997, p.226.

10) 한국역사연구회 「호족의 대두와 집권화 과정」 『한국역사입문 2』 1996, p.55.

11) 황선영, 「敬順王의 歸附和 高麗初期 新羅系勢力의 基盤」,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2003, p.3.

後三國 體制가 유지되어 40여 년을 지나는 동안, 명목상으로는 신라가 종주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실제로 고려와 후백제가 각축하는 가운데서 최대의 피해자는 언제나 신라였다. 후백제의 甄萱은 끈질긴 공격 끝에 마침내 경명왕 4년(920)에 신라의 대야성(합천)을 빼앗은 다음, 신라에 대한 후백제의 침공은 더욱 빈번해졌다. 이럴 때마다 구원군의 명분으로 고려가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주로 낙동강 주변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의 전황에 따라 인접한 지역의 통치자들은 고려와 후백제의 사이에서 자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¹³⁾ 또 고려 태조는 견훤이 점령했던 신라의 지역을 탈환하는 대로 신라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모두 당연한 듯 자신의 영역에 편입시켰고, 이러한 상황은 다시 주변의 지방이 스스로 고려에 귀부하도록 만든 동기가 된 듯하다. 그리하여 고려가 후백제와의 대세를 판가름하는 고창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자 그 주변이 모두 고려의 땅이 되었다.

이러한 형편에 다다르게 되자 경순왕은 이제 고려의 침공 표적으로, 다음 차례가 곧 신라일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고려에 귀부할 것을 심각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보여 진다. 고창전투 승리 이후 경순왕은 바로 태조와 만나기를 청했는데,¹⁴⁾ 이는 다만 의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2. 麻衣太子의 선택

견훤의 세력이 미흡해진 마당에 신라로서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

12) 신호철, 「甄萱政權의 對外政策」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일조각, 1996, pp.106~109.

13)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한 시기는 신라 경명왕 4년(920) 10월이었다(『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景明王 4년 條). 그 후로 신라지역에 대한 후백제의 침공이 격화되었다. 당시의 戰況에 대해서는 황선영, 「고려·후백제의 동남도 쟁탈」 『高麗初期 王權研究』, 동아대출판부, 1988 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14) 황선영, 앞의 책, p.58.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고려와 귀부 협상을 벌였을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와 경로 등이 결정된 다음 귀부가 실행되기에 이른 것 같다. 이에 신라 최후의 어전회의가 열려 정식으로 귀부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경순왕은 고려에 귀부하는 名分을 내세울 때 “이미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한 이 형편에 무죄한 백성만을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¹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忠臣과 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인데 어찌 一千年社稷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랴”¹⁶⁾ 라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부가 결정되었으며, 곧 사신을 고려로 파견하여 이 사실을 통고하게 된다.¹⁷⁾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手順일 뿐 사실상의 처리 방침은 이미 양국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고려에 귀부하는 것을 반대했던 마의태자였지만 이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설사 스스로 신라의 부흥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한 나라의 태자가 擧兵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바로 고려로부터 진압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의태자는 병사를 모아 반란을 도모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경주에서 출발하여 마의태자가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개골산까지의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마의태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라 부흥을 꾀했다면 개골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병사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을 들러 뜻을 규합해 세력을 키워야 했지만 마의태자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먼 길을 돌아 개골산으로 향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은둔한 삶을 시작하는 마의태자의 선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 국사편찬위원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한국사 11』, 탐구당, 2003, p.103.

16)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2, 경순왕 9년.

17) 황선영, 앞의 책, p.66.

II. 마의태자는 왜 인제를 선택했는가?

1. 인제로 들어 온 경로

新羅의 대외 진출로는 경주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쪽은 安康-浦項 을 거쳐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길이고, 남쪽은 蔚山-東萊를 거쳐서 낙동강 하구에 이르는 길이다. 서북쪽은 永川-大邱-善山과 永川-義城을 거쳐서 낙동강 중·상류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이고, 남서쪽은 청도-밀양을 거쳐서 낙동강 하류로 향하는 통로이다.¹⁸⁾

5세기 중반 羅濟同盟이 결성되면서 高句麗에 대한 반격이 개시되었는데, 이 때 경상북도 북부 지방과 이곳에서 경주로 통하는 요충지에 산성을 축조함으로써 경상북도 일대에 도로망을 개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때의 관도는 현재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경주와 대구 시지동에서 발굴된 新羅의 도로 遺構를 통하여 대략적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직선으로 건설되었고, 수레가 교차하여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가졌으며, 일부지역은 노면을 포장하였을 가능성이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¹⁹⁾

당시 경주에서 한강 유역으로 가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다. 竹嶺을 통과하는 길과 계림령(하늘재)을 통과하는 길, 그리고 추풍령 길이었다. 그 중에서도 계림령은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으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되었음은 물론이고, 신라의 진출 이전부터 개척되었던 큰 길이었다.²⁰⁾ 또한 계림령은 신라 5소경 중 하나였던 충주를 지나는 길로서

18) 서형일, 「交通路의 發達 背景」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p.23.

19) 서형일, 위의 책, p.71.

20) KBS역사스페셜, 「미스터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 『역사스페셜5』, 효형출판, 2003, p.199.

남한강 수로를 이용할 경우 바로 양평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천을 통해서 개성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경순왕의 행렬은 30리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니 이들이 움직이기에는 계립령이 가장 좋은 도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순왕이 가는 곳마다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며, 또 고려 태조는 중간에 사람을 보내어 위문했다고 한다.²¹⁾ 이런 점으로 볼 때 경순왕의 이동경로와 마의태자의 이동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에는 마의태자가 皆骨山으로 들어갔다고 되어있다. 개골산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마의태자의 유적이 남아있는 인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당시 경주에서 금강산으로 갈 때 이용했던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다. 그런데 마의태자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마의태자의 마지막 행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경주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 마의태자의 유적과 전설이 남아있어서 그 행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주를 떠난 마의태자와 관련된 처음 남아 있는 지역은 충주이다. 충주에는 미륵리석불과 덕주사 마애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신라의 마의태자가 나라의 망함에 한을 품고 금강산에 가던 길에 누이인 덕주공주는 월악산 덕주사를 창건하여 남향한 암벽에 마애불을 조성하였고, 마의태자는 미륵리석불 북쪽으로 두어 덕주사를 바라보게 하였다고 한다. 덕주사의 마애불은 덕주공주의 형상이고, 미륵리석불은 마의태자의 상이어서 서로 바라보게 하였다.²²⁾

충주에 이어 원주, 양평에도 마의태자의 전설이 남아 있다. 양평의 龍門

21) 『高麗史』 권2, 世家, 太祖, 18년 11월 條.

22) KBS역사스페셜, 앞의 책, p.204.

寺에는 불상이나 건축물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사찰 안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다.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은행나무의 유래에 마의태자에 관한 전설이 있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용문사에 들러 쥘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인제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홍천에도 마의태자의 전설이 남아 있다. 지왕동(至王洞)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은 ‘왕이 마을을 지나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²⁴⁾

그렇다면 마의태자 전설이 있는 지역들을 연결한다면 마의태자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을 통해서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경주→계림령→충주→양평→홍천→인제→한계령을 통해 개골산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제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지명유래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골산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마지막 도시였다. 마의태자가 인제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마의태자의 이동경로에서 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2.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과 유적의 분포양태

인제는 본래 高句麗의 猪足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獠蹄로 고쳐지고, 楊麓郡(지금의 양구군)에 속했으며, 인제란 이름은 고려시대에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²⁵⁾ 인제는 일찍이 고려에 복속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23) KBS역사스페셜, 앞의 책, p.204.

24) 박성수, 「중국 금나라 시조된 마의태자의 후손」 『신동아』 2000년 5월호.

25)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4.

인제는 고려보다 신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신라의 통일 뒤 행정구획이 9주 5小京 制度로 확립되었는데, 인제 지역은 영서지역을 대부분 포함하는 朔州에 속하였다.²⁶⁾ 6세기 이후 신라의 北進으로 인해 지금의 인제는 고구려의 땅에서 신라의 영토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로 궁예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 전까지 몇 백 년을 신라의 영토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인제 지역은 친 신라적인 지역이면서도 영동과 영서의 경계에 있는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인제지방에 대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 46 인제현 題詠조에,

“인제는 여러 산들이 깊고 멀어서 수레와 말 탄 손님 오는 일 없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여, 詠 “人家가 八九 집” 정도라고 읊어질 정도였다.

라고 적고 있는데 그 만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인제 지방은 외부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인가가 드물고, 산이 많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의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기록에는 남아있다.

인제에는 마의태자와 관련하여 여러 전설과 지명유래가 전해지는데 다음의 표는 인제지역의 마의태자 관련 전설과 지명유래를 살펴 본 것이다.

〈표 1〉 인제 지역에 남아있는 마의태자 관련 유적과 지명

위치	유적	지명
인제군 상남면	대왕각, 대왕릉터, 옥새바위	김부리, 다물리, 단지골(단지곡), 부수동, 수구너미(수레너미, 수레네미, 술구너미), 항병골 ²⁷⁾ (황병골, 황병곡),
인제군 남면	갑둔리 5층석탑	갑둔리, 맹개골(맹가골), 옥토봉, 천지골

26) 『麟蹄郡史』, 인제군사편찬위원회, 1996. p.151.

인제군 북면	한계산성	한계리, 대궐터
--------	------	----------

위의 <표 1>에서 나타는 것과 같이 인제에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지명유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지금은 상남면에 속해있는 김부리나 다물리, 부수동은 20세기 이전에는 남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는 인제군 남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麟蹄郡 上南面の 너른 들판에 큰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두 개의 돌이 포개진 형태인 바위의 이름은 玉璽바위다. 이 지역에는 마의태자가 이곳에 옥새를 숨겨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옥새를 지키기 위해 늑뱀이 바위 주변을 맴돌았다고 한다.²⁸⁾ 그러나 옥새바위에 관한 전설은 시기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옥새바위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있는 바위, 바위 두 개가 포개져 있는데, 김부대왕이 옥새를 감췄던 곳이라 하며, 여러 빛깔의 뱀이 가끔 나와 돌아다니는데, 옥새를 지키는 것이라 함.²⁹⁾

(나) 옥새바위라는 것은 마의태자가 이 김부리에 와서 거기다 옥새를 감춰 두었다. 그래서 옥새바위지. 거기에 오색 뱀이 있다 해서 애들은 그 근처도 못 가게 했어. 나도 학교 다닐 때 그 하얀 뱀을 봤어. 바위 주변에 백사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뱀이 옥새를 지키는 거여.³⁰⁾

(다) 옥새바위는 틈이 나 있는데 그 틈으로 뱀이 대가리를 내밀고 있어요.

27) 항병골은 抗(막을 항), 兵(군사 병)을 써서 ‘군사를 막다’ 라고 하여 마의태자가 김부리에 정착했을 때 군사적인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이라는 전설이다. 항병골은 황병골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황병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붙여졌다.

28) 『麟蹄郡史』, 앞의 책, p.1246.

29)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한글학회, 1967, p.349.

30) 이재우(남·52), 인제군 상남면 2008, 09.13, 김선일 조사.

옛날에 뭐 일본 놈이 옥새를 꺼내려다가 뱀에게 물려 죽사해 죽었다고.

옛날에 일본 순사가 김부리만 왔다가 가면 파면됐는지, 마의태자가 오래 전에 김부리에 왔는데 왕자가 신이 있어서 파면시킨 모양이야. 옛날에 그러더라구, 노인네들이.³¹⁾

(가)와 (나)의 옥새를 바위에 감추었다는 모티프는 김부대왕이나 마의태자와 관련된 다른 지역의 전설에는 없고, 인제 지역의 전설에만 있는 독특한 모티프이다. 이것은 나라를 내어준 왕이 아니라 국권 회복의 의지를 가진 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를 보면 마의태자의 전설에 ‘일본 순사’나 ‘일본 놈’이 등장한다. 이것은 마의태자의 전설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황을 결부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옥새바위가 있는 곳에서 김부리라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다. 수구네미란 이름의 이 고개는 마의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어 다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김부리라는 마을 중앙에는 대왕각(大王閣)이 있다. 흔히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김부리의 대왕각은 신을 모시는 여느 시골 마을의 성황당이나 산신각과는 다르다. 전각 안에 모신 위패의 주인공은 경순왕의 태자, 바로 마의태자인 것이다.³²⁾ 대왕각에는 “경순대왕일자지신위(敬順大王一子之神位)”라 기록된 위패가 모셔져 있었으나 1978년 부안김씨 후손들에 의하여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로 고쳐 모셨으며 철제마상 2점이 있다.³³⁾

마을엔 마의태자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설과 유적이 있다. 맹개골은 맹장군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맹장군은 마의태자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마의태자를 수행해서 이곳까지 왔다. 신라 재건을 위해 의병을 모으고 양구, 한계리까지 다니면서 군사 활동을 했다고 한다. 양구군 군량리라는 지명은 신라 부흥운동을 위해 군량미를

31)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도민속학회, 2005, pp.77~78.

32) KBS역사스페셜, 앞의 책, p.193.

33) 『麟蹄郡史』, 앞의 책, p.1245.

모아둔 곳이었던 데서 비롯된다고 전해진다. 단지골 역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데 원래 단지(斷趾)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발을 자르는 것으로 김부리 지역에 죄지는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인제에 유난히 많은 다물리라는 지명은 영토를 되찾는다는 말을 의미 한다³⁴⁾.

부수동이라는 이름 또한 마을 사람들은 마의태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김부리에 웅거하고 있을 때 김부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서쪽 관문이 되는 갑둔과 소치리를 우두머리 장수인 맹장군이 지켰다면 동쪽 관문인 부수동은 부장수 즉 부수가 지키던 곳이라 하여 부수동(浮帥洞)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남면 이외에도 남면 옥토봉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옛날에 옥토봉에는 한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녀가 없어 김부대왕께 찾아가 소원을 빌었더니 김부대왕은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찾아가 백일기도를 드려보라고 일러주어 부부는 토끼봉에 절을 짓고 백일기도를 드려 두 남매를 얻게 되었으며 남매는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 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옥토봉(토끼봉)에는 절의 주춧돌이 남아 있다고 한다.³⁵⁾

옥토봉 위쪽에 있는 천지골은 비록 한자표기는 알 수 없으나 갑둔향토사적 연구회원 이태두 선생님은 천지곡(天志谷 : 하늘의 뜻, 임금의 뜻), 천제곡(天祭谷: 하늘에 제사지내던 골짜기), 천기곡(天基谷: 임금님의 사업의 기초)으로 김부대왕이 구국의지를 세우고 다진 골짜기로 풀이하면서 김부대왕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이태두 선생님은 김

34)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東明聖王 편에 多勿(다물)이 고구려 말로 '옛 땅을 되찾는다. (復舊土)'는 뜻이라고 하였다.

35) 『麟蹄郡史』, 앞의 책, pp.1191~1192.

부리 인근 지역의 지명, 갑둔리 5층 석탑의 명문(銘文)의 김부(金富)는 敬順王의 이름 김부(金傅)가 아니라 마의태자라는 것, 마의태자는 김부리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권 회복을 도모하였다는 것 등을 밝혀내었다.³⁶⁾

마지막으로 북면 한계리(寒溪理)는 한계산 아래 마을이라 해서 한계동이라 하였으며 이 곳 역시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래가 있다. 신라김씨 대종원의 기록을 보면 마의태자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단기 3268년(935) 10월 하순이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착한 때는 살을 베는 듯 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한겨울이었다고 했는데 이들 일행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寒溪)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³⁷⁾

인제 지역에는 마의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남아있는 전설은 『三國史記』의 기록과는 다르게 신라 부흥을 위해 군사를 모집하여 군량을 비축하기도 하는 등의 신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의태자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설을 정확히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령 옥새바위의 전설처럼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인제를 제외한 충주, 양평, 홍천 등에 남아 있는 전설은 마의태자의 국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금강산, 소금강, 인제에 전승되고 있는 마의태자 전설은 대궐 터, 산성, 군사훈련, 전투 등의 모티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같은 유형의 전설로 나타나는데, 전설에서 마의태자는 충신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에 들어가 대궐을 짓고 산성을 쌓는다. 군사를 엄격하게 훈련시키며 많은 군량을 비축해 놓는다. 그리고

36) 경순왕의 이름인 김부(金傅)와 명문에 새겨진 김부(金富)의 부는 다르지만 당시 표기법인 이두를 통해서 익(益)과 부(富)는 ‘넉넉하다’ 라는 같은 뜻을 가진 한자로 마의태자의 이름 김일(金鎰)에서 일(溢)과 익(益)은 같은 뜻이기에 일(鎰)과 부(富)도 같은 뜻이 되어 쓸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이태두, 「김부사적기(金富史蹟記)」,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 1987.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37) 『麟蹄郡史』, 앞의 책, p.1245.

고려와 대결한다.³⁸⁾ 전설은 자연인으로서의 마의태자가 실제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라를 잃어버린 왕자로서의 마의태자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심들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도시였던 인제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인제에 남겨진 마의태자의 전설은 신라 국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인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비록 신라 부흥을 위해 싸웠다는 전설들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옥새바위처럼 시대에 따라 변모되었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었던 마의태자의 상황에서 인제에 남겨진 전설들은 마의태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제는 금강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써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은둔하며 살던 마의태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의태자의 숨결이 가장 잘 남겨진 곳이 바로 인제인 것이다.

Ⅲ. 상남면 김부리의 大王洞祭

1. 마을공동체로서 김부리

김부리는 1916년 행정구역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인제현 남면 지역으로 『麟蹄郡史』에 의하면, 본래 김부동 김보왕촌 김보왕동 등으로 불리다가 김보리가 되더니 김부리가 되었다. 김부리는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 머무르면서 신라를 재건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모집해 양병을 꾀했다 하여 그렇게 불린다고 전해지며, 1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김부대왕각이 있어 일 년에 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동제를

38) 전신재, 앞의 책, p.25.

지냈다.

마의태자와 관련하여 김부리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람은 19세기 초의 유명한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이었다. 그는 그곳을 ‘김부대왕동(金傅大王洞)’이라 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인제 읍지(邑誌)에 실려 있으며 경순왕은 곧 신라의 항왕(降王)인 김부”라고 부연하였다.³⁹⁾ 이능화(李能化, 1869~1943)의 『朝鮮巫俗考』(1927)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다.

마의태자의 전설이 형성되고 동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인제와 김부리 지역의 인구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표는 인제지방의 호구 수 변천을 살펴 본 것이다.

〈표 2〉 인제지방의 호구 수 변천⁴⁰⁾

年代	戶口數	典據
1454(단종 2)	본현 125호 207인 서화 72호 191인	『世宗實錄地理志』
1760년(영조 36)	1,086호 4,411인	『輿地圖書』
1829~31년(순조 29~31)	1,119호 4,941인	『關東誌』
1871년(고종 8)	1,263호 4,071인	『關東邑誌』
1940년	12,217호 69,817인	『江原道誌』

위의 〈표 2〉를 보면 조선 초기였던 1454(단종 2)년 인제의 인구수는 197호, 398명이었는데 조선 후기인 1871(고종 8)년에는 1,263호 4071명으로 10배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1896년(병신년)8월 4일에 23부제를 폐지

3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제20집, 민족문화추진회, 1981, p.23.

40)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6.

하고 전국을 13도로 개편하면서 이때 인제는 군(郡)으로 승격되어 현내면, 동면, 남면, 북면, 서화면 등의 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고, 1906년 10월에는 춘천군에 속해 있던 기린면이 인제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⁴¹⁾

보다 자세한 인제 지방과 김부리의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제현 인구 도표⁴²⁾

面	戶	男	女
坊里縣內面	293	589	673
東面	91	174	320
南面	288	583	514
北面	233	405	379
瑞和面	181	294	480
합계	1,086	2,045	2,366

위의 〈표 3〉은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인제현의 인구 도표이다. 『輿地圖書』가 제작된 18세기 후반의 인제현의 인구는 4411명으로 남자(2045명)에 비해 여자(2366명)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에 김부리는 남면에 속해 있었는데 남면의 인구는 총 1097명으로 인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 할 정도로 인제에서는 규모가 큰 마을에 해당되었다. 남면의 자세한 인구는 아래 도표와 같다.

〈표 4〉 남면 인구 도표

理	戶	男	女
加奴村	23	46	36
藍田洞理	56	112	95
馬奴理	56	112	144

41) 『麟蹄郡史』, 앞의 책, p.154.

42) 『輿地圖書』上, 국사편찬위원회, 1978, pp.605.

北坪理	40	86	59
沙峴理	16	32	20
於論理	15	31	27
松峴理	6	16	12
亭子幕理	17	35	24
金宝玉理	12	24	21
羅加理	12	24	20
建達理	28	46	41
頭毛洞理	7	19	15
합계	288	583	514

위의 <표 4>에서 金宝玉理(오늘날 김부리)의 인구는 12호 45명으로, 조선 후기 김부리의 인구가 45명이므로 마의태자가 경주로 이동해서 인제에 왔을 당시인 고려 초기에는 이보다 인구가 적었을 것이다. 약 10호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병사를 모으고 군량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남면 남전리에서 부족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발견⁴³⁾됨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인제와 김부리 일대에는 사람이 거주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공동체 마을로써의 김부리는 조선 초기에 들어서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형준은 우리나라 洞祭에서 역사적 인물이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나서 김부대왕은 민중의 시대적 욕구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펴지 못하고 좌절당한 요인에서 신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⁴⁴⁾ 즉 김부리 지역은 조선 초기에 공동체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주민 구성의 변동, 생업의 변동, 마을의 권력구조의 변동 등으로 새로운 제의가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인제에 남아 있는 마의태자의 흔적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됐을 것이다.

43)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27.

44) 윤형준, 「김부리 대왕당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p.66.

2. 치제 양태와 특징

김부리 동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치성과 서낭제 이외에도 대왕당 제사를 따로 지낸다는 것 있다. 김부리에서 언제부터 동제를 지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산치성, 서낭제와 같이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된 조선 초기 이후에나 성황당이나 대왕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왕당은 예부터 현재의 자리(옛 마을 공동창고 뒤)에 있었다. 현재의 당집은 세 번 중수한 것으로 예전 능아집⁴⁵⁾이 있던 자리에 송판과 기와로 지었다가 다시 벽돌과 기와로 재건한 것이다. 김부리에는 본동의 대왕당 이외에도 항병골과 단지골에도 대왕당이 있었다고 한다.⁴⁶⁾ 두 곳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원래는 본동의 대왕당에 김부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제를 올리던 것을 항병골과 단지골의 인구가 늘면서 3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동란 등으로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각 제사로 모여들게 되었다.⁴⁷⁾

김부리 대왕당 제사는 해마다 단오와 중앙절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지낸다. 김부리 개개 마을에서 제비를 추렴하여 제물을 마련하고 생기 복덕을 가려 깨끗한 이로 재주를 두 명 선출하였다. 이 두 명이 단오와 중앙절에 제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제주는 제물을 마련하는 도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상을 당한 이는 제주로 선출될 수가 없었다. 도가는 각 반의 반장들이 반 단위로 걷은 제비를 가지고 제물을 마련하고 술을 담갔다. 초헌관이라 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이를 따로 두었는데 대개 마을에서 나

45) 능아집은 능애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너와집을 강원도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너와집은 지붕을 붉은 소나무 조각으로 덮은 집으로, 귀틀집이나 셋집처럼 화전민이나 산간지대의 주민들이 짓고 사는 집이었는데, 붉은 소나무가 사라지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에 3채가 남아 있어 중요민속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다.

46) 『麟蹄郡史』, 앞의 책, p.925.

47)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김부대왕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가 지긋하고 제사경험이 많은 어른이 이를 맡았다. 48)

제물로는 형편에 따라 그 해의 풍년이 들면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술과 적, 포, 과일 등을 마련하였는데 동제에 빠짐없이 마련하는 제물이 있었는데 미나리적과 취떡이다. 이는 마의태자가 즐겨먹었다고 해서 제상에 꼭 올려놓는다. 미나리는 개울가에 자생하는 돌미나리를 넣어 만든 것으로, ‘기정떡’ 이라고도 한다. 취떡은 동제가 끝난 후 갈잎에 싸서 몰래 근처의 나뭇가지에 올려놓은 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는데, 그 이유는 남자가 찾아 먹으면 글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찾아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49)

대왕당 제사의 절차는 초헌관이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나서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조상제사와 유사하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 사람이 평안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이들이 절을 올린다. 대왕당 제사에서는 산치성과 달리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이는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50)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즐겼다.

한편 김부리 동제는 1980년 7월 11일자 한국일보에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의 묘를 찾았다’ 는 신문보도⁵¹⁾에 의하여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는 ‘부안 김씨’ 후손들이 찾아와 제를 따로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단오의 제사는 마을 공동으로 올리게 되고 중앙절의 제사는 오전엔 마을 사람들이, 오후엔 ‘부안 김씨’ 들이 올리게 되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의 김부대왕제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쓰고, 제의 후에는 마을 대항 돌싸움을 벌일 정도로 성대한 잔치였다. 그런데 이

48)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03.

49) 『麟蹄郡史』, 앞의 책, p.925.

50) 전신재, 앞의 책, p.25.

51) 부안김씨 대종회, 『太子公遺蹟地踏查記』, p.97.

제의는 현재 전승이 끊어졌다. 김부리는 1993년에 종합전술훈련장으로 국방부에 매각되었다. 지금 마을에는 민가가 없다. 황량한 벌판에 마의태자를 모셔놓은 대왕각만 외롭게 서 있다. 남아 있는 대왕각 주변 역시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아 무서운 풀들이 대왕각의 위치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뒤덮고 있다.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부안 김씨’ 대종회에서 대왕각 만큼은 철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군대로부터 받아 매년 음력 9월 9일 한차례씩 대왕각을 찾아 별초를 하고 제를 올린다고 한다.

김부리 동제는 예전과 같이 온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를 올리고 놀이를 즐겼던 마을의 큰 행사이자 축제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는 후손들에 의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온 마을 주민들을 화합하고, 마을의 번영과 복을 비는 김부리 동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김부리 동제를 통해서 마의태자와 관련한 인제의 전설과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후손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필자는 본고에서 마의태자와 인제와의 관계를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제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마의태자의 금강산 이동경로에서 인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김부리 지역의 동제에 대해서 재조명 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논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를 고려에 귀부하는 경순왕의 결정에 마의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忠臣과 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인데 어찌 一千年 社稷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라” 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했지만 고려의 영향력이 커지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신라가 고려에 대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마의태자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신라가 고려에 귀부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은둔 생활을 선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마의태자의 은둔 생활은 『三國史記』에 잘 드러난다. 『三國史記』에는 ‘마의태자가 신라에 병합되자 개골산에 들어가 마의를 입고 초식을 하며 여생을 마쳤다’ 라고 쓰여 있다.

마의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전해지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을 통해서 마의태자의 이동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충주에 남겨진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에 관한 전설은 경주를 떠난 마의태자의 전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으로 마의태자는 경주에서 계림령을 넘어 충주로 들어 온 것 같다. 충주를 지나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는 양평이다. 양평 용문사에는 마의태자가 지팡이를 꽂아서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양평을 거쳐 인제로 들어가는 관문인 홍천에서도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데 홍천의 지왕동은 ‘왕이 지나갔다’ 라고 해서 생겨난 지명으로 위의 유적과 전설을 통해 볼 때 마의태자는 경주에서 계림령(하늘재)까지 와서 충주를 거쳐 양평에 이른 뒤 홍천을 지나 인제에 들어온 것 같다.

인제에는 3개면(상남면, 남면, 북면)에 걸쳐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 곳이다. 옥새를 숨겨두었다는 옥새바위, 왕의 무덤이 있다는 대왕릉터, 맹장군이 병사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군량을 모아 두었던 창고가 있었다는 맹개골과 군량리, 그리고 ‘옛 땅을 되찾자’ 라는 뜻의 다물리까지 인제 지역에는 유독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주에서 인제로 오기까지 남아 있는 충주, 양평, 홍천의 전설과 유적은 마의태자가 이동하면서 생겨난 전설인데 비해 인제에 남아 있는 유적과 전설은 한 동안 마의태자와 그 일행이 일정 기간 어떠한 형태로든 인제에 정착했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결국 마의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인제에 정착하였고, 그로 인해 생겨난 유적과 전설들이 조선 초기 이후에 인제군 김부리 지역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설과 지명 유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대왕동제가 전해지고 있다. 이 동제는 조선 초기 때부터 지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적어도 마을 공동체의 성격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김부리의 인구는 12호 45명으로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약 10호 정도의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었을 거라 짐작된다. 김부리에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김부리 지역에 남아있던 유적과 전설을 토대로 마의태자를 신격화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동제로 계승 발전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태자였던 마의태자는 옷감이 거칠고, 장례식 때 주로 입는 삼베옷을 입고 다녔다. 아마도 당시 김부리 주민에게는 태자로서 화려하고 값 비싼 비단이 아닌 옷을 입으며 생활하던 마의태자의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마의태자는 김부리 주민에게 단순히 쳐다 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한 나라의 태자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을의 어르신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인제 사람들은 마의태자가 김부리에 머물다가 신라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고 믿고 있다. 물론 마의태자가 김부리에서 적극적인 항쟁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인제 사람들에게 마의태자는 허무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개골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친 나약한 태자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김부리 동제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온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같이 지내고 끝난 후에는 길쌈과 그

네 놀이를 즐기는 등 그 전통이 계승되었지만 군사훈련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마을 전체의 잔치이자 축제였던 김부리 동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 ‘부안 김씨’에서 매년음력 9월 9일 한 차례씩 김부리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다행히 동제의 전통은 이어져 가고 있다.

필자가 뜻 한 바로는 경주→금강산까지의 마의태자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살피고, 인제지역의 남겨진 마의태자의 전설과 유적이 갖는 지방사적 의미를 규명하며 ‘김부리 동제’의 제의 성격을 밝히고 싶었지만 사료의 한계에 따라 여러 가지 억측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방 사회의 향토문화 유적과 전설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자위한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인제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하고 싶다.

參 考 文 獻

-원사료-

- 『高麗史』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新增東國輿地勝覽』
- 『輿地圖書』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 탐구당, 2003.
- 부안김씨 대종회, 『太子公遺蹟地踏查記』.
- 서형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제20집, 민족문화추진회, 1981.
-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 인제군사편찬위원회, 『麟蹄郡史』, 인제군, 1996.
- 정청주, 「豪族의 대두」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일조각, 1996.
- 한림대학교박물관, 『麟蹄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춘추각, 1996.
- 한국역사학회 연구회 엮음, 『한국역사학입문 2』, 풀빛, 1996.
-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한글학회, 1967.

-논문-

- 김원룡, 「三國時代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 박성수, 「중국 금나라 시조된 마의태자의 후손」 『신동아』 2000년 5월호.
-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김부대왕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형식, 「羅末의 社會變動」 『新羅史』, 이화여대출판부, 1997.

- 음선혁,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전남사학회, 1997.
- 이종욱, 「新羅下代の 骨品制와 王京人의 住居」,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0.
- 이태두, 「김부사적기(金富史蹟記)」,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 1987.
- 전기웅, 「羅末麗初의 文人知識層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정청주, 「豪族의 대두」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일조각, 1996.
- 황선영, 「敬順王의 歸附와 高麗初期 新羅系勢力의 基盤」,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2003.
- KBS역사스페셜, 「미스터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 『역사스페셜5』, 효형출판, 2003.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권 태 훈(박물관 운영 담당, 학예연구사)

1. 박물관 교육이란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박물관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은 이미 그 존재함으로부터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럼 박물관 교육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박물관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물관만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문화 활동을 의미¹⁾할 수 있고, 이는 박물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현상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관람자가 박물관에 와서 전시를 봄으로써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일련의 변화와 그 과정을 박물관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2. 산촌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1) 김인희,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역사박물관, 『아시아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2005), 14쪽

1)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출발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교육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1926년 남산 옛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에 건립된 은사기념과학관이다. 그 설립목적 자체가 조선 내의 사회교화 사업 장려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매주 토요일 실시한 ‘어린이날 교육’ 이었다. 은사기념과학관은 1928년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다양한 어린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 행사의 내용은 ‘과학실험, 강화(쉬운 과학 이야기 들려주기), 어린이들의 영화취미를 이용한 교육영화와 오락영화 상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어린이날은 1928년부터 1935년까지 총 295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1946년부터 광복이후에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내 문화재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경복궁 수정전에서 1949년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실시한 공개미술강좌로 연결된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의 모습은 1954년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에서 시작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4년 당시 진흥섭 경주분관장과 윤경렬 등은 ‘정신이 때 묻지 않고 생활이 부담 없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재를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학교를 박물관에서 시작했다. 1957년까지는 박물관 관장실, 금관고, 경주 여자중학교 등을 교실로 이용하면서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운영했고 같은 해에는 개교 3주년 기념식을 경주읍 회의소에서 열면서 어린이들이 만든, 그림, 조각, 공예, 사회, 문화재 모형 등을 전시하기도 했다. 1962년에 ‘경주 어린이 향토학교’, ‘박물관 학교’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²⁾

광복 이후 박물관 교육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경주 분관 등에서 자체

2)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출발] 부분은 『박물관 교육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7, 31-33쪽을 부분 발췌·인용·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적으로 기획 진행했던 박물관 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가 되어서야 많은 박물관에서 보편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니, 당시 박물관 교육을 앞장서서 개척한 선각자들의 노력은 박물관 교육계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촌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1) 산촌박물관의 교육의 역사

산촌박물관은 인제지역의 사라져가는 민속문화를 보존, 전승, 교육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8일에 개관하였다. 개관과 더불어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청 문화관광과내에 박물관 운영담당을 신설하여 담당1명, 행정1명, 기능(기계1명), 계약직(학예직) 1명의 조직을 구성하였다.³⁾

개관 이듬해인 2004년부터는 박물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섭외·유치하고 그 외 자체적으로 교양강좌, 주말가족영화 등을 상영하였다.

2005년에는 ‘찾아가는 민속박물관’을 통한 민속박물관과의 계기로 국립박물관의 우수한 강사진이 우리 박물관을 방문 한지공예, 옛책만들기, 민화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20여차례 진행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뗏목문화를 전승하는 ‘월학 1리’와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을 처음 실시한 해이기도 하다.

2006년에는 교육 대상의 폭을 기존 초등학생 중심에서 유아와 장애우 등으로 확대한 한해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병아리 민속교실’을 개설 운영했으며 장애우를 대상으로 그동안 단발성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한지공예를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운영하였다.

2007년은 우리 박물관 자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인력으로 독립한 첫

3) 2008년 11월 현재는 담당(학예연구사) 1명, 기능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였다. 그 동안 국립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우리 박물관의 많은 부분을 채워 주었다면 2007년은 우리 박물관의 프로그램만으로 자립한 한해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전문인력’이 배치됨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었으며 자체 예산도 확보되어 숲공예, 뗏목만들기, 산촌음식만들기 등 우리 지역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 수해로 중단되었던 수도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다.

2008년은 명실상부한 우리 박물관 교육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병(군인)으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총 200여회에 걸쳐 약 5,000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우리 박물관 교육의 혜택을 보고 있다.

산촌민속박물관 교육의 양적 성장

년도	교육종류	횟수	인원
2004	찾아가는 박물관 외	12	600
2005	민화그리기 외	25	1,238
2006	산촌음식만들기 외	79	2,590
2007	곤충만들기 외	162	4,632
2008	옛책만들기 외	205	5,050

(2) 년도별 산촌박물관 교육의 세부내용

① 2004년의 박물관 교육

2004년은 개관 첫해로서 박물관 교육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어린이 1개 프로그램, 성인 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민속박물관을 유치하여 기린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택견배우기, 봉산탈춤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 관내의 학생들을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에 방문하여 서울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해보고 전시실도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여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제문화의 수수께끼를 푼다’ 라는 주제로 ‘인제의 문화이 궁금하다(박인환)’ 등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다.

그 외 매주말과 공휴일 아이들을 위한 가족영화를 상영하여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설날과 대보름의 명절을 맞이하여 복조리, 복주머니 나누기 등으로 구성된 ‘만복나누기’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해 10월 6일에서 7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를 초청하여 ‘백제의 신비, 조선의 그림과 글씨전’ 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4년은 박물관 교육의 태동기로서 타 박물관의 협력을 통한 박물관 교육에 중점을 둔 한 해 였다.

② 2005년의 박물관 교육

2005년은 박물관 교육의 걸음마가 시작되는 해였다. 이 해에는 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립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강사진이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다.

한지공예, 옛책만들기, 종이랑 손이 만나면, 민화그리기, 박물관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찾아가는 박물관 등 7개 프로그램의 교육진이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여 매주말과 평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다. 그 결과 총 25회 1,238명이 박물관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

이 해에 처음 실시된 수도권 가족대상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은 박물관협력망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제 뗏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가족을 직접 모객하여 월학 1리를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 교육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에 눈 뜰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다.

③ 2006년 박물관 교육

2006년은 박물관 교육이 정립되는 시기였다. 특히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 분야의 자체 예산을(얼마)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었다.

특히 앞에서도 얘기 했듯이 박물관 교육의 폭이 유아와 장애우까지 확대되는 해였다. 또한 그 동안 타 박물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 자체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자체 프로그램이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유아를 위한 ‘병아리 민속교실’에서는 ‘누에야! 누에야!’ 라는 주제로 누에가 비단이 되는 과정을 놀이화 한 교육으로 관내 12개 기관에서 약 500명의 유아들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애향원 원생을 대상으로 한지공예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은 애향원 곳곳을 채우고 있으며 식구들 정서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외 절기에 따라 산촌음식만들기, 연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 해에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형 뗏목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 것은 그 동안 타 박물관에 의존하던 교육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2006년에는 총 9개 프로그램에 79회 2,59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다.

2006년 7월에 계획되었던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이 이틀 전에 우리 군의 수해로 인해 취소된 해이기도 하다.

④ 2007년 박물관 교육

2007년은 정립기를 거쳐 성장기에 접어든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해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전문인력 배치사업, 문화예술선도학교 운영 사업 등에 선정되어 박물관 교육의 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우선 문화예술전문강사를 중심으로 주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유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곤충만들기, 옹기 만들기, 솟대 만들기, 씨앗 문패 만들기 등 산촌을 주제로 한 9개를 개설하여 약 3,000여 명의 관내 유초등생들이 박물관을 다녀가거나 박물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으며, 장애우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총 30회에 걸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연말에는 전시회까지 개최하였다.

주말 프로그램도 2006년에 이어 자체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목기만들기, 숲속액자만들기, 너와집 만들기 등 산촌의 특징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나름대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였다.

특히 2007년에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먼저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먼저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의 문화유적 및 산촌민속을 답사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선도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일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제남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뗏목만들기, 목기만들기 등 특성화된 주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도 강원도에서 주최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공모에 당선되어 일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3회에 걸쳐 수도권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 해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어 약 4,600명의 학생들이 우리 박물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3. 산촌박물관 교육 운영 현황(2008년)

2008년은 우리 박물관 교육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자체 기획 프로그램과 협력망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 양적, 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 해 였다. 2008년 운영한 프로그램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계층	프로그램명	기간	횟수 (회)	인원 (명)
어린이	옛책·인장만들기	4 - 7월	17	550
	전통예절·한자배우기	3 - 11월	25	430
	우리지역먼저알기	4 - 7월	9	300
	도자기벽화체험	3 - 8월	22	400
	학습용 앞치마	10 - 12월	21	700
	문화예술선도학교	7 - 8월	9	500
가족	토요문화체험	1 - 12월	15	450
장애우	정크아트 체험	3 - 7월	20	200
특수계층(군인)	병영문화학교	3 - 10월	64	1,280
협력사업 (국립박물관)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4 - 11월	3	240
합 계			205	5,050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11월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는 총 205회 약 5,000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박물관 교육의 수혜를 누렸다. 이는 2005년의 1,000여명에서 3년 사이에 4배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다.

좀더 깊이 있게 박물관 프로그램별로 운영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대상 교육

1) 교육목표

우리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은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설하고 있다. 연령별, 내용별로 다양한 교육 운영과 시청각, 체험하습 등 다양한 방법의 학습 형태를 통해 각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배양하고 우리지역과 문화예술교육 이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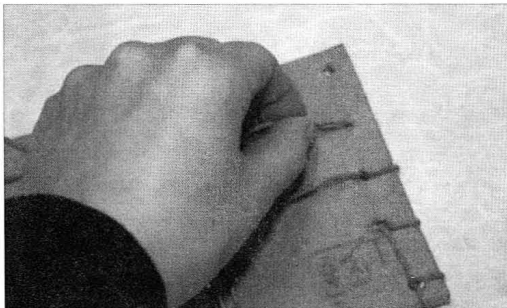
교육은 크게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학교별, 유치원, 어린이 집 별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과 방학 때 개인별로 참여하는 방학중 교육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기획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여건과 지역의 문화 환경. 그리고 학교 교과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들이 박물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상상력과 즐거움, 흥미를 불러 일으켜 향후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2) 교육 개요

가. 기관 연계 교육(학교, 어린이집)

<학교>

o 교육명 : 옛책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독서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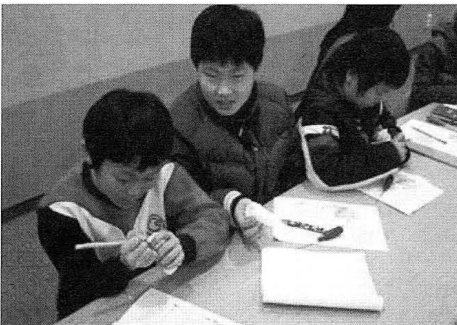


<오침안정법 활용 독서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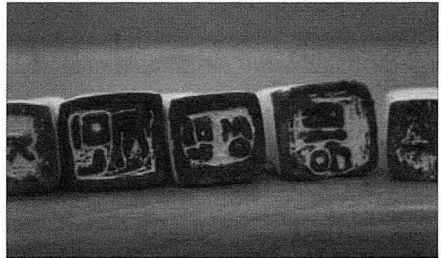
- 일 시 : 08년 3월-7월
- 장 소 : 박물관 다목적실
- 대 상 : 초등 1학년-6학년
- 인 원 : 30명(1회당)
- 내 용 : 전통활자공부. 전통책이 만들어지기까지.오침안정법을 활용한 독서록 만들기
- 참 가 비 : 무료

o 교육명 : 나만의 인장 만들기(도장 “국”)

- 일 시 : 08년 3월 - 7월
- 장 소 : 박물관 다목적실
- 내 용 : 국새, 낙관 등 전통적인 도장 이야기(이론설명). 백토를 활용 나만의 문양과 도장을 만든다.
- 대 상 : 초등 4학년 - 6학년
- 인 원 : 30명(1회당)
- 참가비 : 무료



<인장 세기는 아이들>



<이름을 세겨 놓은 모습>

○ 교육명 : 우리지역 먼저알기(초등생과 함께하는 인제군 문화유산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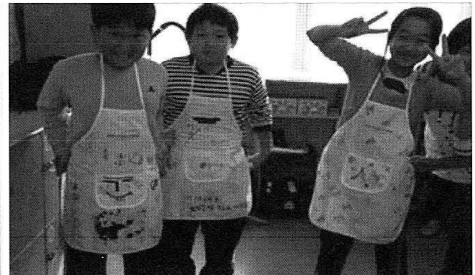
<갑둔리 5층탑을 청소하는 아이들>

- 일 시 : 08년 4월 - 7월
- 장 소 : 인제군 일원 (향교 - 김부대왕당 - 김부탑 - 합강정 - 중양단 - 미륵불 등)
- 내 용 :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현장답사
- 인 원 : 30-40명(1회당)
- 참가비 : 무료

○ 교육명 : 내게 필요한 학습용 앞치마 만들기



<앞치마를 만드는 아이들>



<완성한 앞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

- 일 시 : 08년 10월 - 12월(매주 화수목 중 택일)
- 장 소 : 각급학교 방문
- 대 상 : 병설 유치원 - 초등 6학년
- 인 원 : 30명(1회당) (하루 2회 가능)
- 소요시간 : 2교시(1교시 40분일 경우)
- 교육내용 : 산촌의 민속도구 배우기, 산촌의 전통문화 배우기, 앞치
마 만들기(섬유용 물감 이용)
- 참 가 비 : 무료

o 교육명 : 문화예술선도학교 운영



<활쏘는 아이들>

- 일 시: 08년 03월-10월
- 장 소: 인제남초등학교
- 대 상: 1-6학년
- 인 원 : 30-40명(1회당)
- 소요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국궁체험, 뗏목체험, 도자기 체험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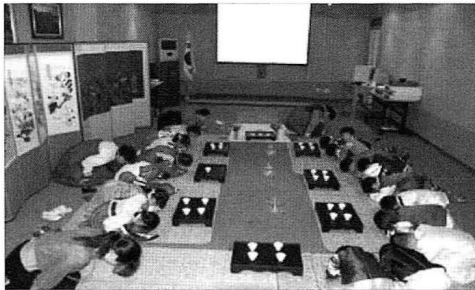
o 교육명 : 내게 필요한 학습용 앞치마 만들기



<초충도 앞치마 만들기>

- 일 시 : 08년 10월 - 12월 (매주 월, 금 중 택일)
- 장 소 : 박물관 및 어린이집
- 대 상 : 어린이집 원생(6-7세반)
- 인 원 : 30-40명(1회당)
- 소요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산촌의 민속도구 배우기, 산촌의 전통문화 배우기, 앞치마 만들기(섬유용 염료 이용)
- 참 가 비 : 무료

o 교육명 : 전통예절 배우기



예절 배우기

- 일 시 : 08년 03월 - 11월
- 장 소 : 박물관
- 대 상 : 어린이집 원생(5-7세반)
- 인 원 : 30-40명(1회당)
- 소요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공수법, 절하는 법, 다식만들기, 우리차 마시기 등
- 참 가 비 : 무료

o 교육명 : 벽화만들기

- 일 시 : 08년 03월 - 10월(주 중 택일)
- 장 소 : 박물관 및 어린이집 방문
- 대 상 : 어린이집 원생(4-7세반)
- 인 원 : 30-40명(1회당)
- 소요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나의 흔적 남기기- 소성된 도자기 흙에 나의 손과 발을 찍어 남기고 박물관 야외 벽면에 붙여 벽화로 완성
 - 내가 처음 쓴 글씨 - 생애 처음 쓴 글씨를 초벌된 도판에 쓰고 재벌하여 타일로 구운 후 벽화로 완성.
- 참 가 비 : 무료



<나의 흔적 남기기- 발찍기>



<완성된 벽화 앞에서>

(2) 가족 대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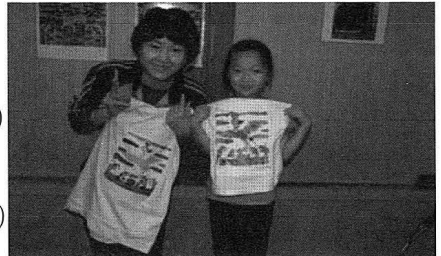
1) 교육목표

가족 대상 교육은 주 5일 근무제와 토요일휴업일 등으로 늘어난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평소 지역에서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용과 민속문화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교육 개요

○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

- 대 상 :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 기 간 : 3월 - 12월(2,4토요일)
- 장 소 : 박물관 다목적실
- 참가인원 : 가족 15 - 20팀(1회)



<흉배 만들기 수업 후>

○ 월별 교육내용

월별	프로그램명	강사	내용
3월	숫공예	하 순 연	숫의 기능과 효과 배우기 및 숫공예
4월	등잔만들기	이 미 경	백토를 활용한 도자기 등잔 만들기
5월	단소만들기	동 봉 선	전통악기 배우기와 단소만들기
6월	지호공예	오 영 재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만들기
7월	흉배만들기	조 희 진	흉배 배우기 및 면티에 흉배 그리기
8월	한지공예	이 선 하	한지의 종류와 생활 소품 만들기
	매듭공예	노 미 자	다양한 매듭 방법 및 장신구 만들기
	단청하기	손 은 주	단청문양 배우기와 그려보기
9월	클레이아트	최 은 숙	점토를 활용하여 하회탈 만들기
10월	스텝프 아트	유 소 영	스텝트(각종문양)를 이용한 책만들기

11월	스탬프 아트	유 소 영	
	매듭공예	노 미 자	다양한 매듭 방법 및 장신구 만들기
12월	숫공예	하 순 연	숫의 기능과 효과 배우기 및 숫공예
	설피만들기	박 수 홍	산촌의 겨울 신발인 설피 만들기



<클레이 아트 수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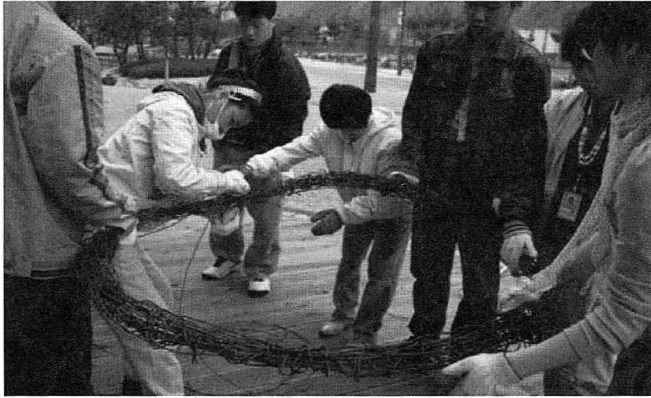
(3) 장애우 대상 교육

1) 교육목표

장애우 교육은 지역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화환경을 접하게 하는 사회 적응 훈련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모자라는 아이들에게 오감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교육 개요

- o 폐품을 활용한 정크아트 교실



<수업에 열중하는 미술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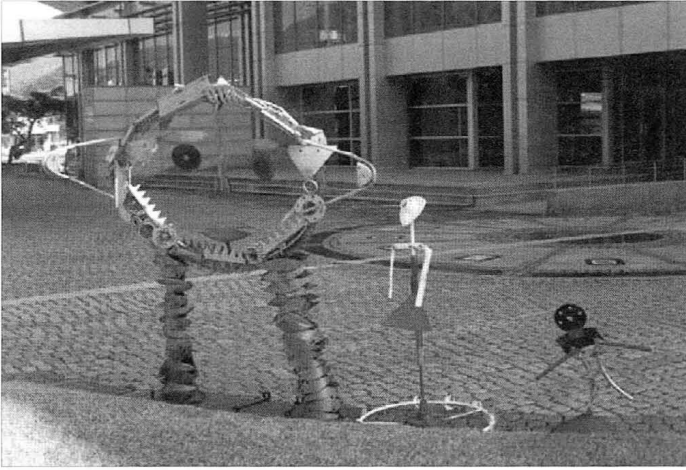
- 일 시 : 08년 3월 - 7월
- 장 소 : 박물관 다목적실
- 대 상 : 애향원 창작 미술반
- 인 원 : 15명(1회당)
- 교육내용 :
 - 폐자재를 활용 조형물 만들기
 - 재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 전문가사와 함께 조형물 만들기

(4) 특수계층(군장병) 대상 교육

1) 교육목표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장병들이 매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군장병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군복무 기간 인제군의 독특한 산촌문화를 접함으로써 향후 제대 후에도 인제군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 내용도 조선시대 군사들의 수련 무술인 무예 24기를 체계



<완성후 전시된 모습>

적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독특한 생업관행인 목기 제작 과정을 교육화 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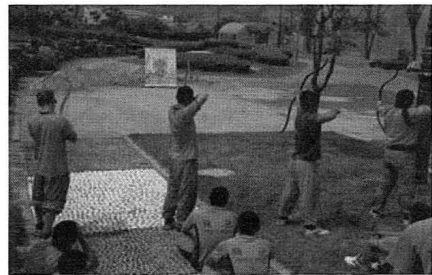
2) 교육 개요

o 무예 24기 수련

- 제 목 : 무예 24기 수련(30명내외)
- 일 시 : 08. 4. - 12월 매주 토요일
- 장 소 : 산촌박물관 야외 광장
- 수련내용 : 무예 24기(봉술, 검술, 창술 등)



<본국검 배우기>



<국궁 배우기>

○ 인제목기 제작 수련

- 제 목 : 인제지역의 전통 목기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
- 일 시 : 08. 4. - 12월 매주 토요일
- 장 소 : 인제 목공예 갤러리
- 수련내용 : 목함지, 귀함지 등 전통 목기 만들기



<인제목기 만들기>



<서각하기>

(5) 박물관 협력망 교육(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1) 교육목표

박물관 협력망 교육으로 기획된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은 수도권 가족들에게 우리 인제 지역의 독특한 산촌민속을 체험하게 하고 나아가 자족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 군을 방문하지 못 하였던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정감어린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의 농외소득과의 연계성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교육 개요

- 제 목 :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 기 간 : 2008. 4 - 11월(봄 2회, 가을 1회)
- 일 시 : 1차 4. 26(토) ~ 4. 27(일)

2차 5. 10(토) ~ 5. 11(일)/

3차 11. 1(토) ~ 11. 2(일)

- 참가인원 : 총 75 가족 242명

(1차 : 26가족 80명/ 2차 : 25가족 79명/ 3차 : 24가족 83명)

- 참가비 : 1인당 30,000원(숙식비)

- 장 소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북면 월학1리 냇강마을

- 주 관 : 국립민속박물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 내 용 :

종 류	교육내용
뗏목체험	뗏목 아리랑 배우기, 뗏목 운반하기, 통나무 뗏목 만들기 뗏목 연결하여 타보기
음식체험	도토리밥, 산나물, 메밀묵, 옥수수 칩떡, 수수부꾸미, 올챙이국 수, 옥수수, 감자 삶아 먹기, 김장담그기 등
문화체험	천렵하기, 숲속 식물 관찰하기, 숲나무 액자 만들기, 마을 제당 둘러보기, 별밤 별자리 보기, 밭갈기, 모내기 등
박물관 관람	산촌 박물관 관람 및 전시설명을 통하여 산촌 민속에 대한 전체 적인 이해 도모



<목도체험>



<밭갈기 체험>



<모내기 체험>



<옥수수 심기 체험>

4. 산촌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과제와 추진방향

지금까지 박물관 개관에서 2008년까지 박물관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물관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발전하는 박물관 교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제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첫째, 박물관 교육의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선별하여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럴 경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의 실정 및 교과 내용과 맞지 않을 경우 학교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교과 과정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내 뜻을 같이하는 교사, 문화예술인, 박물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교육연구회] 같은 구성체를 조직하여 심도 있는 교과서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습 등 일련의 교육시스템이 갖추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008년에 약 200회의 교육이 이루어 졌지만 교육에 대한 평가는 설문지 방법에 의한 간단한 의견수렴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교육 수혜자의 만족도, 개선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미흡한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설문지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문제점이나 이해 정도 등을 개별 면접함으로써 평가의 결과가 다음 교육에 활용되고 개선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전문가인 교육사와 교육봉사자의 충원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현재 박물관의 교육전문인력은 교육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 박물관의 경우 2007년부터 교육사가 배치되면서 박물관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 전문교육을 받은 교육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사 1명이 매월 매 분기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까지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우리 박물관은 관내 어린이들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매 학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박물관들은 수요자가 광범위하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일정정도 기간 운영할 수 있으나 우리 박물관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이 프로그램 개발이 없으면 박물관 교육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전문 교육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교육봉사자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인들을 교육봉사자로 위촉하여 교육사와 함께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박물관 교육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박물관 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의 박물관 교육시설은 주로 1층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진다. 명칭에서도 할 수 있듯이 약 25평의

공간은 교육뿐 아니라 회의, 전시 등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회의나 전시가 있을 때는 교육을 할 수 없고 또 교육을 할 때에는 회의나 전시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순수 교육목적의 교육장 마련이 시급하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실내 장식 및 기자재와 집기 등의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과제들을 안고 우리 박물관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자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이 개발이다. 우리 박물관은 2003년 개관 이래 ‘박물관 교육 중심의 박물관’ 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타박물관과 차별화된 그래서 우리 박물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박물관은 찾아 학습하는 아이들이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 협력 체계의 강화이다. 우리 박물관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타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채 걸음마도 못할 무렵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과 관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등이 우리 박물관을 우뚝 설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박물관 협력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강화할 것이다.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교류 등을 통해 우리 박물관의 약점을 강화하고 강점은 나누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에서는 박물관의 지원을 각 지역별 협의체를 통한 지원으로 창구를 이루어나 할 것으로 보이므로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의 가활르 통한 체험교육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타지역 타 박물관간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농촌체험마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면 월화 1리의 “박물관과 함께하는 민속마을 여행” 이 좋은 사례인데 이를 통해 수도권 가족이 박물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마을을 재방문하고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박물관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박물관 교육은 당장의 성과 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부가창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의 ‘박물관 경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의 주중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발전 방안 (2007년, 2008년도 중심으로)

최 윤(인제산촌민속박물관 에듀케이터)

I. 주중 교육프로그램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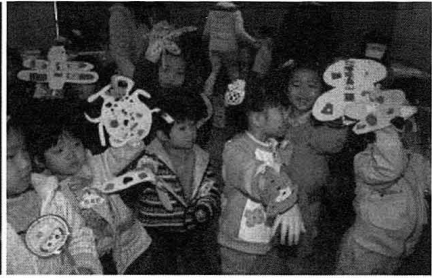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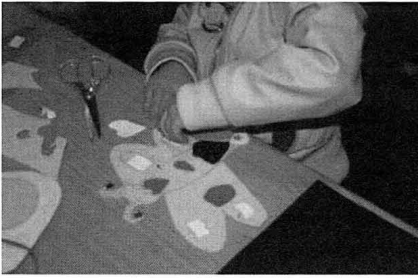
소규모의 학생단체관람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은 2007년 “이제는 박물관 교육이다” 라는 큰 타이틀로 시작하였다.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육과 박물관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II. 2007년 주중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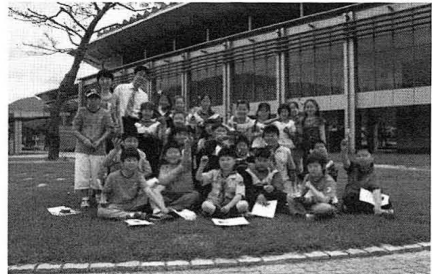
1. 교육내용

1)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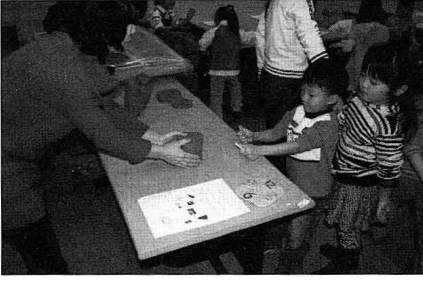
우리들의 친구-곤충 만들기

유치부,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10:30~11:30)과 오후(13:00~14:30)에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곤충의 생태학적 특성이나 외적 특징에 대하여 학습하며, eva를 이용하여 곤충을 그리고 가위로 오린 다음, 입체적으로 만들어 모빌, 팔찌, 목걸이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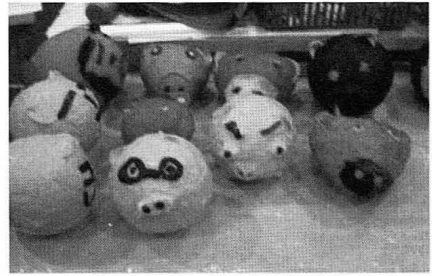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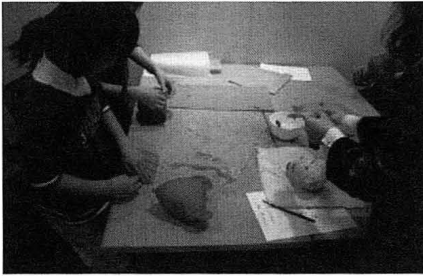
소원성취-숫대 만들기

초등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1: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숫대를 통해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숫대의 유래 및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지역의 나무를 칼과 사포를 이용하여 깎고 다듬어 숫대를 직접 만들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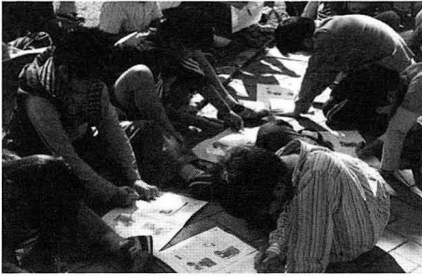
흙으로 빛는 나만의 옹기체험

유치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조상의 멋과 슬기가 담긴 옹기의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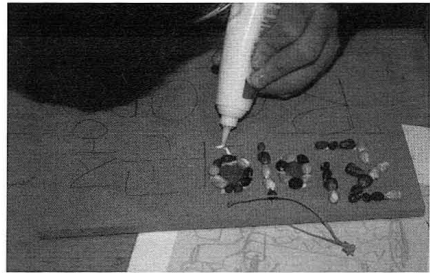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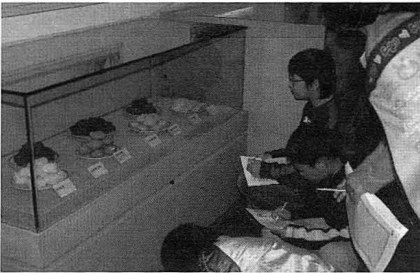
자기 띠 동물 만들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십이간지 공부 및 자기 띠 동물 모양의 저금통을 한지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본다.



숲속 나무액자 만들기

초등1~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1:30)과 오후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우리 고장의 나무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준비해 온 가족사진과 나무를 이용하여 액자를 만들어 생활용품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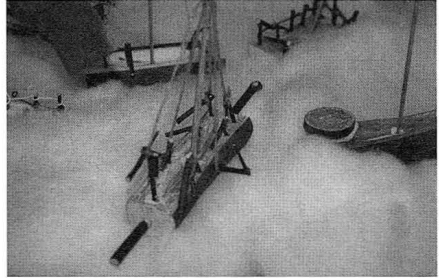
씨앗으로 문패 만들어요!

초등1~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30)과 오후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식물의 성장과정과 식물의 종류에 대하여 학습하고, 씨앗을 이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본다.

2) 장애우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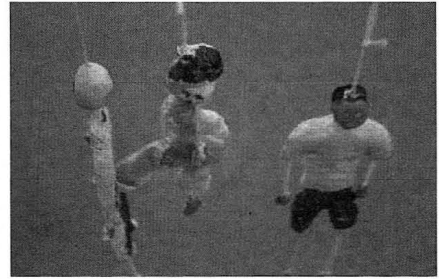
폭신평신편 인형 만들기



나무 돛단 배 만들기



신랑각시 목각인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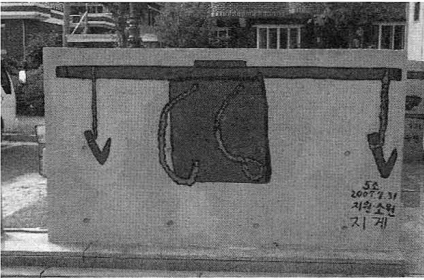


움직이는 모빌 이야기

애향원 정신지체 장애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14:00~15:30)에 진행 되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다양한 입체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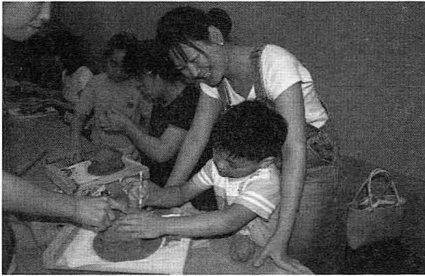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친구 얼굴 만들기, 폭신평신편-인형 만들기, 돛단 배 만들기, 해바라기 액자 만들기, 쭈물쭈물 물고기, 신랑각시-목각인형 만들기, 가을에 나뭇잎은 물든 답니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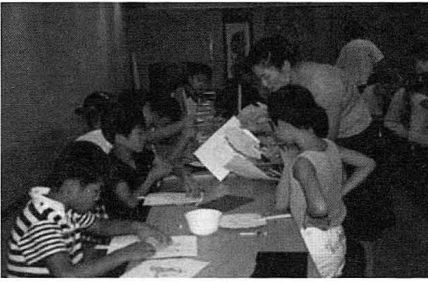
산촌-농기구 벽화 그리기 캠프

초등생 5~6학년을 대상으로 7월31일 (10:00~16:30)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전시실 유물을 관람하고, 산촌의 농기구를 도화지에 그려 박물관 내 야외벽면에 그려 채색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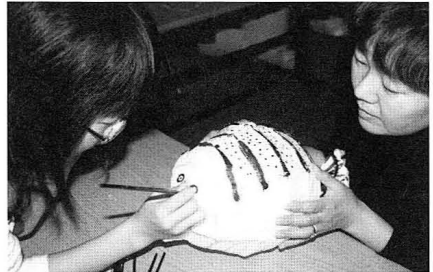
너와집 만들기

초등생과 가족이 함께 8월2일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교육내용은 흙의 유용함과 도자기 만드는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너와집을 직접 만들어 본다.



민화 부채 만들기

초등생과 가족이 함께 8월 31일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교육내용은 민화가 지닌 의미와 민화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여름에 사용 가능한 부채에 민화를 그려 본다.



빙어로 만드는 겨울-등

초등생과 가족이 함께 12월 26일, 27일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교육내용은 우리지역 겨울에 볼 수 있는 민물고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철사와 한지를 이용하여 빙어를 만들어 등으로 활용한다.

2. 교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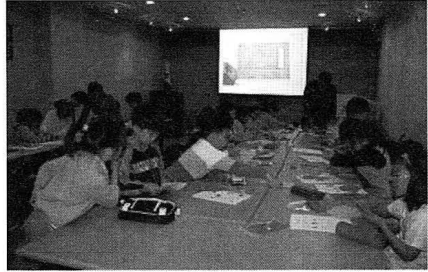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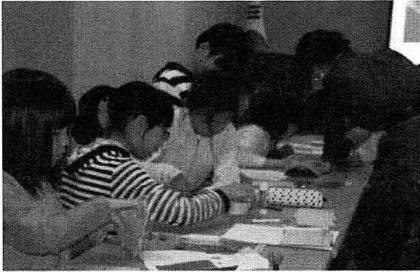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횟수	인원 (명)	교육 강사
주중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의 친구-곤충 만들기	유치부, 초등1~3	2007. 2.13~6.26	28회	803명	최윤
	소원 성취-솜대 만들기	초등4~6	2007. 3.28~6.27	17회	356명	최윤
	흙으로 빛는 나만의 용기체험	유치부	2007. 2.7~3.27	6회	184명	최윤
	자기 띠 동물 만들기	초등4~6	2007. 3.22~5.29	6회	258명	최윤
	숲속 나무 액자 만들기	초등1~6	2007. 9.11~12.11	16회	345명	최윤
	씨앗으로 문패 만들어요!	초등1~6	2007 9.27~11.27	10회	216명	최윤
장애우 교육프로 그램	장애우 문화 예술체험	정신지체6명	2007. 2월~12월	15회	매회6 명	최윤
방학 중 교육프로 그램	산촌-농기구 벽화 그 리기 캠프	초등4~6	2007. 7.31	1회	12명	최윤
	너와집 만들기	초등생포함 가족(2인)	2007. 8.2	1회	40명	윤중 구
	민화 부채 만들기	초등생포함 가족(2인)	2007. 8.31	1회	30명	윤중 학
	빙어로 만드는 겨울-등	초등생포함 가족(2인)	2007. 12.26, 27	2회	50명	최윤

<표1> 2007 박물관 주중교육프로그램현황

Ⅲ. 2008년 주중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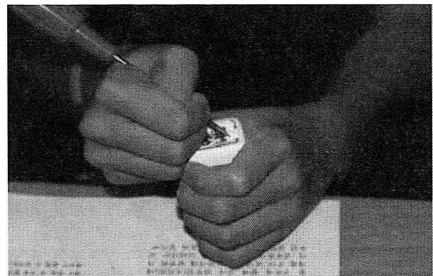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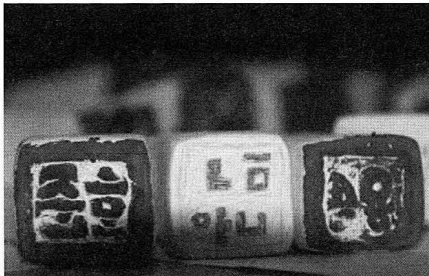
1. 2008교육 내용

1)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



옛 책 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독서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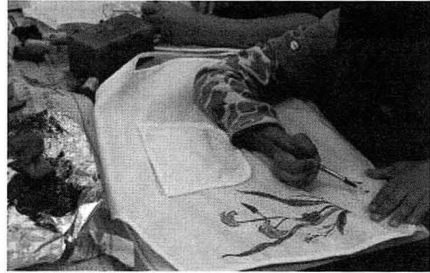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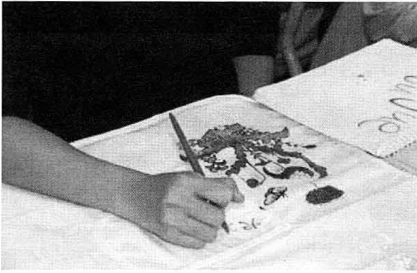
초등1~6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10:00~11:30)과 오후 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우리나라 인쇄의 발달과정 및 옛 책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응용한 독서록을 직접 만들어 본다.



나만의 인장 만들기-도장 “쿵”

초등4~6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10:00~11:30)과 오후 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미술의 다양한 표현기법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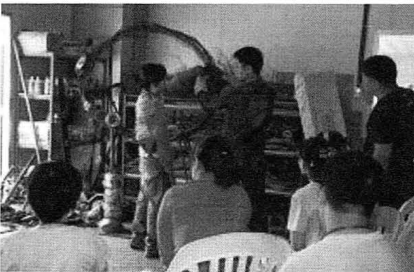
인 양각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흙을 이용하여 자기만의 인장을 만들어 본다.



내게 필요한 학습용 앞치마 만들기

유치부, 초등1~6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화, 수, 목요일(10:00~11:30)과 오후13:00~14: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신사임당이 그린 8폭의 유색병풍을 보면서 초충도의 이해를 돕고, 미리 제작된 앞치마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본다.

2) 장애우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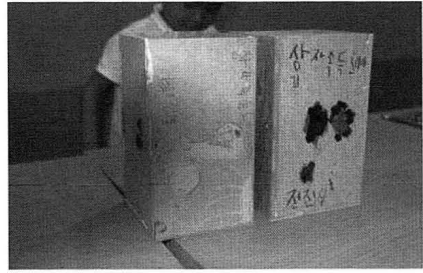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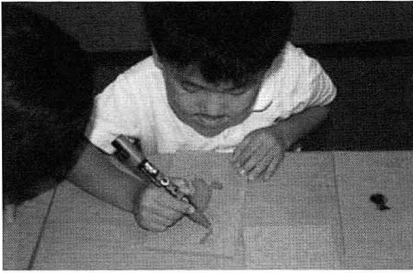


정크아트예술체험

애향원 정신지체 장애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일 오후(14:00~15:30)에 진행 되었다. 교육내용은 버려진 고물이나 철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여 박물관에 설치한다.

3)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상자속 독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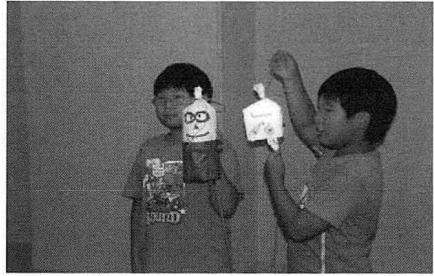
인제남초등학교 병설유치부를 대상으로 7월29일, 30일 오후(13:00~14:30)에 진행 되었다. 교육내용은 독도의 위치, 유래 등을 이야기 하고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독도의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남긴다.



독도, 우리 손으로 지켜요

인제남초등학교 병설유치부를 대상으로 7월31일 오후(13:00~14:30)에 진행 되었다. 교육내용은 독도의 위치, 유래 등을 이야기 하고, 박물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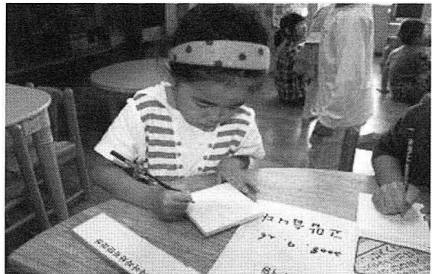
야외 벽면에 독도(동도, 서도)를 그려 손 짚기를 한다.



폐품을 활용한 숲속 여름 -등 이야기

초등생과 가족이 함께 7월 30일, 8월6일 (09:30~12:30)에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환경, 수질, 토양 오염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버려진 폐품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등을 만들어 본다.

4) 한글날 기념 교육프로그램



내가 처음 쓴 우리글 도자기 벽화 만들기

우리글을 처음 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9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각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아이들이 준비된 도판에 한글을 적고, 재별구이를 하여

박물관 야외벽면에 설치한다.

2. 교육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횟수	인원 (명)	교육 강사
주중교육 프로그램	옛 책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독서록 만들기	초등1~6	2008. 4.2~6.25	8회	197명	최윤
	나만의 인장 만들기-도장 "쿡"	초등4~6	2008. 4.3~7.31	7회	193명	최윤
	내게 필요한 학습용 앞치마 만들기	유치부, 초등1~6	2008. 10.27~12.19	12회	380명	최윤
장애우 교육프 로그램	애향원과 함께하는 정크아트 예술체험	정신지체 7명	2008. 3.27~8.13	18회	매회 7명	최윤
방학중 교육프 로그램	독도수호 프로젝트	유치부	2008. 7.29,7.30 7.31	3회	75명	최윤
	폐품을 활용한 숲속 여름-등 이야기	초등생포함 가족(2인)	2008. 7.30,8.6	2회	60명	최윤

〈표2〉2008박물관 주중교육프로그램현황

IV. 박물관 주중교육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와 방안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은 2007년,2008년 9종의 주중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7년은 우리들의 친구-곤충 만들기, 소원성취-솓대 만들기, 자기 띠 동물 만들기, 흙으로 빛는 나만의 용기체험, 숲속 나무액

자 만들기, 씨앗으로 문패 만들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은 옛 책 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독서록 만들기, 나만의 인장 만들기-도장 쿡, 내게 필요한 학습용 앞치마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 한다. 그 외 장애우 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박학 중 프로그램 6종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숲속 나무액자 만들기, 씨앗으로 문패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산촌사람들의 삶을 박물관 야외·실내 전 시설 교육을 통해 이해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창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한명으로는 제대로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타 기관보다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박물관 견학 사전, 사후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견학 전·후 학습이 꼭 필요하다. 견학 전 학습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견학 후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사후 학습으로는 현장학습에서 사용한 활동지를 활용하는 학습이나 박물관 신문 만들기, 견학 감상문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교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박물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네트워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의 예로 미국 'Alexandria'의 지역에 위치한 'The Lyceum'을 포함한 6개의 박물관이 함께 만든 'on-line Museum-School Partnership Project' 가 모범이 되고 있

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은 도시의 Its our town 이라 불리는 온라인 프로젝트는 하나의 박물관 교육 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박물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자료를 다운받고 복사해서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과 그의 방법들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박물관 교육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지역의 다른 박물관과 문화시설, 학교가 보다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이루어 가는 공동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예산의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박물관교육의 전문인력 다원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1명의 에듀케이터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보다 강화되면서 다목적 다차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이 다원화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등이 공동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법령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인력확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문화복지의 중심체로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인력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인턴제도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비장애인들이 놓치기 쉬운 장애인만의 특성을 전문가의 눈과 지식을 통해 파악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대와 관리로 향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전문교육자로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문화원과 함께 냇강민속마을 가꾸기

인제문화원 백 창 현

1. 인제 냇강마을

냇강마을은 인제군 서북쪽의 대암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강 상류에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송학동과 월하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월학리라 하였으며 2003년도에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면서 냇강마을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97농가에 250여명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텃목, 솟가마, 민속문화, 농기구체험 등 농산촌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연간 5천여명이상의 도시 방문객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민속문화마을 가꾸기를 통하여 마을발전은 물론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에게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농상생의 꿈을 실현해 가는 마을이다.

2. 냇강마을 현황

○ 단체 현황

학습단체명	참여인원	활동현황	비고
마을회	250	마을회의, 성황제, 경로행사, 체육행사, 환경정화 등	
노인회	80	삼복천렵, 게이트볼, 치어방류, 환경정화, 민속행사	
청장년회	45	경로행사, 축제, 체험프로그램운영	
생활개선회(부녀회)	35	사물놀이, 행사음식, 학습활동	
냇강사물놀이회	15	사물놀이 계승	
인제뗏목연구회	30	전통문화계승	
테마운영위원회	45	체험활동, 전통문화계승	

○ 주요 공동 시설물 및 문화행사

시설물 명	규 모	활 용	비고
마을회관	30평	마을회의	
노인회관	50평	노인회활동	
냇강체험관	50평	마을행사 및 체험활동	
냇강펜션	90평	방문객 숙박	
게이트볼장	150평	게이트볼 및 실내 체험	
청소년공부방	25평	청소년 공부방	
정월대보름행사	음 1.15	마을안녕제례 및 달집태우기	웃놀이
삼진날 고사	음 3. 3	성황당고사	
단오축제	음 5. 5	단오축제, 그네, 수리취떡	민속놀이
뗏목재현 및 아리랑시연	7월중순	뗏목재현, 뗏목아리랑시연	
삼복놀이	초, 중, 말복	복놀이	
동지팔죽나누기	동지	동지팔죽나누기 행사	

3. 문화원과 함께한 냇강마을

○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2007년 제22회(강원홍천), 2008년 제23회(강원고성)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냇강마을 주민 65명이 숯가마등치기소리 작품으로 참가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제의 산촌문화자원을 계승함은 물론 숯가마를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촌문화의 경험을 하게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 뗏목재현 및 뗏목아리랑 시연

2004년 이후 매년 7월 북한강 냇강변에서 뗏목재현 및 뗏목아리랑시연 행사를 통하여 산촌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뗏목체험, 목도체험, 뗏목아리랑 등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인제의 뗏목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문화원과 함께하는 숲속의 국악캠프 운영

2006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냇강마을체험장에서 여름방학기간내에 1박2일간 뗏목아리랑, 민요 배우기 등 국악캠프를 운영하여 학교 및 학부모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냇강사물놀이회 운영

인제문화원의 농악기지원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냇강사물놀이회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숙시키고 있으며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합강문화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냇강사물놀이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문화원과 함께 넷강민속마을 가꾸기

○ 민속문화행사 지원

민속예술축제, 정월대보름행사, 단오축제, 뗏목재현 및 뗏목아리랑시연 행사를 통하여 인제산촌민속문화의 계승과 넷강민속체험마을의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지원

○ 뗏목아리랑, 솟가마등치기소리 시비 제작 지원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출품작과 체험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민속문화자원의 시비제작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제문화를 영구히 계승토록 하고자 함

○ 민속문화자원 복원 지원

공회당, 성황당, 솟가마, 가리남박, 솟대, 돌담 등 문화자원을 복원하여 볼거리와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민속마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방문객들에게 산촌민속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공간으로 마을을 가꾸고자 함

○ 민속문화 교육체험장 조성지원

산촌 농기구 및 민속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체험장 조성을 통하여 학생 및 체험객들에게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지원

○ 민속문화 연구회 운영지원

사물놀이회, 뗏목연구회, 테마위원회 등 민속문화자원을 계승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회를 육성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속문화와 함께 마을이 지속적으로 가꾸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육성지원

5. 기대효과

○ 마을과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조성과 문화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계승 발전

○ 문화자원을 활용한 산촌마을의 독특하고 농산촌다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와는 차별화된 공간조성으로 도시민에게 문화휴식 장소제공

○ 민속문화자원을 활용한 냇강마을가꾸기를 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냇강마을이 지속적으로 문화와 더불어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이 다양해지고 문화경험을 통하여 마을엔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고 활성화 되는 기회제공

6·25 參戰暫言漢詩

고 이원술 대위

我生父恩國德被(아생부은국덕피)

내가 낳음은 부모님의 은혜와 나라에 덕을 입었으니

我命忠孝溶身報(아명충효용신보)

나의 목숨 충성과 효도에 내 몸을 녹여서라도 갚는다.

忠盡孝堂萬代香(충진효당만대향)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집은 만대의 향이요

忠兒死處爲國事(충아사처위국사)

충성스러운 남아 죽을곳은 나라 위하는 일이다.

故 李源述 大尉

장춘(신경)중학교 재학중 8·15를 맞아 귀국, 고향은 경주 지금의 민속마을 양동이나 학업관계로 건천읍 신평리 (일명 섬들)에 귀향 대구사범학교에 재학중 6·25사변이 발발 학병으로 참전 함경도 회령까지 진격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여 군번없는 학병으로 이름없이 죽는 것보다 군번을 가진 군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간보6기 1951년 2월 24일 소위로 임관, 전방에 진격중 강원도 인제지구 812고지에서 1953년 6. 3일 전사를

하여 서울 국립묘지 제 33묘역 1296호에 안장되어 있음.



(현충 유품전시장에 소장되어있는 『충과효』 한시)

위 사진 속 휘호는 고 이원술 대위가 전사하기 10일전에 쓴 일기장에서 발췌, 현재 동작동 현충 유품전시장에 소장된 글씨로

동생인 이해원씨(72세 울주 서생리 거주)께서 인제지역전투에서 전사하신 형님에 대한 애절은 그리움과 함께 친형의 한시 충과효의 글귀가 백만 군인과 우리에게 효시가 되고 인제문화지에 고인의 글이 실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젊음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忠 勳 詞

이 해 원

조국 수호를 위해
피끓는 전우 18세
전선에 뛰어든 충아
꽃다운 젊은 넋

오랑캐 물리치며
산화하신 용전 정신
낮설은 인제 산하에
잠든 충혼 넋

태극기 총대메고
고지탈환의 함성이
선진조국 초석되어
평화를 이룬 넋

1953년 6월3일 인제지구에서 전사하신
고 이원술 대위 충훈사

우리 독도

이해원

유구한 우리 조국 땅
압록강 두만강 상류
드높은 지표의 선봉
이민족 우리 백두산

고구려 넓은 조국땅
요동 광개토순수비
동해 바다 위 독도
이민족 맥박 정기

무궁화 금수조국땅
백두요동 마라독도
단군이래 지표근원
이민족 우리 독도

地名에 對한 小考

인제군 기린면 현 3리 1반 정 중 암

1. 序論

本人은 平素에 남과 다르게 우리의 글과 말에 對하여 깊은 關心과 行動에 옮기는 데에 主力해 왔습니다.

예컨대 말과 글은 나라의 情神, 民族의 生命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제 나라의 말과 글을 잃게되면 그때부터 민족의 숨결도 멎는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국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時期마다 뜻깊은 많은 이들과 國民들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에 힘써 왔기에 오늘의 現實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체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아름답고, 쉽고, 고유한 우리의 地名에 對하여 考察하게 되었다.

2. 本論

우리의 한글이 世界化 時代에 代表的 文化 商品으로서 1997년 세계기록 유산에 올랐고 現在 「64개국 742개 大學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 안에서선 英語 狂風에 휩싸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 社說(2008. 8. 30) 참조>

초등학교에 英語敎科書가 생기고 外國人 강사들을 투입하느라 경쟁을 하다시피 법적이고 外國語 연수로 數兆 圓의 敎育費가 쓰인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때에 本人은 地名 하나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것을 찾아서 살려 쓰자는 主張이다. 깊은 생각 끝에 알고보니 吏頭式 表現으로 쓰이고 있는 地名이 많은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全國의으로 알려진 곳은 大田 → 한밭, 光州 → 빛고을, 京城 → 서울
江原道 春川 → 봄내, 洪川 → 너브내

隣蹄地方 秋垓 → 갈터, 朝耕 → 아침갈이, 適岩 → 맞바위, 間村 → 셋말,
小재 → 작은고개, 下楸 → 가래울, 竹川 → 대내, 弓村 → 활터, 加入峴 → 더
들입고개, 高水地 → 무너미

위와 같은 곳은 두 가지 地名으로 병행하여 쓰이고 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예는 어느 地方이나 많으리라고 본다.

3. 結論

本人은 뒤에 表記한 地名이 좀더 부드럽고 쉬우며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보아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主張이다.

世界的으로 言語의 多樣性이 強調되는 國際化 時代에 이 主張이 지나칠 정도
로 排他的이거나 외곬일 염려도 없진 않으나 말이 아름다워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아름답고 그 構成社會도 아름다워진다는 信念으로 또 “우리의 것이
第一이다” 라는 主張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4. 提言

- 1) 資料를 考證할 수 있는 元老들이 生存해 계실 때에 더 빨리 찾아 내자.
- 2) 容易한 地名의 使用을 活性化하자.
- 3) 行政單位 地名으로 表記 使用하자.

제2장

아카데미
특강



꿈을 가진 사람은 서로 만난다

- 고도원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어느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어떤 좋은 사람 한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좋은 사람 만나다가 어떤 안 좋은 일로 고약한 한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 집니다. 모든 상황이 다 펼쳐져도 그 한사람 때문에 참 어려워 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에게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날 어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배우자로, 상사로, 부하로 얻게 되면 행운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42.195km」를 혼자 달리려면 힘듭니다. 빨리 지칩니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함께 달려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 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달려주면 덜 지칩니다.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에 좋은 페이스메이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꿈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좋은 향기·좋은 주파수를 내면, 얼굴에 늘 화사한 웃음이 감돌게 되면 그 근처에는 좋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비결은 자기가 먼저 좋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이야기를 하다

가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군요. 우리가 좋은 꿈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군요.’ 이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미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있는 날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흔히 생일을 의미있는 날로 말합니다. 그 날 잔치를 합니다. 그 날 전화한통 해야 할 사람이 전화를 안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생 일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날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 이 말은 여러 가지 종교적·철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는 날을 ‘꿈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한사람이 성공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공의 집을 다 지어 놓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집을 다 지어 놓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그 날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날 보다 의미 있는 날을 그 성공의 집을 맨 처음 밑그림 그릴 날, ‘내가 저 집을 지으리라’ 라고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했던 그 꿈을 맨 처음 가진 날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의미있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와의 만남이 어찌면 다시 태어나는 날, 인생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날, 꿈이 생긴 날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처음 시작 된 날이 2001년 8월1일 입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7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무엇이냐?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제가 평생 책을 읽고 밑줄 그어 놓은 그 밑줄.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많은 독서카드를 가진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밑천은 독서카드입니다. 산더미 처럼 가지고 있는 독서카드를 저 혼자 품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 가운데 아주 좋은 구절 하나를 골라서, 이 구절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 구절을 아침 시작할 때 읽으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꿈이 생겨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짧은 글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통째로 바꿀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가지시라고 제가 읽은 책 속에서 글귀 하나하나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그 밑줄을 그어 놓은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침편지의 백미라고도 합니다. 저의 해석·단상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석(영어로 'comment')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아서 30초에서 1분안에 읽을 수 있도록 이메일 상의 디자인을 상큼하게 해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 몇 사람에게 ‘땡’ 하고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의 비타민 이라고 불렀습니다. 2001년 8월 1일 맨 처음 보낸 마음의 비타민을 제가 오늘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2001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문명사회에 아주 유별난 괴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라는 것이 생겨나서 확산되는 초창기 였습니다.)

희망이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사람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노신의 <고향> 중에서 -

*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읽어서 한 40초 걸립니다. 눈으로는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8월 1일 맨 처음 보낸 고도원의 아침편지였습니다. 괜찮았나요?

이것을 보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날도 역시 제목을 달리해서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친구 몇 사람에게 배달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리 소문없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퍼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복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7년전 제 친구 몇 사람에게 ‘핑’ 하고 보냈던 아침편지가 번지고 퍼져서, 오늘 아침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이 197만 6천명입니다. 전세계 안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더 절절한 마음으로 이 짙막한 아침편지를 기다립니다. ‘블로그’ 라는 것이 생겨났습니

다.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아침편지를 매일 읽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500만명은 된다는 통계를 잡는 분도 계십니다.

퍼 나르는 분도 계십니다. 군부대에 가면 최고지휘관이 전 부하들에게, 어떤 회사 사장이면 전직원에게, 장관이면 전공무원에게 막 퍼 나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1000만명이 아침편지를 읽는다’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숫자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는데 답장을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가장 간단한 답장은 다섯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긴 답장은 소설입니다.(자기 인생역전기를 담은 답장) 이러한 편지들이 어느날 몇 백통, 몇 천통이 옵니다.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누가 뭐라해도, 우리 국민들 가슴 밑 바닥에도도히 흐르는 맑고, 푸른 정서의 강을 매일 엿보고 삽니다.

2001년 8월 1일 아침편지를 시작한 그 때는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대통령 밑에서 제가 연설담당 비서관을 했습니다. 영예로운 자리인데 사람 죽이는 자리입니다. 5년동안 한 자리에서 1급 비서관으로 일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뱃속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5년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단 3일간을 정식휴가로 보냈습니다. 여한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간에 제가 완전히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을까요? 손하고, 눈하고, 머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를 누르면 땀땀하고 소화 안되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겁고,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잠들어서 비몽사몽하면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식은땀을 많이 흘려 이불이 축축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 시작한 것이 마라톤입니다. 제가 ‘청마동’ 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청와대 마라톤 동우회’ 가 청마동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어서 70명 만들어 토요일마다 달렸습니다. 이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또하나 살린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어느날 머리가 ‘핑’ 터질 것 같았는데, ‘핑’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 준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무거운 것입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사적인 것입니다. 편지이고 글이 아닙니다. 제 삶의 편견들입니다. 눈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의 인생역전을 가지고 돌아보면 사람들은 ‘아 저분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저런 집을 지어 놓고 사는 것은 행운이거나 우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의 입장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필연의 씨앗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우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우연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연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꿈도 못 꿔고 보리쌀 한가마니, 조금 형편이 나으면 쌀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3남 4녀를 두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콩보리밥을 먹으면서 밥먹을 때마다 형제와 싸운 기억 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전투력은 밥먹을 때마다 형제와 싸운 전투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지천명(5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 이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 이삭 줍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을철 되면 주인들이 고구마를 캐 가는데, 그 후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고구마 밭을 가셨습니다. 명색이 목사님 사모님인지라 사람들이 볼까 큰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가셨습니다. 넓은 고구마 밭의 맨 모서리에 그 작은 허리를 동그랗게 말고 쭈그려 앉습니다. 맨땅을 팝니다. 한참을 파다보면

깨진 고구마가 나옵니다. 주인들이 걷어가지 못한 것들입니다. 반나절, 한나절 고구마를 캐으면 그것을 깎두기 보다 크게 썩니다. 그래서 삶습니다. 그것을 새까만 보리밥에 넣고 섞습니다. 그러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뽕튀기처럼 3~4그릇 나올 밥이 10~15그릇 나올 밥으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구마 밥 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고구마 밥을 날마다 먹어서 그랬는지, 30대가 될 때까지 고구마만 보면 목에 신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구마입니다. 최고의 웰빙식품 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간혹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부부싸움은 자주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책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밖에 나가셨다 들어오시면 옆구리에 항상 책을 끼고 들어오셨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을 때까지만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는 “또 책을 사셨어요?”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행복한 표정은 사라지고 거룩한 목사님의 얼굴이 아니고 겸연쩍고 비굴한 중년 아저씨의 표정으로 바뀌면서 대꾸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찌자는 거요. 목사가 책이라도 읽어야 설교 준비를 하잖소.” 이 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돌리면서 “내가 한달 동안 고구마 이삭을 주워 봤자 당신 책 한권 값도 안된다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혹 저에게 “너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돈만 주면 읍내에 나가서 책만 사가지고 오니 이를 어찌니.” 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책을 볼 때마다 울분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에게 책이 필요한지는 알았지만, 형편이 궁색해서 아버지가 책을 사가지고 오시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뒤돌아서면 회개하고 참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년전에 돌아가셨습니

다.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저에게 엄청난 양의 책을 물려 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책은 책이 아닙니다. 특히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은 책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친께서 평생 피리를 부시고, 남기고 간 그 피리는 그냥 피리입니까? 그분의 영혼입니다. 그분의 눈물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겸연쩍음이고, 그분의 비굴함이고, 그분의 부부싸움의 결산입니다. 피리 하나가.

그 가난한 목사가 당대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서를 잘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책을 끌고 다니면서 저도 제 아내와 여러번 다투었습니다. 제 아내는 “책에서 돈이 나와요. 처분 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것을 끌고 다니다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절망의 시간이 옵니다. 좌절의 순간도 오고, 실패의 순간도 옵니다. 바로 그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밑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그어 놓은 밑줄입니다. 그 밑줄을 읽는 순간 전율이 왔습니다. 전선에 감전된 듯 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심코 그어 놓은 밑줄에서 살아있는 숨결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천상에서 아들을 향해 튕겨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8월 1일 맨 처음 보낸 노신의 고향 중에서 뽑은 ‘희망이란’ 구절입니다. 이 책은 요즘 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 책은 아버님 시대의 책입니다. ‘어떤 걸로 맨 처음 시작할까’ 하다가 저를 주저앉힌 아버님의 밑줄 그어 놓은 이 글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도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젊은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 절망하고 있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절망하지 말아.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무엇인지 아느냐?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거야.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제 인생의 최고 모토가 된 이 글귀는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 아버님은 지금 시대의 인터넷, 이메일등은 꿈도 못 꾸시고 가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목회자에게 최고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독서하고 남겨놓은 밑줄 하나가 아들대에 이르러서 인터넷, 이메일 세상을 맞게 하고, 어느날 그 아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꿈이 사라졌을 때 그 책을 펼쳐보게 하고, 이제는 200만명의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우연이 아닌 필연의 씨앗 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필연의 씨앗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밭떼기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필연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가 필연의 씨앗입니다.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은 아들에게 엄청난 필연의 씨앗입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엄청난 필연의 씨앗입니다. 지나가다 귤가에 들린 어머니의 기도 소리, 우리 아들·딸을 위해서 하는 그 음성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생 지워질 수 없는 불덩이로 꿈의 씨앗이 돼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언젠가 그것이 무엇과 섬광처럼 부딪혔을때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필연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매일 이것을 재료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자, 이 구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 글을 사용하세요.’ 라고 매일 보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나’ 라는 것을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 하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봉착된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봉사적인 일,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관된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은 늘 부딪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매일 아침편지 쓰는 것 쉬운 거 아닙니

다. 그런데 왜 할까요?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답은 여러분들의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따금씩 TV에 나갑니다. 아나운서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꿈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 별명이 꿈박사입니다. 저는 꿈에 대해서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7년의 아침편지를 쓰는 기간은 무수하게 많은 꿈을 이루워 가는, 기적적인 행보를 걸어온 걸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8월 1일 전에는 없었던 꿈이 막 생겨났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꿈 이야기 12가지를 썼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특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인격적인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고 미쳤다’ 라고 생각했던 그 꿈 이야기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적어 놓으십시오! 적지 않은 꿈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꿈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나의 꿈을 말하면,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 놓으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 이야기 12가지 중에서 11번째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에는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다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물 날지 모릅니다.

〈꿈 이야기 11〉

제가 꾸는 꿈의 종합편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어느 깊은 산속에 세계적인 명상 센터를 만드는 것, 그 명상센터의 이름이 바로 ‘깊은 산속 옹달샘’ 입니다. 휴식+운동+명상+마음 수련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고, 여기에 각종 문화 이벤트가 때때로 더해지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는 환상적인 마음 치료 센터 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 어느 곳에서 출발 하더라도 2~3시간안에 당도할 수 있는 ‘깊은 산속’ 에 들어와 편안한 옷차림으로 휴식하며, 명상하고, 꽃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심는 것이 아니라 조경학자가 그린 디자인에 따라 심습니다.(5년,10년 후에는 아름다운 꽃밭과 수목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휴식+운동+명상+마음 수련의 코스를 밟고, 새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틱낫한의 플럼 빌리지, 인도의 오르빌 마을, 니어링 부부가 만든 미국의 ‘굿 라이프 센터(GOOD LIFE CENTER)에 디즈니랜드를 결합한 꿈의 동산. 건강한 육체와 맑은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 내면을 깊이 채우는 명상을 할 수 있고 며칠 머물고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가능한 그런 맑은 공간을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 어느 곳에, 그리고 도심의 어느 한 켠에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꿈입니다.

이 글을 보내 놓고 황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내 놓고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제가 60만평의 땅을 밟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60만평의 땅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원시림으로 남아 있다가 저를 만나서, 지금 명상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로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한게 아니라 꿈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이루

어 지는데 첫번째 조건은 꿈을 말해야 합니다. 적어놔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좋은 꿈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꿈일까요? 좋은 꿈은 한사람의 꿈이 한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열사람의 꿈·백사람의 꿈·천사람의 꿈·만사람의 꿈으로 자라나는 것이 좋은 꿈입니다. 한사람의 꿈이 한사람에게 머무르면서 자라나는 것은 히틀러의 꿈입니다.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6백만, 7백만명의 사람들 목숨을 빼앗아간 꿈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꿈이냐 하면, 제가 근래에 낸 책 제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너머꿈’ 이 좋은 꿈입니다. 꿈너머 꿈은 우리 한글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국어사전에 넣는 운동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발견한, 재창조한 글이기도 합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저 단어, 저 꿈이 생겨났냐면 여러분, 한글사전에서 꿈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세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번째 뜻이 잠자다가 꾸는 꿈을 꿈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뜻이 헛된 망상입니다. 세번째 뜻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꿈입니다.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이상·희망’ 을 꿈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이상·희망을 영어로 ‘vision’이라고 합니다. ‘vision’ 이 무엇입니까? ‘vision’은 영상·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vision’ 그 영상은 자기가 걸어온, 경험한 세계의 것을 그려내는 것은 vision이 아닙니다. 그것은 history(역사)입니다. 자기가 가지 않은,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려내는 것이 vision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산을 건너지 않았는데 강건너·산너머 마을 골목까지를 그림처럼 그려내는 것이 vision입니다. 이 vision을 우리말로 옮길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비전이라고 사용합니다. 거의 우리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비전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이 ‘꿈너머꿈’입니다. 이 ‘꿈너머꿈’ 이라는 말은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전에 약 500명 정도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특강을 하게 되었

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꿈이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저는 과학자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학생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꿈이 두가지인데 교수가 되는 것과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교수와 작가가 되면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 여학생도 그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학생은 머리를 긁적이며서 “저는 빌게이츠처럼 한 킨 대박 터트려서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되어서 무엇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은 또다시 머리를 긁적이며 “저 혼자 편하게 잘먹고 살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우스게 소리로 나왔던 대답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안에서 불덩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날 웅변을 했습니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날 했던 웅변을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3명의 학생들에게는 좋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 꿈에 세 학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 학생에게는, 그리고 수제들이 모여 있다는 카이스트 대학의 많은 500명 학생들에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너머꿈’ 이 없습니다.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책상

머리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노력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너머꿈’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들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꿈너머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 혜택은 그 나라의 먼 미래까지, 후세들까지 좋은 유산으로 물려질 것입니다. 손전등을 가지는 것을 꿈 꾀 사람이라면 손전등을 갖는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앞길만 비추고 가는 것은 자기 행복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왕에 가는 것, 그 손전등으로 옆사람, 뒷사람 함께 비춰져야 합니다. 꿈이 자기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관된 쪽으로 옆걸음한걸음 내딛는 순간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너머꿈’ 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있는 꿈 붓다리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 꿈 위에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까지를 생각하신다면 그 꿈은 직행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로 직행하는 사람은 만원밖에 없지만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길때 100원이라도 베푸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꿈너머꿈’ 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돌아 나가는 길을 압니다.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의대에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왜 일까요? 꿈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꿈 붓다리 열어서 꿈 위에 ‘꿈너머꿈’ 을 그려 넣으십시오. 특히 젊은이 가운데 몇 사람은 20-30년 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궁궐을 완성해서 “여러분, 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서게 된 것은 2008년 11월 12일 날 인제에 고도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꿈을 가진 사람은 서로 만난다’

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그 때 밑그림 그려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법

- 박동규 문학평론가 -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박동규 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할 것은 문학이 아니고 삶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평생 전공이 문학인데, 문학의 특징은 삶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때 시나 소설 한편쯤은 배워 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배웠는지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배웠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엉성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도 아직도 배우고, 여러분 후배들도 아직도 배우는데 ‘그걸 왜 가르칩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정확한 대답은 ‘삶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다 상상이라는 창조적 영향을 섞어서 그 창조적 영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을 구분해서 분해해 보는 몇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쳐다보게 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고 사세요?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울을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아침에 나올때 마다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것을 하고 돌아다니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남편들도 다 그러고 살죠? ‘왜 그렇게 살까요?’ 라고 물으면

딱 한가지입니다. ‘나와 내가족 잘 살아 보려고 그러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가족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홀리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편 마음도 몰라, 아이들 마음도 몰라, 부모들 마음도 몰라, 그냥 사는것 허투루 살아서 월급 몇푼 가져다 주면 그것 가지고 밥먹고 지내는 것이 산다고 생각하면 안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첫아들이 돌 지내서 얼마 안되었을때 여름을 맞이해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생들이 부산위에 일광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해수욕장에서 3박4일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동창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님께 알리고 약속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아 이왕 가려거든 미리 약속장소 근처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댁에 좀 들려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날짜 몇일 전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댁에 갔습니다. 할머니댁에 도착해서 몇 일 잘 지내다 떠나가는 날(친구들과 약속한 날) 아침에 붓다리를 싸면서 “할머니 잘 쉬다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가 있는 곳을 보니까 80대 되신 우리 할머니가 머리는 빗어서 뒤로 넘겨 비녀를 꽂고, 하얀 모시저고리에 모시치마를 입고, 하얀 광목으로 된 붓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있으면서 “이놈아, 나도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우리 동창들이 마누라하고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노는 자리에요. 할머니 불편해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다음에 다시 와서 할머니 모시고 바다구경 시켜 드릴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내 바지가락을 붙들고 “안된다, 내가 꼭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된다, 안된다 20~30분 소리 지르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광경을 아내가 보다가 내 허대를 잡아 끌고 마당 구석에 데려 가더

니 “여보, 80되신 할머니가 손자 따라서 바다구경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셨는데 당신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생각해봐. 할머니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돈좀 아껴써서 방한칸 빌려 드리고 먹을것 챙겨드리면 할머니는 바다에 나가서 모래찜질도 하고 들어오실거야.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모시고 갑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말 같아 어쩔 수 없이 나는 싫었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광역에 도착해서 약속한 장소인 민박집에 도착 했더니,우 리가 제일 일찍 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붓다리를 놓고 점심때가 돼서 밖에 나가, 차양치고 밑에는 비닐로 깔려진 곳을 돈 주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곳 까지 하얀 광목으로 된 붓다리를 들고 따라 오셨습니다. “붓다리는 놓고 오지 왜 들고 왔어요” 라고 저는 잔소리를 퍼 부었습니다.할머니께서는 나를 보며 웃으면서 “야,이놈아 나 좀 나갔다 올게” 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잠시후에 차양친데서 앉아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있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한 아름씩 주워다가 모래언덕에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니는 모래사장에 있는 햇볕에 바짝 달궜진 돌맹이를 주워서 나뭇가지를 모아 둔 모래언덕에 땀을 흘리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즈음에 나는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사이다도 먹고, 반가움에 한참 동안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뒤돌아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모래언덕에 앉아서 돌맹이를 가지고 아궁이를 만들어 거기에 나무를 때어서 해수욕장 한가운데 연기가 한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래서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올까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하는데 할머니가 땀을 닦으면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오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시더니 하얀 붓다리를 풀어 제쳐 내가 보니까 다 찌그러진 냄비가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 보니 수제비 반죽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물 속에 들어 갔다 나오면 배고프다. 내가 이

거 해 주려고 왔다”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니 다시 연기가 가득한 쪽으로 가서서 수제비를 끓여 가지고 돌아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땀별에 앉아서 해질 무렵까지 수제비 만드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수제비를 다 먹고 난 후 할머니께서는 붓다리에 냄비를 넣고 “야, 나 이제 집에 갈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광역에 할머니를 모시고 집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사주고 기차가 오기 전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말하였더니 “괜찮아, 내가 만약 수제비 해주러 온다 했으면 더 오지 못하게 했겠지” 라고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저는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인간다움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내 삶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재테크하는 것과는 달라서, 버는 것 하고 쓰는 것 하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양식이 있어야 돈을 벌어서 거기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양식을 내가 준비를 안하고 사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이지만 인간이 될 되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초대 되었을까요? 껍데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이 있어야 그 껍데기 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든데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이러한 성숙된 인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힘이 없이 살아가시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문화는 삶의 꽃입니다. 우리들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해 보니까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과 사회에서 강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일주일 후에 학생들이 4~10개 물을 것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사회

에서 강의를 하면 열가지를 가르쳐 주면 강의를 듣고 문앞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된다’ 생각해서 오늘 강의는 칠판에 자세히 적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글자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의 제일 첫번째 과제는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생각), 산다는 것에 대한 정서(느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생각’ 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부부’ 는 어떤 것을 부부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부부’ 라고 해야 산다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부부로 평생 살아도 어떤 것을 합니까? 옛날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부’ 라고 살면서 일심동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부부는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부모도 다르고 교육도 달리 받고 남녀 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만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끈을 통해서 같이 하나의 삶을 살아보자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하고 서로 ‘당신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내는 집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살면 둘이 같이 살긴해도 서로 다른 방향 내가 바라보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서, 세상 살기 힘들어서 늦게 오는가 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시간에 안 들어온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또, 남편은 죽어라 고생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 마누라는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아 신경질을 부립니다. ‘서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물어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봅시다’ 해야 될텐데 여러분 가정안에서 ‘이렇게 살아 봅시다’ 라고 이야기 해본 것이 몇 번 입니까? 그 말이 사라지면 하나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제일 처음 산다는 생각에서부터 제일 무서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애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들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갖다 주면 끝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다’ 라고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알고 있겠지만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50년대 소설 중에 하근찬 작가가 쓴 수난시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때 산골짜기에 논·밭도 없는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도우며 살았는데, 일제시대라 징용에 끌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폭격을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남의 집 논·밭일을 도와주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하나가 있는데 장성해서 자기 집을 일으켜 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질 무렵 6.25사변이 일어나 아들은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3~4년 제대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들한테 제대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제대한다는 날에 역에 나가면서 장터에 들러 새끼줄에 매달린 간고등어를 사게 되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한 손에 간고등어를 든 채 아들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기차가 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대복을 입고, 제대모를 쓴 늙은 한 모습의 아들이 기차에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구,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들이 있는 쪽으로 향하는데 기차가 역을 떠나

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입고 있던 바짓가량이 한 쪽이 깃발처럼 펄럭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일선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발 하나를 잃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둘이 만나 서로 아무말도 못하고 집에 가던중에 통나무로 된 외나무다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야, 이놈아! 너는 팔이 두개니까 간고등어를 들어. 나는 발이 두개니까

널 업을게”라고 말하였습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니 발이 되고, 니가 내 팔이 되면 한세상 잘 못살겠나?” 이러한 것이 생각입니다. 단순히 부자시간이라는 것은 핏줄로 만들어진 동물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팔이 되고, 발이 된다는 생각을 입혀서 산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 어떤 것이고’ 라는 생각을 해 볼때 비로소 산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것 아닙니까? 이것의 핵심은, 제일 무서운 것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한번도 행복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해 한달만에 견디다 못 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어머니가 쓰시던 유품들을 침대위에 올려놓고 하얀 시트로 덮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시트를 열어 보니까 제일 처음 눈에 보인 것이 성경책이고, 그 옆에 어머니가 입으시던 속옷들 3~4벌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속옷들은 모두 걸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걸레 같은 속옷을 입고 사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을 보니까 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던 핸드백을 보았습

니다. 핸드백을 열고 손을 넣어 보았는데 립스틱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몇년 전에 미국에 강의하러 갔을때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남아 면세점에 들러 하나 사다드린 그 립스틱 이었습니다. 이 립스틱을 ‘어머니가 아직도 가지고 계셨나’ 라고 생각하며 립스틱을 잡으니까 뚜껑이 망가져 속 빠졌습니다. 3분의2는 사용하시고, 3분의1은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립스틱을 보니까, 울컥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여자로 태어나서 립스틱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바르시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럽고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울어보니까 비로소 우리 엄마라는 한 여성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간 생애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평소에 나는 엄마 생애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매일 붙어서 사니까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불쌍하게 살고 간 우리 엄마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면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나와 엄마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니가 “속옷이나 립스틱 좀 사줘라” 했다면 저는 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분해서 시트를 붙잡고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살고 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학문보다도 12살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도 어머니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날 몇일을 울다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고통도, 서러움도, 부끄러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고통스럽고, 서럽고, 부끄러운지 생각을 해봐야 하

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게 서러우면 안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쳐다 보는게 기쁘고, 우리 자라는게 즐겁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데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요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동안 제일 먼저 이 행복의 요건에 무엇이 기쁘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참기쁨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인가’ ‘우리 가족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자신이 무엇에 기뻐하고 거기에 돈을 뿌리고 살아 가는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할 때 서양 아이들 34명이 내 강의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강의 준비한 내용이 적어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봐왔던 제일 좋은 것들중에 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적어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A4용지 한장씩을 모든 아이들이 다 써서 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가서 34명이 쓴 것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놀래고 말했습니다. 34명이 제일 첫번째로 꼽은 이야기가 모두 ‘유머’ 였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우리집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어떻게 기쁨인가’ 왜 값어치 없는 꽃 한송이를 자기 부인한테 주겠습니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주지, 왜 꽃으로 사왔냐’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때 기쁨을 몰라서 우리 어머니 가슴을 찢어지게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때 부터 대학졸업 할 때까지 학교에서 2000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한번도 거짓말 해서 덧붙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덧붙여 먹으신 분들 있죠? (웃음) 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2000원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못 알아 들으셨

습니다. 그러면서 “야, 1000원 가지고 학교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들지 못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안갔습니다. 저는 개근상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린날에는 내 진정함을 어머니가 몰라준다는 것이 원망스러웠고 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는 그런 것도 못하는 집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더 안갔습니다. 어느날은 어머니가 “내일 아버지가 돈 가지고 오시니까 학교가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런데도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슴에 못질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제 밑에 10년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성격이 워낙 좋았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이 남동생은 학교에서 1000원 가지고 오라 하면 거짓말을 시켜서 2000원, 3000원을 타 가곤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야, 1000원 가지고 가라” 하시면 이 남동생은 저와는 달리 연극 배우처럼 “아! 어머니를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1000원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돌이켜 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효자입니까? 제 동생이 효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집에서는 돈 몇 1000원이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없어서 못주는 집이지,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는 집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동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가 옳은 이야기라도 기쁨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내 주장을 하는 건데, 남편하고 나 사이도 내 옳은 것만 생각하면서 덤벼 들어서 기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 삶 속에서는 이런 기쁨이란 것이 코팅이 돼서 살아가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새, 연예인이 죽었는데 네티즌들이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에서 욕설이 표현의 자유라 하는데 욕이 자유지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욕설도 표현의 자유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주도 자유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까? 저는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자기말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욕이나 저주의 말로 남을 죽이는 나라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즐거움도 모르면 환장하게 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해변 시인학교를 15년 했습니다. 해변 시인학교를 왜 했을까요? 해변가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시인들과 독자들 300명이 모여 운동장에서 밥을 해 먹고 초등학교 교실 바닥을 초를 칠해가며 닦았던 것은 그때(초등학교시절)내 순진했던 것과 이것 만큼(현재) 컸던 것에 대한 나의 반성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사람다웠는데, 내가 커가면서 얼마나 달라졌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 내는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무엇이 제일 즐거운지 모릅니다. 술먹는 것이 즐거우면 하루종일 술만 먹는 것입니다. 무엇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식구들과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는 새벽 5시30분까지 밥상 앞에 둘러 앉아야 했습니다. 한명이라도 밥상에 없으면 큰 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자식들 머리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볼도 만지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때 “엄마, 매일 아침 밥상에 둘러 앉혀 놓고 우리들 주물르고 밥먹자 하는데 따로 밥먹으면 안될까” 라고 어머니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니 “이놈아, 아버지와 우리들이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니냐. 니 아버지는 너희들 만지면서 이게 내 새끼들이라 그리고 이게 사는 즐거움이야. 너희들은 형제끼리 밥 먹는 이 즐거운 시간을 언제 가질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홀로 식탁에 앉아 아직도 ‘누가 내 머리 만져주는 사람 없나’ 하고 기다립니다. 이 산다는 것은 즐거움에 대한 자각이 있을때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 대학에 있을때 주말에 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공원에 가서 홀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 공원이나, 캐나다 공원은 한국 공원과 다릅니다. 그 나라 공원은 구석구석 고기 구워먹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용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먹고 나서 집에 갈 때가 되면 사람들은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원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이틀도 못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원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무엇이 즐겁습니까? 해본 것이 있어야지 즐겁죠? 내가 즐거움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게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지간에 보람이 같아야 살죠? 자식과 나 사이도 아버지 고생이 내 보람으로 느껴져야 살죠? 가족끼리 보람의 한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가족이죠? 진짜 그런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고생해서 돈 벌어서 오는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마누라는 밥차려 오라하면 밥차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고맙다 생각하는 것이 보람입니다. 이 생각을 안하니깐 “여보 얼마나 고생해” 이런 말도 안하고 “아버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말도 안합니다. 이러고 사니까 무슨 재미로 사는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나이가 40인데 아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학비 만들다 내 인생 다 지나간 것입니다.아들은 지금 샌프란시

스코에 있습니다. 4년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문학회의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덕길로 올라 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길에서 핸드폰을 팔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놀라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서 아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당황할까’ 그래서 저는 뒤로 돌아서서 못 본 것으로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영영 울었습니다. 많이 서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회의가 있어서 또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처가 있어서 전화로 아들에게 미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내내 나를 따라 다녔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같은 것은 소개도 안해주고, 볼때마다 “건강하셔야 되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안에서 왜 아들이 ‘건강하셔야 되요’ 라는 말만 계속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지가 학위따서 취업해 아버지 모실 날이 없어질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 고생을 보람으로 느끼는 철든 자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어깨가 휘어져도 그런 가족과 함께 사는 보람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 그 말 한마디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적 요건을 생활속에 도입을 하셨음 합니다. 마음만 있는게 아니라 이게 삶의 생각속으로, 산다는 것에 영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도 하는 것이고, 회갑년을 하는 것이고, 결혼 기념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제 같은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의 정서들이 ‘올해 가을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즐거움을 가지자’ 라고 형성되어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안불러도 오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없으니까 모이라 하면 억지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군의 사는 즐거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만 있으면 안되죠? 삶에서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늙어서 개, 돼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혀 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망' 입니다. '전망' 이란 말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랑 나하고 여행 같은 거 안가보고 싶습니까? 그게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개, 돼지 여행 가는 것 보았습니까? 사람이니까 여행 가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 이란 소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개, 돼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습니다. 새끼가 어미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삽니다. 내 새끼가 나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은 것을 택해 삶을 변화 시키는 것은 인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앞두고 '문화' 라는 말에 대하여 원형을 해독 하셔야 됩니다. 'culture(문화)' 라는 말은 원형이 'cultura'입니다. 'cultura'는 cultivate(경작하다)로서 경작하다가 문화의 제일 기본 뜻입니다. 백두산, 설악산, 오대산등은 천년이 흘러도 자연입니다. 그 산자락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할 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사시대 유물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닌 돌맹이인데 그것을 신문에 크게 보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딱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 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박인환 시인 이름을 거론 할까요? 그것이 우리들 삶의 지평을 넓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밟고 우리가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 나은 것에 대한 목표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은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나은 것을 안보고 삽니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달에 돈 만원이라도 뿌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봅니다.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안봅니다.

제가 ‘아침마당’ 방송에 나간 것이 작년까지 10년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해서 고아들이 부모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수라는 사람은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줌마들 틈에 끼어서 울기나 하고 왜 그러고 돌아 다니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왜 방송에 출연 했을까요? 저는 배우러 갔습니다. 10년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생활 40년 동안 문학을 가르쳤기에 훌륭한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학생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수 없는 작품들을 보면서 글자의 밑에 깔려진 세상 현실에 던져져있는 사람의 실직한 목소리를 제가 들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가 ‘원망하지 않아요’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중에는 ‘우리 부모가 좀 더 잘살았으면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푸십시오. 없어서 못 주지, 있는데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가슴에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푸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 교수로 가 있을 때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들아, 보고싶어 글을 쓴다. 젊은 날 유학 보내 달라 했을 때 못 보내줬더니 너가 이제야 서양 대학교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얼마나 엄마는 기쁜지 모른다. 먼저 가신 아버지도 너를 칭찬 할 꺼야. 마음에 박힌 못이 하나 빠졌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유학 보내달라’ 는 철없는 말 한마디가 어머니 가슴에 못이 된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PD한테 ‘저 사람들이 왜 부담 가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섯사람이 부모를 찾으러 나오면 한·두명만 찾고 나머지 3명은 못 찾

는데, 방송 끝나면 그 부모를 못 찾았던 세번째 앓아 있던 사람이 잘 삽니까 라고 전화가 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서(유산 상속문제등) 부모들이 안 찾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기쁜 것입니다. 안보이니까 아나!

마지막 세 번째가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입니다. 저는 그 말 뜻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엄마라고 부르고 산 사람, 엄마라고 못 부르고 산 사람, 그건 왜 그럴까요? 죽는 날까지 내편만 들고, 없어서 못줘서 환장하고, 날 잘되지만 비는 사람 있으면 찾아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는 엄마라고 부르고 삽니다. ‘나는 그렇게 못살았다’ 그렇게 못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온 것을 쳐다보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온 것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전망은,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돈을 모아서 까먹는 것에 전망을 넣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망은 돈을 가져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어서 돈을 모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돈에 매달린 삶을 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변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배하는 것을 ‘전망의 지향성’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향성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해보면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한테 “돈 만원 가지고 데이트 해봐. 시내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집에 갈 때 버스비도 안남지?”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어느 동네 커피점에 들어갔더니 독하게도 커피 한잔에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주고 배가 아파서 2주동안 욕하고 다녔습니다. 돈

만원을 달마다 오랫동안 저금해서 10주년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나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 그동안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안아 주는 것,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돈 만원도 없어서 그런 꿈도 못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런 꿈이 없어서 돈 만원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향성입니다. 돈을 모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가지나 해 보셨습니까? 만원이 없어서 안하셨습니까? 이런것들을 많이 가질 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복의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망은 남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처럼 살아보자’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시’ 는 남하고 똑같이 쓰면 안되지요? 내 얘기를 써야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쓴 것을 그대로 베껴 쓰면 모방입니다. 천만명이 있어도 다 다르게 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가르켜서 이 자리에 앉혀 놓은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 밖에 모릅니다. 남들이 낸 등록금과 내가 낸 등록금은 돈의 액수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옷도 똑같은 것 안입고 사는 시대입니다. 생명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길 바닥에 침 뱉지 말라’ 해서 안 뱉는 타율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까워서 안 뱉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여라 하면 우루루 뛰어 가고, 이리로 와라 하면 가고 바보입니까? 내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쁘다’ 하는 사람이 이쁘게 아니라 내가 ‘이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이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해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당신은 이런 사람, 우리집은 이런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다’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내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화 그림 한 장을 집에 걸어도 ‘이건 얼마짜리 그림이다’ 라고 유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집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이런 자연의 순리적인 순응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어두고 삽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집을 만드셔야 여러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인제군은 강릉시와 다릅니다. 인제군만의 생명에 뿌리를 찾아서 인제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제문화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 에 우리들의 삶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산소에 가 묻어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당에 아궁이를 해 놓고 아버지 양말, 속옷등을 태우셨습니다. 제가 그 때 까지만 해도 공부만 했지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겨울내복 6벌 농안에 있는데 너가 꺼내서 태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농안에서 내복들을 꺼내서 아궁이에 던져 놓으려다 보니까 6벌 모두 오른쪽 팔꿈치만 닳아서 형겁으로 덧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버지가 시를 쓰셔서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시 쓰는 것은 돈이 안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글쓰는 재주 밖에 없었기에 수필집을 쓰셨습니다. 수필집 한권 만드는데 200자 원고지 1500장이 듭니다. 매일 밤·낮을 만년필로 글을 쓰셔서 내복의 오른쪽 팔꿈치 쪽이 구멍이 나서 형겁으로 덧댄 것이었습니다. 그 수필집이 13권입니다. 내 등록금, 우리 아버지 떨어진 팔꿈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는 떨어진 팔꿈치 밑에서 자란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끼들 앞에 두 팔이 떨어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새끼들 앞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가는것이 우리집의 삶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제가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것 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전망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을 이야기 했는데 꼭 마음속에 새겨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장

인제의

전설



인제군 전설

傳説은 事實의 傳承 또는 事實이라고 믿는 이야기가 오랜 옛날부터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傳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處所 年代 人類에 固定되어 있는 것이다.

傳説이라고 하는 그 特質의 하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事實이고 眞實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리고 또 傳説은 歷史의事實 및 人物에 뿌리를 박고 있으나 이른바 歷史는 아니다. 傳説은 그 이야기 하는바 個個의 事實이 歷史의 事件에서 보다도 더 오래고 또 그것이 차츰 다음의 새로운 事實이 結合하여 가는 것이니 여기서 歷史와 傳説과의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民族 사이에 傳承되어 오는 傳説은 어떠한 內容의 傳説들이 있으며 大體로 몇 種類나 되는가 그것을 가장 穩當하다고 할 수 있는 題目的分類로 나누어 보면 岩石傳説을 비롯하여 溫泉, 沈種, 風水, 罪業種, 陷沒, 怨靈, 佛寺, 緣起, 長者, 高僧, 道士, 占卜者, 人柱, 義犬, 科擧應試, 孝子, 烈女, 池沼, ?老, 怪誕, 陸地, 出現, 異物, 交媾, 塚墓, 巨木蜈蚣, 大蛇, 龍, 米穴, 힘내기, 修業, 호랑이, 氏族, 始祖, 地名 傳説 등이다.

이제 우리고장 傳説에 대하여 이미 알려져 太白의 說話(1974)에 所載된 19編과 그밖에 筆者가 採集한 28編을 紹介한다.

1. 下馬路와 朴大監

高麗末의 忠臣인 朴元宏은 임금을 받들고 섬겨왔다. 그러나 高麗가 亡하고 李成桂가 開城으로부터 漢陽에 都邑을 定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끝내 이를 拒否하자 王命을 拒逆한 逆賊으로 몰려 그때 가장 險한 땅인 江原道에 귀양가게 됐다. 귀양에 오른 朴元宏은 貞敬夫人 順興安氏와 더불어 春川을 거쳐 지금의 麒麟面 縣二里 下馬路까지 이르게 되었다. 朴元宏이 이곳에서 餘生을 보낼 것을 決心하고 받을 일구어 그곳에서 恨 많은 生活을 하게 됐다. 그러다가 夫婦는 世上을 떠났는데 그 屍體는 子孫들에 의해 下馬路 언덕에 合葬되었다 한다. 그후 歲月이 흐르자 이 夫婦가 合葬되어 있는 墓 周圍에 寧越嚴氏를 비롯한 많은 墓가 생겨서 이들의 後孫들이 先朝의 墓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러던 무렵 麒麟面 縣里 下德에 살고 있는 이들의 長孫 한 집안 사람의 꿈에 朴元宏이 나타나 後孫을 꾸짖고 「周邊의 다른 墓는 다 옳기라」고 말했다. 꿈에 先朝를 만난 이 後孫은 다른 墓를 전부 移葬했으며 이 때 朴元宏의 墓와 望頭石까지를 전부 되찾아냈다. 그 후 이 墓 부근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볼 것 같으면 빨래에 「다음부터는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禁忌의 글이 쓰여져 墓 앞에 걸려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지금까지 墓 앞에는 빨래를 널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平章事 朴元宏을 모시고 얼마 안되어 이곳 麒麟縣監이 새로 赴任할 때의 일이었다.

新任縣監은 深山幽谷 호젓한 僻地에 꺼릴 것이 무엇이라 싶어서 나귀등에 높이 올라앉아 傲慢하게 平章公 墓앞을 지나려고 했더란다. 그때 墓 앞까지 온 나귀의 발굽이 갑자기 땅에 못 박힌듯 붙어서 도무지 꿈쩍을 못하게 되었다 한다. 놀란 縣監(面長에 該當)은 금새 얼굴 빛이 질렸다. 뒤

따르던 衙前 구실아치 무리들도 눈이 휘둥그래지자 「이 어찌된 緣故일고 뒤 까닭을 아는 자 없겠느냐?」 縣監이 안타까이 周圍를 돌아보며 물어 보았다.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하옵나이다」 이 縣衙에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가 縣監 앞으로 나와 읍하였다. 「네 아는바를 直告하라」 「예, 아뢰옵기 慄懼하오나 여기는 乘馬高坐하고는 지나 가지 못하는 곳이 옵니다. 艮坐原에 平章公이 顯靈 하시옵기로 下馬步行 하여야만 비로소 通過 步行할 수 있나이다.」 그제야 縣監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얼른 나귀등에서 내렸다. 「웁도다 平章公께서 예 계신 줄 미처 몰랐었노라」 縣監은 깊이 깨우치고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현감은 다음날 이곳에 下馬碑를 세워 놓았다 한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나귀에서 내려 걷게 되었고 地名을 下馬路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2. 白雲과 際厚

삼국이 통일된 후 한창 시국이 안정되어 태평성세를 누릴 때의 일이다. 신라 진평왕 24년 인제에는 우애가 두터운 두 친구가 아래윗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는 같은 때에 모두 아기를 배었다. 그들은 어느 쪽이건 딸을 낳으면 서로 약혼을 하여 두 집의 정의를 계속하자고 다짐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자 두 부인은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부인은 똑같은 시각에 아기를 낳았다. 박진사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백운이라 지었고 권진사는 딸을 낳아 제후라고 이름을 지었다. 두 이웃은 갓난 어린애를 그 자리에서 약혼해 놓고 말했다. 백운과 제후는 차츰 자라서 백운이 어느덧 국선(國仙)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런데 백운에게는 이때부터 비운이 닥쳤으니 그

의 부모가 이름모를 괴질에 걸려 앓게 된 것이다.

백약을 구해 부모의 병구완을 했으나 결국 그의 부모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1년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백운이 주야로 상정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눈앞이 캄캄하여 통곡하기를 49일 바로 그날 백운은 까무라치고 말았다. 백운이 깨어보니 권진사의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백운이 불행히 실명하게 되자 제후의 아버지는 마음이 변했다. 딸을 재산도 없고 눈먼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제후의 아버지는 백운의 아버지가 살았을때 맺었던 약혼을 깨고 딸을 금산 태수로 있던 이교평에게 시집보내기로 한 것이다. 나이 15세가 되어서야 철이 들은 제후는 생각다 못해 어느 날 밤 백운의 집을 찾아갔다. 제후는 금산으로 백운이 따라오기를 당부하고 부모가 보내는 대로 금산 태수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좋은 날을 택하여 성혼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별거하자고 했다. 그러는 동안에 백운이 금산으로 찾아왔다. 갖은 고생을 하며 두 사람은 개녕군 송방리란 곳에 자리를 정하였다. 앞 못 보는 백운은 제후와 함께 논밭을 일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백운과 제후가 밭을 가는데 오래된 석불 하나가 나왔다. 백운은 석불앞에 앉아 그 석불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제후의 생각도 한가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백운의 눈 앞에는 희미하게 석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백운은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부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빌었다. 그는 석불을 보고 합장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신기하게도 밭에만 나가면 희미하던 눈이 광채를 받아 조금씩 앞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몇 달이 지나자 백운은 멀정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석불을 고이 집 근처에 모셨다. 그러자 그 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 이 석불이 신통력이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며

석불이 밤에는 서광을 비친다는 소문까지 났다. 석불이 있는 백운 제 후부부의 집에는 병을 비는 사람 자식을 원하는 부부 소원을 이루고 자 하는 사람들이 석불에게 빌면 이루어 진다고 믿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찾아들었다. 이들은 공양으로 쌀을 가져오느니 배를 가져오느니 향촉과 음식을 올리느니 하여 법석이 됐다. 그리하여 백운부부는 주인노릇을 하며 시주가 늘어 기와집을 짓고 석불을 모실 큰 절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게끔 했다. 양반집이나 대가집 에서도 노소부녀가 모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는 현감과 조정대신까지 석불앞에서 자식을 빌고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들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암행어사가 지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민가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알고 아줄을 보내어 집을 부수었다. 그러나 암행어사도 백운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백운부부는 다시 집을 짓고 석불을 모셨다. 그랬더니 해가 거듭 할수록 집안은 더욱 번창하였고 자손들도 늘어나 흥성했다.

3. 雪岳山과 吉頭目

본래가 씨름을 하여 수십마리의 황소를 끌어오기도 한 吉吉道두목은 智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다 한다. 양반이 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한 영특한 사내가 결국 세상을 등지고 설악산 설악동에서 남쪽으로 마주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의 암석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權金城에 숨어 비적질을 하며 울분을 달랬다는 전설이다.

권금성은 길 두목이 이끄는 비적떼들이 은거지로 삼아 활약하게 된 시대는 그 훨씬 이후인 이조시대 燕山君(1495 ~ 1505)때다. 성이야 누가 언제 어떻게 쌓았던 길두목 일당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도록 훌룡

한 근거지가 되고 있었다. 당시 동해안 揚揚, 束草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漢陽을 가기 위하여 꼭 그 길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권금성은 더욱 비적들의 근거지로 적소였다. 定癘坪, 馬登嶺, 元通, 麟蹄, 洪川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였고 또한 이곳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기 위해 넘나드는 길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암석위 정상에 자리잡은 비적들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계곡밑의 官道 옆 주막촌과 은밀한 연락을 취하며 비적질을 했다. 원래가 첩첩 산중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는 꼭 주막촌(현재의 무명용사비)에 들러 시장기를 채우고 걸죽한 탁주에 킁킁한 목을 축이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멀고 험한 계곡을 넘을 수가 없었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형편이면 그 주막촌에서 하룻밤을 쉬어야만 넘어 갈수 있기도 했다. 인접한 곳에 다른 마을이라곤 전혀 없었으며 깊은 산골에 그렇게 자리잡고 있는 주막촌과 긴밀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적들로 보아 다시 없도록 좋은 조건이었다. 그 주막촌의 酒母들 가운데는 남편이 있는 여자 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더 많았으며 비적들과 공공연히 정을 통하여 그 마누라 구실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바로 비적들의 소식통이 되어 있었다. 관도는 지나는 손님이 주막에 들어오면 불을 피워 비적에게 그 사실을 알리므로 위로는 마등령 밑으로는 살인재가 바로 비적들의 활동 무대로 되어 있었다. 비적들은 힘이 더 월등한 과객을 만나 오히려 당하는 경우는 한번외는 거의 없었다. 비적들은 우선 지나가는 과객들을 세워놓고 수중에 든 돈을 털기도 하고 또 소문날 우려가 있으면 죽여 없애는 것이 상습이다. 그러면서 보신상 조정의 정보를 입수해 가면서 행패하는 것이 상습으로 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나날이 거센 폭풍이 이는 가운데 강원도 산골의 비적들은 그야말로 호경기를 만났다는 것이다. 길비적 두목은 심복부하로 떡쇠 외에 많은 줄개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정고부락의 『분』 이와 성대하게 혼인을 하고 3년이 지나다 보

니 어느 듯 자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 20세가 넘었다.

중종 즉위 14년 (1519)에는 己卯士禍가 마침 일어나자 이때 청빈하기로 그 소문이 난 강원도 관찰사 그 전에는 양양도호부부사를 지낸 李光烈은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 초라한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길두목은 이대감의 집 앞이다 고래 등 같은 80칸 집을 지어 놓고 살다가 어느덧 대감과 인연이 닿게 된 후 많은 것을 배우고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모든 죄상을 뉘우치므로 그 인간성이 완전히 변해 버리므로 비적생활을 청산한 것이다.

양양군 서면 갑천리 마을 입구에는 부사와 감찰사를 역임한 李光烈 大監의 비석이 있었는데 그 산소옆에 또 하나의 산소가 생겼고 비석에는 엉뚱하게도 <백장 길길도> 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여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北面 龍堡理에 소재하고 있는 世稱 『盜賊沼』도 이 무렵에 도둑놈들이 彌矢嶺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財物을 빼앗은 뒤沼에 빠뜨려 죽게 함으로 인해 부쳐진 地名으로 알려져 있다

4. 瑞和面 도깨비 火爐

瑞和面 瑞興2리의 발 가운데 있다.

이 마을에 咸富者로 통하는 大農의 家族이 살았다. 근면성실한 咸富者는 數年동안 自己集 앞에 있는 발 가운데다 돌을 주워다 쌓아 큰 형태의 돌무덤을 만들었다. 어느 해 겨울 이 돌무덤을 들어내기 위해 온 집안 食口가 나와 作業을 했는데 제일 中心部를 치우게 될 段階에서 6尺 정도 뿔 달린 뱀이 둥지를 틀고 冬眠을 하고 있었다. 咸富者는 雪

上蛇가 몸에 特效임을 아는 터라 즉시 잡아 토막을 내어 뱀술을 담갔다. 100일以後 뱀술을 먹으려고 항아리를 열었는데 모두 醞酵가 되었어야 할 뱀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생생하여 奇異하게 여긴 咸老人은 그것을 항아리째 江물에 띄워 버렸는데 밤마다 석 달 열흘을 凶凶 하더니 10年內에 그 마을에 살던 咸氏一家 22명이 모두 시름시름 죽어 갔으며 지금도 咸富者가 살았다는 집터는 瑞興理에 있다고 당시 살았던 金壽培(1904~)는 전해준다.

5. 갓싹동이의 전설

고구려때 淵國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도록 후사를 얻지 못하여 항상 슬하에 혈육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항상 부처님께 아들 하나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이들의 정성에 부처님도 감동했음인지 그의 나이 오십이 되던 해에 마침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갓싹에 낳았다하여 갓싹동이라 이름지은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갓싹동이가 일곱 살 되던해 봄 행각승 한사람이 뒤뜰에서 놀고 있는 갓싹동이를 보고 <아까운 지고, 정녕 아깝고 녀> 하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들은 연대감은 그 연유를 行각승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 行각승은 갓싹동이는 장성하면 반드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나 타고난 수명이 짧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行각승은 갓싹동이의 명을 길게 해주려면 15년간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을 그리워 하게되면 그 액을 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연대감은 즉시 하인을 불러 곱게 키어온 갓싹동이를 두메산골로 보내고 뒷날 아들을 찾기 위해 표적 삼아 먹실로 등위에 갓싹동이란 석자를 새겨 두었다. 갓싹동이를 버린 곳은 인제땅 두메산골

이었는데 그 동리에는 큰 부자인 유씨가 살고 있었다. 유씨는 갓선동이 버려지는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커다란 황룡이 구름을 타고 자기 집 우물가에서 하늘로 나는 것을 보았다. 유씨는 당장에 우물가로 달려가 주위를 살펴보고 또 한번 놀랐다. 한 사내아이가 우물가에 기대서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씨는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귀엽게 여기고 키우기 시작했다. 갓선동이는 자랄수록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영특했으나 그의 내력이 알려지지 않아 천인대접을 받고 있었다. 갓선동이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루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청아한 통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빈 지계를 내려놓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백발의 도사가 앉아 통소를 불다가 갓선동이를 보고 <너는 언제까지나 남의 머슴살이를 할 것이냐?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세를 펴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나가라고 나무라고 자기에게 와서 공부하라고 일러주었다. 갓선동이는 그 날부터 도사에게서 글과 무술을 배웠다. 해가 질 무렵 갓선동이는 나무를 하지 않은 것이 걱정이 돼 지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지계에는 누가 해주었는지 이미 나무가 한 짐 지워져 있었다. 갓선동이는 도사에게 감사하다며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갓선동이는 매일 도사를 찾아 공부를 했으며 공부가 끝나면 누가 해주었는지 지계에 한 짐 실려있는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원래 주인 유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 딸인 연화라는 아가씨가 제일 아름답고 착했다. 연화와 갓선동이 사이에는 어느덧 사랑이 움텄다. 갓선동이는 연화의 격려에 힘입어 사내로서의 포부를 세상에 펴고자 주인 유씨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연화는 지니고 있던 패물을 팔아서 갓선동이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 고구려는 달달국의 침입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갓선동이는 달달국에 들어가서 그나라 왕의 비복이 되었다. 갓선동이는 그 나라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나라의 문물을 몸소 익혀 가지고 그 나라를 벗어나 다시 고국에 돌아왔다. 고국에 돌아온 갓신동이는 연화아씨의 내조의 힘을 입어 부모를 다시 찾고 벼슬을 얻었다. 그는 연화아씨와 결혼한 이듬해 달달국에 쳐들어가 크게 승리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6. 上南의 鶴칠령谷

麒麟面 上南3리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 喪을 입었다. 그는 아버지를 明堂에 모실 생각으로 地官에게 산소를 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地官은 「산소자리를 내가 잡아주되 내 말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됩니다」라고 먼저 다짐했다. 常主는 그러마고 쉽게 약속했다. 地官은 陽地바른 한 골을 墓地로 잡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산 자리를 파들어 갈 때 넓적한 돌이 나오면 더 이상 파지 말고 下棺을 하십시오 그러면 子孫中에 貴人이 나와 집안이 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墓地를 팔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고 人夫들이 바위를 뒤적이지 않도록 지키십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장사 날이 와서 그 喪主는 地官이 가르쳐준 골에 墓를 팠다. 喪主는 人夫들이 墓地를 파고 있을 때 처음에는 地官의 말을 지키느라고 살펴보았으나 평평한 돌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地官의 이야기가 차츰 믿어지지 않게 됐다. 그럴 즈음 찾아온 이웃 사람이 있었다. 喪主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墓地를 지켜보지 않았다. 이때 墓자리를 파던 人夫들은 때를 맞추어 나타난 넓적한 돌을 파 일구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鶴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 올라 고개 너머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墓地에서 鶴이 날아간 후 墓자리를 보아준 地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

있던 그 喪主의 後孫 中에서는 地官의 말처럼 그 집안을 일으킬 만한 人材는 영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喪主가 地官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鶴을 날려 보냈기 때문에 그 後孫 中에는 登龍되는 人材가 태어나지 않고 있다고 믿었으며 墓地에서 鶴이 나와 산 너머로 넘어 갔다고 해서 이곳을 「학칠령」이라 부른다 한다.

▲ 「학칠령」과 유사한 전설로 楊口의 「失鶴고개」가 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傳說은 新羅末 道銑으로부터 시작된 地理風水說로 우리民族의 生活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7. 호랑이 득실댄 虎食洞

三淵 金昌翁(1653~1722)이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인 北面 龍垓理 내설악 永矢洞의 永矢庵 근처에는 지금도 虎食洞이라는 곳이 있다.

이 虎食洞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하여 虎食洞이라 한다. 三淵이 이곳에 와 있을 때 밥 짓는 종을 한사람 데리고 와 있었는데 어느 날 永矢庵 뒤에 있는 골짜기에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이리하여 이곳을 虎食洞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밥 짓는 사람이 없고 보니 침식에 불편도 있었지만 자기 때문에 와 있다가 불의의 患을 당한 종이 불쌍하여 인정으로 차마 그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어 여기 온 지 6년 만에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이곳은 幽深한 溪山이기에 養氣하기가 알맞아 庵記에 「或息心人萬里爭越 或養氣休之士六合雲集」〈休息하려는 사람들이 萬里 밖에서 찾아오고 養氣 하려는 사람들이 구름 모이듯 찾아든다〉라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 들었다 한다.

8. 天桃里의 범바위

瑞和面 天桃²理에 있다.

옛날 한 武士가 말을 타고 지나던 중 호랑이 한마리가 바위에서 벼랑 밑을 내려다 보며 멧돼지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호랑이를 활로 쏘아 맞히니 벼랑으로 떨어지던 호랑이가 멧돼지의 목을 물고 죽어 화살 한발에 두마리의 짐승을 죽였다는 일화가 전해 오고 있는데 그 뒤로 부터 「범바위」로 불리어지고 있다.

9. 金富里의 玉雪바위

南面 金富里의 거릿말 북쪽 골짜기인 下丹芝谷 북쪽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가 있으니 약 1,000년전 부터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신라 경순왕 9년 10월에 왕이 群臣會議를 열고 고려에 귀속하기를 제의하였을 때 군신중에는 혹 가하다고 하는 파가 있었고 혹 불가하다는 파도 있었다 한다. 특히 왕자(숙전 麻衣太子)는 비분한 어조로 말하되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과 의사(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때에 맡것이니 어찌 千年社稷을 일조에 쉽사리 남에게 내어 줄가 보냐』 하였다. 그러나 왕은 侍郎 金封休로 하여금 國書를 가지고 고려에 가서 歸附를 청하였으니 신라는 역대 56王 992年으로 붕괴하였다. 왕자는 통곡하여 부왕을 작별하고 皆骨山(지금의 金剛山)으로 들어가 일생을 마치기 전에 南面 金傅里에 여러해 동안 머물었다. 이때 신라의 뒤를 이으려고 金副大王이라 칭하였는데 이곳 金副里에는 형태가 두개로 포개져 있는 바위가 있었으니 이 바위에다 옥으로 만든 임금의 도장인 옥새를 감췄

던 것으로 여러 빛깔의 뱀이 가끔 나와 돌아 다니는데 옥새를 지키는 것이라 하여 그후부터 이 바위를 가리켜 옥새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인근의 거릿말 서북쪽 산에는 祠堂으로 大王堂이 있어 金富王을 위하여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 놓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등 이곳에 얽힌 옛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玉璽는 國璽, 寶璽, 御寶, 國寶라고 부르며 古代 中國에서는 귀천을 不問하고 「璽」라 불렀으나 奏나라때 皇帝의 印만을 「璽」唐의 玄宗때는 「御璽」라 불렀으며, 火災, 雜人侵入, 盜難, 戰爭 等の 要因으로 保存 못하므로 이에 얽힌 史話가 많이 傳해오고 있다.

10. 美山の 파리먹이

上南面 美山1里 所在地인 賓地洞에서 1.5km쯤 되는 곳에 위치한 古木洞 어귀의 파리먹이(蠅頭村)에 얽힌 傳說이다.

조선 宣朝때 李栗谷先生의 父親이 아들을 데리고 鐵嶺을 넘어 이곳을 지나다 때마침 날이 저물어 酒幕에서 하룻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한다. 栗谷先生의 父親의 顯夢에 갓을 쓴 道師가 나타나 "너의 아들의 壽命이 길지 못하다"고 묻자 道師는 금방 호랑이로 변하면서 "이 마을 뒷산에다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고 일렀다. 시키는 대로 며칠 동안 밤나무를 심었더니 어느 날 한낮에 꿈에 본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나무를 세어보니 999그루 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 한그루는 어디에 있는냐고 으르렁대자 栗谷父親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雜木 하나가 튀어 나오며 "나도 밤나무" 라고 외쳐 禍를 면했다고 한다. 튀어나온 그 나무는 밤송이는 열리나 열매가 없으며 지금도 그 나무는 여러 밤나무와 함께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오래 묵은 밤나무가 到處에 많이 分布되어 있음에 따라 古木洞이라고 불러 왔으며 現在 파리먹이의 형국에 由來하여 이것이 訛傳되어 파리먹이 傳說로 전해오고 있다.

▲李栗谷父親이 한때 머물렀다는 옛 터에는 膝下에 5男5女를 둔 金鐘哲(1919~)만이 외로이 살고 있다.

11. 심피마니와 芳東藥水

麒麟面 縣里 面所在地에서 7km가량 떨어진 芳東2리에 藥水가 所在하고 있으니 옛부터 芳東藥水라고 불리우는 勝地가 있어 해마다 到處에서 避暑를 겸한 行客으로 가득하다.

지금으로부터 300餘年前 어떤 심피마니(山蓼을 캐러 깊은 산을 찾아 다니는 사람)老人 한 사람이 이 산에 이르러 每日 山神에 精誠을 드리면서 심피를 보러 다니기를 여러 날 지내던 중 어떤 날 밤 夢中에 忽然이 白髮老人이 나타나서 "나는 이 山 神靈이다. 貧寒中에도 너는 正直하며 至誠을 다하니 내 너에게 山蓼을 주리라. 그리고 그 蓼을 뽑은 地下數尺에 萬病通治水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 이를 널리 世上에 알려 衆生이 濟度받게 하라"하고 사라지거늘 다음날 다시 심피를 보러 가려는데 童子가 나타나 오라고 손짓하기에 그곳에 가보니 童子는 간 곳 없고 그 童子가 있던 자리에 육구만달(제일 큰 山蓼)의 山蓼이 있어 이를 캐고 얼마를 파니 果然 藥水가 솟아났다고 한다. 이 藥水가 바로 芳東藥水이다.

12. 淸溪洞 權大監祭

麟蹄邑 加里 淸溪洞골짜기에 얽힌 전설이다.

李朝 세조때 端宗大王이 영월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자 나라 사람들은 세조의 부당한 처사에 울분을 참지 못했으며 당시 고관과 많은 신하들은 세상을 등지고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거나 또는 방랑생활에 들어갔다. 특히 단종의 외숙인 權叡이라는 분은 이 난을 피할겸 아주 깊은 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가다 가다가 당도한 곳이 인제의 청계동인데 이곳에 草幕을 짓고 은거 중 하루는 잠시 이웃을 다녀 오기 위하여 말을 타고 길을 떠났는데 산중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사슴 한마리에 깜짝 놀란 말이 다라나는 바람에 權叡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칠푼풀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분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마을의 主神으로 모시고 또 이지방의 禍나 福을 이분의 영혼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의 태평을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13. 龍垞里 百譚寺

당초 이 사찰은 浪川(지금은 華川)땅에 比琴寺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한다.

당시 포수들이 짐승들을 잡으러 자주 몰리는 등 佛道에 어긋난 일들이 이 절 근처에서 자주 일어나 할 수 없이 北面 寒溪里에 절을 옮기고 寒溪寺라 칭하였다 한다. 이 절을 옮길때 낭천에서 寒溪까지 하루 저녁에 옮겼는데 도중 靑銅火爐 하나와 절구를 떨어뜨리고 왔다 한다. 春城郡의 절구골은 이때 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한계리 부근의 靑銅谷은 靑銅火爐가 떨어진 곳으로 전해진다. 한계리에 온 이 절은 이곳에서 다섯 차례나 화재를 만났는데 화재를 만날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고쳐 보라고 일러주곤 했다. 화재를 자주 만난 이 절은 그 부근인 龍垆里 庵子 등에 옮겨 靈鷲寺라고 이름을 고치기도 하고 했으나 이곳에서도 또 화재를 만났다. 여기서 또 다시 화재를 보자 주지스님은 절 이름이 잘못 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그러던 하루밤 주지스님의 꿈에 白髮老人이 나타나 『靑峰에서 절까지 潭數를 세어 보라』고 일러 주었다. 여기서 암시를 받은 스님은 그 이튿날 청봉에서부터 절자리까지의 물굽이를 세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수는 꼭 일백개였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절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우고 그 절의 이름을 百潭寺라 命名하였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이 절에 화재가 전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한다.

▲이 절은 新羅 善德王55年 慈藏이 律宗을 開創할 당시에 創建 되었다는 古刹로 麟蹄, 東草를 잇는 國道邊 外加平에서 東南쪽으로 約 8Km地點에 위치한다.

14. 內雪岳의 五歲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불교가 國敎로서 숭봉왕성 할 무렵 善德女王 시절에 慈將이 慈經을 전하고 救靈의 大道를 찾고져 창건하였던 것을 조선 仁祖때에 雪淨禪師가 중건하고 父母를 잃은 자기 조카인 다섯살 난 玉童을 데리고 심산유곡을 찾아 들었으니 이곳이 곧 百潭 繼谷인 雪岳山下로서 梅月庵이라 칭하고 어느해 늦가을 스님은 눈이 쌓이기 전에 겨울 날 양식을 마련하려고 嶺東地方의 壤陽都護府로 떠나게 되었다.

스님은 산중암자에 혼자 있게 될 어린 조카에게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거나, 그러면 3일 이내에 돌아오겠다』고 이르고 嶺길을 넘어 양양으

로 떠났다. 그러나 그날부터 눈이 내려 산과 같이 쌓여져 嶺길이 통할 수 없게 되자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통탄속에 그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듬해 3월에서야 비로소 암자에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望京臺에 올라 梅月庵을 굽어보니 신기하게도 그윽한 種소리가 들리고 불축(不廁)의 기적에 측은한 마음을 먹고 암자에 이르니 童子는 大師를 반겨주고 童子 있던 방에는 靈香이 그윽히 차 있고 방에서는 淸鳥 한마리가 창밖으로 날아가고 있음에 대사가 그 연유를 조카에게 물은 즉 자애스럽고 仁厚스러운 여인의 품에 포옹되어 젖을 빨고 있었으며 그 여인의 말이 나는 너의 어머니라고 하며 동자가 다시 반문하기를 그러면 관음보살이시나요? 한즉 오냐 너와 명춘까지 같이 있겠노라 하였다 한다. (白衣夫人이 觀音峰에서 내려와 童子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靑鳥로 化하여 갔다)

그리하여 梅月大事는 다섯살 된 동자가 불법에 悟得通達한 것이라 하여 그 후부터 이 암자를 五歲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百譚寺 附屬 庵인 이 庵子는 統一後 善德女王때 세운 庵子로 當初의 이름은 觀音庵이었다.

15. 新南里의 닭바위와 망한 富者

南面 新南 1里 國道邊에 位置하고 있는 형태가 닭같이 생긴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新羅時代에 金氏라는 富者집이 있었는데 하루에도 지나는 길손 및 손님이 20여명씩 찾아와 門前成市를 이루었다 한다. 이 집 며느리가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에 골머리를 앓던 중 하루는 老僧이 들러 시주를 원하니까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손님이 안드는 묘책을 가르쳐 달

라고 했다. 노승은 앞산에 있는 닭처럼 생긴 바위를 가르키며 닭벼슬로 보이는 곳을 도끼로 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즉시 도끼로 깨어버리자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한다. 그후 이상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따라서 몇해 동안 계속 집안에 變故가 생겨 金氏 집안은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지역 노인들은 첫새벽에 닭우는 소리가 들리면 흉년이 온다고 믿어 不吉해 하고 있다.

▲ 닭바위에는 1972年 7月 昭陽댐 建設로 因한 水沒로 冠堡里에 있던 [南北統一路] [三八橋]石碑를 移轉해 놓아 行人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16. 上南水洞의 黃龍登天

約 100年前 上南面 上南1理 水洞에서 사는 한 老婆의 꿈에 白髮老人이 나타나 "나를 보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늪으로 오라"하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깨어보니 奇異한 꿈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老婆는 孫女를 앞세우고 마침 딸의 집 잔치를 보러가는 길에 이 늪이 있는 곳에 가보았다. 늪이 있는 곳에 닿자 孫女가 "할머니 저게 뭐예요"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할 머니는 손녀가 손가락질을 하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黃龍이 돌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서움을 참지 못해 "龍이다!"라고 孫女에게 대답해 주고 놀란 할머니와 孫女는 10리가량 땀박질을 했다. 그 때 맑은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며 안개가 자욱이 퍼지더니 五色무지개 속에서 黃龍이 일어나며 서서히 하늘로 향하여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瀑布를 龍瀑 또는 龍沼라고 부르며 이 傳說을

“黃龍登天”이라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이곳 龍沼는 아무리 추운 겨울철이라도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怪異을 던져주고 있다 한다.

17. 美山の 龍바위와 龍馬

麒麟面 美山1里 賓地洞에서 20km가량 떨어진 北쪽에 位置하고 있는 龍淵洞(용늪)은 그面積이 3,000坪이나 되며 李朝末葉 산 길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夫婦가 아기를 낳았는데 3年만에 땀박질을 하며 산을 오르 고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일쑤였다고 한다.

이상히 생각하여 이런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 마을이 亡할 凶兆라 하여 夫婦가 잡아 죽였다. 그 때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3個의 비늘이 달려 있었다고 하며 그 후부터 용바위에 龍馬 한 마리가 나타나 며칠동안 밤낮 없이 울어대자 마을 사람들은 그마저 잡아 죽여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 이 龍淵洞 一帶는 鬱蒼한 松林으로 自然景觀이 狀觀이다.

▲ 옛날 將師를 낳으면 門中에서는 吉事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當時의 世情은 逆賊이라 陋名을 쓰고 三族(親戚, 妻家, 外家)까지 虐待받게 된다는 世襲으로 壓死시켰다. 龍馬와 龍淵, 龍沼등에 얽힌 傳說은 古代로부터 共同傳記로 전해 오고 있다.

18. 院垈里的 烈女金氏 忌日際

李朝 仁祖14年 丙子胡亂(1636)때 경기도 楊洲郡 豐娥縣에 氣骨이 長大

하고 인품이 고귀한 趙玉立이란 장군이 있었다. 兵曹判書를 역임한 바 있는 이 장군은 병자호란때 官軍을 지휘하고 되놈(胡軍)과 분투하였으나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의 기회를 보기 위해 인제면의 원대리에 은신하였다.

이 장군에게는 삼척 김씨의 부인이 있었다. 조옥립 장군의 뒤를 따라들이 닦친 되놈들은 김씨에게 조장군이 있는 곳을 밝히라고 두 손바닥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되놈들은 마당에 장작을 쌓아 놓고 김씨를 화형에 처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돌연 폭우가 쏟아져 뇌성병력(雷聲病歷)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이렇게 되자 되놈들은 무서움에 떨며 모두 도망을 쳤으며 김씨는 끝내 남편이 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주지 않아 남편을 구했다는 것이다. 조장군의 후손들은 삼척 김씨가 10여일 후 죽자 그녀에 의해 그들이 대(代)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하여 김씨의 기일(忌日)로 陰曆 10月1日이면 문중에서 제사를 매년 올리고 있다.

▲麟蹄邑 院垈理 안삽재(內插峴)에 烈女門이 있으며 第13代 孫으로 趙南植(1933~)을 비롯한 趙氏20戶가 居住하고 있다.

19. 內雪岳의 大勝폭포

옛날 대승이라고 불리워지는 총각이 北面 寒溪里에 살았다 한다. 대승은 석이(石耳)를 따서 그것을 生業으로 삼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서서 석이를 따다. 잔뜩 석이를 따 놓은 참인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고 부르고 있었다.

대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에 소스라쳐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곳없고 동아줄에는 신짝 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었다. 동아줄은 막 지네에 뜬겨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오르느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나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大勝瀑布는 800m로 北面 漢溪3리에 있는 瀑布로 內雪岳의 長帥臺 入口에서 2Km 지점에 있는 韓國 3大 瀑布의 하나로 特히 最長으로 알려져 있음.

20. 鳥弄洞書生과 張弘弩

麒麟面 所載地에서 2km가량의 地點인 조롱고개(鳥弄玲)를 넘으면 500m의 國道邊 自然石에다 새겨 놓은 "張弘弩"라는 큼직한 글씨를 行人들은 쳐다볼 수 있다.

現在의 80代 村老들은 年代를 推定할수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鳥弄洞 書生들과 張弘弩에 얽힌 逸話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옛날 어느 곳에서 살다가 이 곳을 찾아왔는지 그 身分을 昭詳히 알 수 없는 張弘弩는 이곳에 와서 後進들의 漢學教育에 餘生을 보낼 것을 굳게 다짐하고 書生들에 漢文을 가르치다가 世上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弟子들에 의해 自然石에다 스승의 이름인 張弘弩라고 큼직하게 새겨놓고 가까운 곳에다 墓를 마련해 놓았으니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 感慨無量하다.

弟子들은 生前時 스승님의 恩惠를 永遠히 追念하고 또한 緣故人이 언제라도 이곳을 지나면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豫想하고 이와 같이 美舉를 이루었다고 그 附近에 거주하고 있는 李炳俊(1939~)은 전해 주었다.

스승님은 영영 가셔도 古色 짙은 그 이름만은 風雨를 가리지 않고 鮮明하게 보여주어 빛을 잃어 가는 現代人의 愛鄉心을 복 돌아 주는 契機가 되었다.

21. 秋甲山과 九尾虎

麒麟面 下南2里 仙來洞이란 마을은 앞뒤가 에 둘러있는 으로 지금도 7世帶 밖에 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옛 부터 전해 주고 있는 傳說이 담겨 있다.

위치한 추갑산(秋甲山)에 대한 설화가 있다. 때는 李朝中葉으로 이 마을에는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추(秋)씨 성을 가진 사냥꾼이 있었는데, 추씨가 사냥을 나간 몇 시간 후에 총성이 계속해서 들려오자 그의 아들인 갑산(甲山)이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의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고 좀 떨어진 곳에는 흰털로 덮인 커다란 짐승이 앉아 있는 지라 연유를 아버지께 물으니 “저 짐승은 총을 아무리 쏘아도 죽지 않고 실탄을 받아 땅에 떨어뜨리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몸이지만 자식만은 살아야 할것 아니냐고 싸움을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권하였다. 의지가 강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면서 짐승과 싸우겠다고 총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청에 못 이겨 총을 건네 주었다. 아들은 총에 실탄을 넣지 않고 화약만 넣어 여러 차례 짐승을 향하여 쏘아대니 짐승은 갑산의 총 솜씨에 놀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추씨의 성을 따고 갑산의 이름을 붙여 추갑산이라 하였으며 죽은 짐승은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호랑이라 하여 구미호(九

尾虎)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2. 仙女쫓긴 玉女蕩

北面 寒溪3里 將帥臺로 들어가는 入口에 소재하고 있는 玉女蕩에 먼 옛날 大勝瀑布 月宮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있어 玉仙女를 보고 해치고자 하여 선녀는 쫓기어 다른 沼로 옮기었다. 둘째소까지 쫓겼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코자 하였다. 선녀는 갈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 됐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玉皇上帝가 玉仙女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玉仙女는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옥선녀가 놀았다고 하여 玉仙女蕩이라 이름지어 부른다고 한다.

23. 點鳳山 鑄錢

麟蹄邑 貴屯 2리와 麒麟面 鎮東 1.2리를 境界하고 있는 (1424m)에 얽힌 일화이다.

李朝때 常平通甫의 葉錢을 나라에서 만들어 백성에게 쓰게하던 시절에 이 點鳳山(속명 덩봉산) 깊숙히 들어있는 골짜기의 岩窟에 숨어 어떤 사람이 私鑄錢을 했다고 한다.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엽전을 만들었으나 이 비밀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져서 똑딱 똑딱 망치질하는 소리가 마치 <덩봉산 돈 닷돈, 덩봉산 돈 닷돈>하고 울렸다 하여 童謠가 되고 전파되니 이 기이한 동요에 官

人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자 私鑄錢하던 일당이 발각되어 포박 되어간 후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인근에서 <쟁과리>를 처음 배우는 이들이 <덤봉산 돈 닷돈, 덤봉산 돈 닷돈>하고 친다고 한다.

▲ 이와 類似한 傳說是 襄陽郡 西面 五色藥水터 隣近의 「鑄錢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4. 瑞興里의 張家바위

瑞和面 瑞興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밑 水濶이 21層이나 돼 명주실 한타래가 모자랐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예전 어느 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황소를 바위 옆에 메어둔 채 酒幕으로 갔다와 보니 황소는 보이지 않고 쇠고삐만 물에 잠겨 있어 잡아 당겨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물속을 맴돌더라는 것이다.

그 후에 張씨 姓을 가진 老總角이 이곳 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張家바위로 불려지고 있다.

25. 五個蕩

南面 於論里 44番 國道에서 화탄쪽으로 6km地點에 位置하고 있는 탕으로서 山頂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長久한 歲月에 걸쳐서 岩盤에다 甌穴을 뚫어 5개의 탕을 만들어 놓았다. 굽이돌아 흘러내리는 물과 岩盤의 調和가 神秘하리 만큼 美麗하여 夏節에는 避暑客으로 찾아오는 行列이 멈추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의 逸話가 傳해오고 있으니 그것은 먼 옛날 仙女가 沐浴하러 五個湯에 내려 왔다가 沐浴한 後 머리를 빗고 참빗을 바위를 밀어 열고 그 속에 넣어 두었다는 빗적바위도 있다.

南面一帶의 有一無二한 遊覽地로서 탕에 깃든 山의 精氣는 世俗에 젖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26. 龍角石과 將軍石

麒麟面 芳東1리의 村落인 莫九斗坪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當時에 富村이었다고 한다.

時代 未詳이나 그 옛날 하루는 平和스러웠던 이 마을에 한 僧이 第一가는 富者집을 찾아가 施主를 권하다가 하는 말이 “앞 산에 있는 저 산을 무엇이라 합니까?” 하고 묻기에 主人이 對答하기를 “龍角石이라고 합니다.” 하였더니 그 僧이 하는 말이 “그 바위를 龍角石이라고 하는 것보다 將軍石이라 改命하면 이 마을이 지금보다 더 富村이 되며 훌륭한 人材가 輩出될 것이며 그 名望이 四海에 떨치게 되리라” 하여 이 主人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어 많은 施主를 하고 改命을 要請했다. 그러나 그 僧은 '이름을 고치려면 바위 밑을 通行하는 사람을 위하여 큰잔치를 베풀어야 改命할 수 있다 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財産의 多小有無를 막론하고 金錢과 白米를 遽出하여 約1個月間 이 路上을 通行하는 行客에게 잔치를 베푼후 그 바위 이름을 將軍石으로 改命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 후 훌륭한 人材와 富村은 姑捨하고 여러해가 經過하지 못하여 마을에는 災害가 꼬리를 물고 發生하여 人命의 被害는 말할 수 없고 破産하여 망하는 집이 續出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論爭끝에 바위 이름을 고친것이 이 마을의 廢亡의

길이라고 하여 다시 龍角石이라고 고쳤다고 傳해 오고 있다.

27. 內麟川의 水鎮岩

麒麟面 縣 2.5里 境界線에 所在한 縣理橋에서 鳥弄洞쪽으로 200~600m 地點間은 內麟川에 接하고 있는 데다가 奇巖怪石의 斷崖와 높은 高개가 發達하여 芳東 쪽으로 가자면 매우 힘든 오솔길로 알려진 곳이다.

年代未詳인 먼 옛날 어느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 가다가 岩壁에다 "水鎮岩"이라고 새겨 놓고 어느 때에 가서 이곳이 물로 浸水된다는 말 한마디만 남겨 놓고 지나갔으니 그로부터 그 바위를 가리켜 "水鎮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스님은 果然 先見之明이 뚜렷하여 그러한지 그 후 이 고장에는 義外로 1930年과 1965年 1966年 3次에 걸친 大水魔로 水鎮岩 부근까지 물이 到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4年 10月부터 4個月間에 걸친 陸軍 工兵隊의 道路擴充이란 大役事로 奇巖怪石의 險한 斷崖와 높은 高개마저 崩壞되어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平土化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70年前만 하여도 이 부근의 由緒 깊은 傳說에 얽힌 150~200年生의 소나무가 茂盛하였던 곳인데 周邊의 各種 新築建物は 都市의 印象을 풍기고 있어 옛 자취를 反芻해 볼 뿐이다.

28. 內雪岳 永矢庵의 哀話

李朝 肅宗 15年(1689)의 일이며 이 해는 나라에 큰 혼란이 빚어지니 이 사건이 유명한 張嬪 事件이다.

肅宗의 正妃 仁顯王后 閔氏께서는 王子가 없고 淑嬪張氏가 肅宗14年 9월에 王子를 낳았다.

肅宗이 張氏에게 혹해지니 西人들이 懇請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肅宗15년에 張嬪의 所生을 世子로 冊封하려 하자 領議政 金壽興과 같은 분은 『世子를 가르치는 문제가 급하지世子 冊封이 급하지 않다』고 金壽恒과 함께 반대하니 肅宗은 張氏의 小生인 王子를 하고 淑嬪張氏를 嬪으로 對하니 西人들이 들고 일어나 肅宗은 하여 金壽興과 金壽恒, 宋時烈을 귀향 보냈다가 그해 3월에 金壽興의 官職을 박탈하고 윤 3월에 賜死하였다.

이때 宋時烈도 제주도에서 귀양갔다가 이해 6월에 賜藥을 받았다. 이때 金壽恒의 아들인 三淵 金昌翁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雪岳山의 永矢庵을 찾아 산수를 즐기고 영원히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세(永久不出世爲絶誓)하였다.

이곳에 情숨을 짓고 영원히 맹세한다는 뜻에서 永矢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三淵은 아버지 金壽恒의 靈을 위해 조석으로 기도를 드렸다.

29. 古沙里의 將帥攄

麟蹄邑 古沙리에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 전 유리알 같이 맑은 內麟川이 그 앞을 유유히 흘러내리고 북지개峰 골짜기에 출출 흘러내리는 도랑 옆 양지 바른 언덕위에 중년부부가 한가로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집 주인은 김덕용이요, 아내는 안옥녀였다. 봄이면 봉숭아 살구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고 가을이면 오색찬란한 단풍잎이 곱게 물드는 이곳 두 부부는 나이 45세가 되도록 슬하에 자식하나 없어 이웃집 최첨지가 손자를 업고 오면 부러워서 늦게라도 자식하나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개탄

하여 자식하나 점지하여 주십시오 하고 매일같이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정성껏 기도를 드린 보람이 있어 安氏婦人은 태기가 있게 되었다. 아들 낳기만 고대하던 중 마침 소망이 이루어져 사내아이를 낳게 되어 이름을 칠성이라 지었다. 온 동리의 축복을 대단하게 받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람하고 귀골도 장대하여 將師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구경오는 사람들도 많게 되었다. 그런데 怪異한 사실은 출생한지 삼일만에 어머니가 재워놓고 빨래갔다 돌아와 보니 칠성이 문고리를 잡아 뽑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 후 8일 만에 높다란 선반 위에 올라가 매달리고 뛰어 내리는 것이다. 이 엄청난 장난에 놀란 어머니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늘어놓았더니 “至誠이면 感天이지” 하면서 기뻐하기만 하였다. 다음날 일터에 나간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듯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은 큰일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 그것 큰일났네 틀림없는 將師를 낳았는데 장사를 낳으면 다섯살 안쪽에 부모를 해치고 집을 뛰어나가 인적없는 심산구중에 들어가 道를 닦고 武術을 연마한다네. 그러니 어서 크기전에 처치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을 걸세” 하고 異口同聲이었다.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졌다. 金氏는 아내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여 칠성이를 없앨 것을 결정하고 아랫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칠성이 가슴위에 큰 돌짜를 짓눌러 놓았다. 이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땃돌짜이 굴러 떨어지고 칠성은 한번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닌가? 이에 당황한 김씨는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라 노끈으로 다시 수족을 묶어놓고 땃돌짜를 또 올려 놓았다. 그리하여 칠성은 난지 9일만에 부모의 손에 숨지고 만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서기가 뻗치고 하늘에서 龍馬가 와서 집주위를 돌며 뇌성벼락같은 목소리로 울기를 3일 마침내 용소강을 뛰어 넘어 산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龍沼 앞 벼랑에 치솟은 바위에는

돌두덩을 한 장수우물이 생겼다고 하여 그후 부터는 이곳을 장수터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이와 같은 傳說是 平昌郡 芳林4理의 龍岩沼, 楊口郡 方山面 縣里 駒死岬等 各 地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의 世情은 將師를 낳으면 逆賊이란 누명을 쓰고 三族(親戚, 妻家, 外家)까지 학대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30. 설퍼덩과 머슴

瑞和面 所在地인 天桃4里에서 北西쪽으로 太白山脈 崔북단의 名山인 香爐峰(1,299m) 중턱에 설퍼덩이란 곳에 얽힌 傳說이다.

지금으로부터 約 60年前 瑞和里堂村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낳을때부터 얼굴을 除外하고는 거의가 털(毛)로 덮여 있어서 자기를 대해 주는 사람이 없자 소(牛)와 친해서 溪谷을 누비며 놀았으나 동네사람들이 이를 알고 놀려대자 머슴은 部落을 등지고 香爐峰의 「설퍼덩」으로 들어갔다. 몇 달이 지나도록 山으로 들어간 머슴이 消息이 없자 궁금히 여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찾아 香爐峰 中턱을 헤매다가 통나무家을 발견하여 안을 들어다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옷이라고는 걸치지 않은 털복숭이 머슴 옆에는 키가 9尺이나 되는 산사람(山人)이 누워 있는데 그의 모습은 生理的條件까지 女子를 닮았으나 말을 전혀 못하는 女人이었다. 여체의 怪物은 동네 사람들의 놀림에도 反應을 보이지 않았는데 털복숭이 머슴을 가볍게 업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벌거숭이는 그 후 열흘이 못돼 어디론가 영영 사라졌다.

그 뒤부터 이 地方 사람들은 「바보」와 「미화」라는 表現으로 「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當地에서 70餘年 살아왔다는 목격자 金壽培

(1904~)는 전해준다.

31. 彌勒佛岩과 菩薩岩

麒麟面 縣5里 조롱고개(鳥弄玲)에서 3km가량 가벼운 步行을 하면 國道沿邊의 절골과 梧柳洞 두마을 사이의 왼편에 높이 20m 넓이 5m쯤 되는 雄壯한 모습을 보여주는 巖石이 翁립되어 있다.

옛부터 村老들은 마치 서있는 듯 하다 해서 "선바위(선바우)"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이 고장을 처음 지나는 行客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위를 바라보기가 일수이고 隣近 住民에게 이 바위에 얽힌 故事와 傳說을 캐왔다. 저 바위는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설명하면 豈不有明乎아라. 어찌 유명한 岩石에 이름이 없습니까하고 反問한다는 것이다. 두번 다시 물을때 대답할 밑천이 없어서 羞恥感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고장의 精氣를 이어 받고 멀리 他鄉으로 移徙간 사람들이나 혹은 出稼한 아낙네들이 故鄉의 鄉愁를 달래며 주고 받는 이야기에서 "나는 선바위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親庭은 선바위 있는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고 제각기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바위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山 높고 골이 깊은 大自然 속에 위치한 이 바위를 金禹成은 恨歎한 나머지 그 능름한 모습이 彌勒과 같아서 彌勒佛로 改稱하고 丙戌年 3月 1日(1946)에 石工을 불러 私財를 털어 岩石의 벽에다 54字的 글을 새겼고 또 彌勒佛岩서 約 1km 떨어진 절골 어귀에 恰似 僧侶와 같은 岩石이 있어서 彌勒佛을 配匹로 삼아 "보살암"이라고 새기고 每月 4月初8日 釋迦誕辰日이면 아침 일찍 祈禱를 드려왔다고 그 後孫인 光和(1930~)는 전해

주고 있다.

隣近에는 芳東藥水를 비롯하여 韓進士의 不忘碑芳東松林遊覽地가 所在하고 있어 春秋 遊覽客들로 길을 메운다.

▲金禹成(1896~1968)은 芳東에서 태어나 大成釀造場을 경영하다가 왜정말에 排日思想으로 1944年 11月 초순 투옥중 1945年 4月 28日 假釋放된바 있으며 2月 29日 京畿道麗州郡에서 作苦

32. 加里山里的 하우고개

麟蹄邑 加里山里 하우고개(下英山고개 또는 下雨峴)에 얽힌 傳說로 옛날 600여년전 <피래>라는 고장의 주민들간에 사소한 언쟁으로 사람을 죽인 過失致死가 있었다.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쪽과 죽음을 당한 가족 사이에는 잘잘못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관가에서 이 사실을 가리고자 피래를 출발하여 院님께 소송하러 백여리 길을 걸었다. 양쪽 사람들은 서로 적의를 가지고 마을을 떠났으나 백여리를 걸어서 이 고갯 마을에 오르고 보니 서로 피곤하고 기진맥진하여 서로 옆에 앉아 쉬게 되었다. 관가에 까지 가자면 앞으로 갈길이 아득한 데다가 또 사소한 언쟁으로 과실치사를 한 사이이고 보니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혐의한 끝에 서로 和解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고개를 「하우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 이 고개는 麟蹄邑 管内에 第00部隊가 駐屯함에 따라 麟蹄, 麒麟間을 잇는 30Km의 軍用道路가 1972年 開通되었으며 잣바치에서 德積으로 넘어가는 큰고개를 하영고개 또는 하령산 고개라고도 부른다.

33. 芳東 金龍寬과 土城

麒麟面 芳東2里 大谷로 들어서면 雄壯하게 자리잡고 있는 매봉령 (1,095m) 기슭에는 지금으로부터 約100年前 壯士인 金龍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다.

평소에 말타고 칼을 휘두르며 人家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糧食과 술을 掠奪하는 行悖를 즐거운 樂으로 삼고 있었다. 가끔 被害를 받고 있는 70戶의 가까운 곁가리 住民들은 이 元兇의 行悖에 못이겨 70戶의 周圍에 다 土城을 쌓아 防禦를 해왔다 한다.

그러나 '이놈을 언젠가 殺害하고야 말겠다'는 住民들은 智慧를 모은 끝에 交際術에 뛰어난 崔氏를 시켜 먹음직한 飲食과 賂物을 갖고 찾아가 模擬한 그대로 큰절을 올리고 대접하였다. 푸짐한 飲食과 술을 대접받은 이놈은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숲속에 隱身한 곁가리 마을 청년들은 재빨리 뛰어나와 밧줄로 동여매고 불태워 죽임으로서 禍를 면했다 한다.

그러나 壯士인 그의 아들도 차츰 成長하여 1907年 무렵에 있었던 義兵 때에 加擔하므로 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心情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아무런 行悖도 없었다고 當時 芳東2里 석전골(石田村)에 76년간 살고 있다는 金順鳳(1902~)은 昭詳히 알려주었다.

▲곁가리에는 秋氏가 60餘戶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火田整理로 人家가 없으며 다만 土城의 자취만은 찾아볼 수 있다.

34. 芳臺山의 배 닿은 돌

麒麟面 縣里 下馬路는 1908年 7월에 地方의 義兵將인 閔득보가 倭將인 岩元義行이란 자를 칼로 쳐죽인 곳이다.

標高 1,435m의 芳臺山 頂上에 約 2톤 가량 보이는 岩石이 있다. 여기에는 순전히 예전에 釘으로 쪼아 뚫은 구멍이 있는데 옛날 어느 때 대홍수가 났을 때 이곳에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밧줄로 매달았다고 하여 그 돌을 가리켜 "배닿은 돌"이라고 부른다. 마치 그 當時를 立證해 주기라도 하듯 芳臺山 頂上은 平擔하고 바위틈 바구니의 흙이나 모래 속에서 조개껍질이 지금도 出土돼 神奇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 岩石이름을 "배(船) 닿은 돌"로 불리우고 있다.

날씨가 맑게 개인 날 이 山 頂上에 오르면 東海가 肉眼으로 보여 매우 壯觀이며 지금도 頂上에 큰바위 몇 개가 덩굴고 있다고 傳해오고 있으나 실제 踏查하면 찾아 볼 수 없다.

35. 加田里의 개고개

瑞和面 天桃4里에서 北쪽으로 12km지점인 未收復地區인 加田里에 소재하고 있는 그리 높지 않은 고개이다. 中部에서 瑞和里로 가는 고개로 큰 浦가 하나 있는데 이 개(浦)에 얽힌 전설이다.

60年前 加田里 마을에 사는 村老가 술을 마시고 夕陽길을 되돌아오다 고개 밑 잔디밭에 누워 잠이 든 사이 原因모를 산불이 발생하자 따라오던 검둥이 개가 主人을 구출하기 위하여 냇가로 달려가 털에 물을 묻쳐 되돌아 와 잔디를 적시기를 수없이 하여 主人을 불 속에서 살린 뒤 개는 쓰러져 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 고개 밑에는 主人을

위해 죽은 개 무덤이 있다고 한다.

36. 富者가 亡한 大興洞

南面 冠垆里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富者(長者) 金大興에 얽힌 전설이다.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고 있던 金大興에게 하루는 남루한 옷을 걸친 스님이 와서 시주를 청했다. 때마침 외양간을 치우고 있던 그는 『무엇을 줄게 있어야지. 외양간에 있는 쇠똥이나 가지고 가시오.』 하며 쇠똥을 스님의 바랑에 담아 주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이것을 본 며느리는 驚惶失色하여 만류하는 말 『개도 안 먹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 죄송스럽습니다. 등겨(쌀겨)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바가지 주어서 보내지요』 하고 며느리는 그것도 아까워 하는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몰래 쌀을 큰바가지에 가득 뜨고 그위에 등겨를 덮어서 스님의 바랑에 넣어 주었다. 그랬더니 스님이 감동하여 『택에 화가 급습할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업고 나를 따르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 하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스님을 따라 집 뒤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다. 그러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무시무시한 雷聲碧落이 일며 소나기가 퍼부어 큰 洪水가 내려왔다. 집안일이 근심이 된 며느리는 스님의 다짐도 잊고 떠나온 집을 뒤돌아 보았다.

홍수는 이미 집을 뒤덮고 집의 흔적도 없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망연 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마침 스님의 말을 어긴 탓인지 化石化가 되고 말았다 한다.

후세의 사람들은 인색한 부자 金大興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大興洞이라

고 부른다 한다.

現在 大興洞은 昭陽댐 建設로 因한 水沒로 冠堡里 船着場에서 배편으로 2km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金大興家 터였던 자리를 長者귀미라 부르고 있고 그 동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낮은 재가 있는데 그 재 이름을 富巢峴(부자집에 가는 고개)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傳說은 三陟郡 「黃地緣起」 傳說이 바로 그것이다.

37. 麒麟北里의 麟鳴谷

아득한 예전에 北里의 어느 골짜기에서 개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짐승이 밤마다 시끄럽게 울었다고 한다. 그 動物이 恰似 麒麟처럼 생겼다 하여 지금의 “麒麟” 이라는 이름이 命名되었다고 전한다.

이 골의 길이가 4km이상이나 되며 옛날 사람은 사슴이 100년 이상 묵으면 麒麟이 된다고 믿은 하나의 土着科學에 緣由한 까닭으로 이 골짜기를 가르며 麒麟이 울었다 하여 麟鳴谷이라고 불려오고 있다. 또한 이 골짜기에 位置하고 있는 “장수바위” 에는 李朝末葉 名將들이 漢陽에서 嶺東 地方으로 넘어 갈 때면 들러서 自然을 謳歌하고 놀다 가곤 했다고 하나 時代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옛 傳說을 反芻해 볼뿐이다.

38. 瑞和 天桃里

瑞和面 所在地인 天桃 4리에 얽힌 전설이다.

먼 옛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것을 본 마을의 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생각해서 복숭아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한다. 그랬더니 그곳에 집을 짓고 산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富者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지 몇 해 가지 않아 이곳에 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웃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로부터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天桃里라고 불렀다 한다.

▲ 元來 瑞和面の 所在地는 瑞和里 堂村이나 民間出入 統制線 設定에 따라 收復 後 天桃里를 所在地로 定하고 현재에 이른다.

39. 貴屯里의 龍沼

麟蹄邑 貴屯2리에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龍馬가 바위에 서 울고 없어진 뒤로 자연소(沼)가 생겼으며 깊이 약 600척으로 짐작되고 지금도 비가 2-3일 계속 오면 용마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개를 잡아놓으면 급작스럽게 날씨가 흐리며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 한가한 산중의 野話가 이곳을 처음 찾는 이의 귀를 솔깃하게 해준다.

제 4 장

향적마음

거니고개

한용운

우리가 언제부터 지명(地名)을 사용해 왔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고서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年代國都不可考”라 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삼국 시대의 지명은 우리말에 한자를 빌어서 사적(史蹟)이나 향가식(鄉歌式)문자로 표시하였다. 경덕왕(景德王)때에 이르러서 모든 지명을 한자로 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세 조선에 와서는 “世宗實錄地理志”와金正浩의 “大東輿地圖와 大東地志”에 각각 8,129개의 지명, 그리고 2만개 이상의 지명을 수록한 것으로 통계자료에서 그 수치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 후에 일본이 토지 수탈 목적으로 지명을 변질 시켰다. 해방 후 한자 교육 폐지에 따라 지명에 대한 혼용과 오용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오면서 겨우 1958년 5월에 이르러서야 지명제정 위원회가 중앙과 지방 읍·면간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모든 지명의 사용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차츰 이름 지어진 지명 거의 대부분이 한글식으로 명명(命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공산당 압제에 못이겨 함경남도 영흥군 요덕면 대숙리에서 월남했었다. 그리고 정착하였던 곳이 바로 거니고개 아래부락(웃마을) 어론리(於論里)였다. 이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었다.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살았으니 근 15년간이나 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던 곳이다.

於論里는법적으로 본래 南面지역으로서 1916년 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탄(禾呑)리를 병합하여 於論里라 하였다. 이 동리에 1959년 당시에는 15가구 58명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어떤 책자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 당시만해도 60여 가구가 넘게 살았었다. 이 동리 사람들 중에 늘 말다툼이 많고, 또 터가 센 곳이라 하여 於論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44번 국도로서 어론 남쪽에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가 바로 거니 고개인 것이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간인현(良寅峴)이라 하였으며, 이조시대에 고개 아래에 건이원(建伊院)이라는 원 집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고개가 낮고 원만해서 “놀기로는 인제 합강정(合江亭), 넘기 좋기로는 於論 거니고개”라는 노래가락도 있었다는 말만 전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거나 그 후(後)로 이어지는 가사말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또 다른 말로 거니고개를 건이치(建伊峙), 또는 건이치(市伊峙)로 표기되어 있는 옛 문헌도 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니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에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여 건이(建伊)골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좌측으로 깊은 산골짜기는 있으나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다만 골이 깊으므로 큰 가뭄에도 개울물이 마르는 경우가 없었다. 봄이면 나물캐는 사람, 가을이면 친구들이거나 이웃집 누나, 형들을 따라서 그 골짜기에 들어가 머루며 다래 등 산열매를 엄청나게 따왔었던 기억이 새로울 뿐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삼라만상이 고요한 山河에는 굵은비가 내리고 있었다. 04:00 운명의 북괴군 공격개시 조명탄 신호가 밤하늘에 포물선을 그리자 38도선 북쪽에서는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것이 이

나라 5천년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민족상잔의 폭풍을 휘몰아온 한국 전쟁의 시초였다. 당시 육군 제6사단은 춘천에 7연대, 홍천에 2연대를 배치했었다.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원주에 집결하고 있었다. 6월 28일 제2연대는 어론리를 중심으로 한 좌,우의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연대장 咸炳善대령은 거니고개를 중심으로 한 방어진지의 사수를 위해 북괴군 전차 폭파 특공대를 20명을 선발, 10명씩 2개조로 로켓트 포8문으로 적의 전차 10대중 2대를 완전 폭파시키고 나머지를 사용 불능케하여 퇴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한국전사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전파되었던 북괴군 전차가 그 후 오랜 세월동안 거니고개 우측 산비탈에 방치되어 있다가 고철로 해체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6.25사변이 나고 인민군이 들어오자 미처 피난가지 못했던 마을 젊은 사람들은 야밤을 이용해서 화탄리와 옛날 건이골이라고 하던 산골짜기로 모두 숨어 들었다. 그리고 노인네와 나이 어린 아이들만이 그런대로 집을 지키며 살았다. 필자의 친구 중 그 당시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송병철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애는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배나무골 작은 언덕에서 살았다. 그 병철이 아버지가 당시 마을의 인민위원장 직분을 맡았었다. 어느날 우리집 황소를 인민군에게 공출(供出)하라는 통보가 와썬다. 어찌 할 수가 없어 나와 병철이가 그 아버지에게 손이 다 닳도록 애걸복걸 빌고 빌어 그 황소를 살린적이 있었다. 그 후로 얼마 안가서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쫓기기 시작했었다. 웬일인지 북쪽으로 미처 가지 못했던 병철이 아버지가 청년단원에게 붙잡혀서 마산이라고 하는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총살되는 광경을 병철이와 둘이서 먼 풀밭에 숨어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야 친척이 된다는 낯선사람이 홍천에서 왔다고 하면서 병철이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까지 그 병철이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1968년 봄으로 기억되는 대 사건이 바로 이 거니고개마루 정상에서 일어났었다. 당시 우리 국군 2개사단이 국방군과 인민군으로 편을 갈라 00작전 훈련을 흥천과 인제지역에서 실시했었다. 인민군으로 가장한 군인들은 복장과 군장비 일체를 인민군과 비슷하게 위장을 했었다. 당시 고개를 넘어 인제 방향으로 급히 후퇴하던 인민군 탱크 한 대가 웬일인지 고개마루 정상을 오르는 순간 고장이 나면서 이내 탱크에 불이 났었다. 그리고 이내 포탄과 실탄이 터지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때에 그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필자와 친구 4명은 고개마루 좌측 방공호에 들어가 진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근 5시간동안이나 죽치고 구경을 했었다. 사실은 얼마나 무섭게 포탄이 터지고 파편이 날라드는지, 그저 무서워서 움썅달썅도 못하고 저녁 늦은 밤이 다 지나도록 배만 졸졸 끓었던 것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5학년 당시 단짝친구 향순이는 동갑내기였다. 그 애의 얼굴과 마음이 얼마나 예뻐졌던지 그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눈물을 찔끔거릴 정도로 볼 보조개까지 참 예뻐었다. 그애 향순이는 공부는 별로였지만, 노래 부르기만은 정말 기똥차게 잘했다. 그 향순이의 어머니는 어론리에 미군보급품 기지부대가 주둔했을때에 이사온 양공주 출신으로 몇 년전에 목쓸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해 봄 어느날 어린 향순이 하나만을 달랑 남겨 놓은채 죽고 말았었다. 진달래 꽃 울긋불긋 곱게 핀 이 거니고개 양지바른 둔덕 한켠에다 동네분들이 향순이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며 장사 지내던 날 우리들은 무덤가에 쪼기르고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때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 향순이를 생각하면 왠지 왈각 울고 싶은 마음!
이 푸른 하늘 아래 그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살만큼은 사는지?
그저 그립기만 하다.

가넷 고개

한용운

구름,
바람이여!

억겁으로 흐르고 흘러간 세월의 띠를 푸르게 둘렀던 그날들은 어디로 갔는가? 내 유년 속으로 흘러가 버린 기억 저편 고개 너머로 아득하면서도 보일듯한 옛 좁은 고갯길을 오늘도 홀로 오르며 가만히 물어 봅니다. 잊혀간 그날들을 앞세우고 목매기 송아지 “음매 음매” “음매 음매” 우는 울음소리따라 짙레순 저름 저름 씹어 빨으며, 고개를 넘으시던 할배는 저 기룡산(起龍山) 낮은 산자락 끝에 말없는 무덤으로 누우신지 수십년이 넘었는데……

옛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麟蹄)가서 원통(元通)이 어디냐고, 원통가면 인제를 아느냐고” 그렇게들 물었다는데, 지금은 대답할이 그 아무도 없다. 웬지(?)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고 원통해서 나뭇살 켜네” 한(恨)서린 냇두리만 하시다간 먼저 가신 선님(先任)들의 생각

이 간절하다. 그 옛날 풀뿌리, 칙뿌리, 소나무껍질로 굽주림을 씹어삼킨 보릿고개! 60년대에 이 가넷고개를 넘나들었던 외지의 많은 사람들도, 이곳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었던 장병들도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어찌나” 라고 인제땅을 저주했으리라. 물굽이 흐르따라 흘러간 그날들을 잃어버린 내린천(內麟川)은 오늘도 도도히 구름발을 엮어 가 없는 하늘 강가에 뗏목을 띄웠던 날의 아득한 꿈을 꾸는 듯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굽이 굽이 산굽이를 돌아가는 길센마다 배시시 얼굴 내민 풀꽃 향기 따라서 넘어가는 가넷고개, 흘러간 노랫가락이 어디선가 저절로 들리는것만 같습니다.

피안(彼岸)의 사선(死線) 7부능선에 흠뻑렸던 무명용사의 붉은 피를 알고나 있는지? 해마다 진달래, 철쭉꽃은 피명울로 눈물을 지운다. 어느 아낙의 눈물처럼 싸리꽃은 그날의 진혼(鎭魂)의 녀으로 날마다 저녁 노을을 붉게 태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높은 고갯길로 요란한 엔진소리 양칼진 날을 세우듯 짙은 매연 꼬리 꼬리에 버스가 뒤따라 넘어간다. 이따금 군인 트럭도 넘어가고, 소형차들도 분주하게 넘어가는데, 덩달아 바람도 넘어갑니다. 몇 년전만 해도 이곳 높푸른 하늘 기룡 샘가에는 맑은 샘물이 졸졸 속삭이듯 흐르는 날도 있었던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마냥 외롭게 서 있는 시비(詩碑)하나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는지? 그날이 이미 흘러갔어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그렇게 우두커니 서있었던다. 가넷고개를 넘어오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거의 모두가 박인환(朴寅煥)이라는 인제의 향토시인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모른다는 말뿐이요, 이 안스러운 마음 어이하리!

구름이여 바람이여

가넷고개 너머로 구름같이 바람같이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이 가넷고개를 이야기 하자면 우선 인제읍 남북리와 남면의 남전리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제 남북리에서 고개를 넘으면 남전리요, 남전리에서 또 고개를 넘어오면 남북리로, 인간 생존이래 수도 없는 역사의 발자취를 잇는 곳이다.

고개를 넘다보면 고개마루에 “가넷고개” “군축령(軍築嶺)이라는 표석(標石)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축령은 군부대에서 많은 군인들과 군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였다하여 1958년 12월에 명명(命名)되었다고 한다. 이 도로의 포장확장공사 이전에 현차도 우측 산 모퉁이 굽이 굽이 따라 낸 비포장 도로가 있었다. 이 길이 그 옛길로서 선인(先人)들의 한많은 애환이 굽이굽이마다 서려 있는 최초의 44번 국도였던 것이다. 이 고개를 거의 다 내려가면 가로교(加路橋)가 나온다. 일명 가넷다리라고 불렀던 이 다리는 1964년 12월에 놓았던 목조교(木造橋)로 소교량이었던 것을 1972년에 길이 390m, 넓이 8.5m의 대량교로 건설하고 군축령밑에 있었다하여 군축교라고 하였다.

인제를 대변할만한 명산으로 아미산(峨嵋山)이 있다. 이 산은 인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이 매우 아름답게 빼어나 1990년 2월 19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아미산 공원내에 인제 군민의 자랑이며, 긍지를 갖게하는 박인환 시인의 시비가 1988년 10월 29일 군민의 성금으로 세워졌었다.

지금은 가넷고개 터미널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인제읍 합강정 한곳에 박인환 시비를 옮겨 놓았다. 세인들이 잘 아는 민족 시인이자 인제가 낳은 향토시인 박인환은 우리나라 격동기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31세라는 꽃다운 젊은 나이로 요절했었다. 그가 남긴 수십편의 작

품들은 국민 모든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어놓았다고 할 것이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은 애정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서 인제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문협인제지부”는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활짝 꽃을 피우지 못한 시혼(詩魂)을 달래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이면, 박인환 시인 추모 백일장을 그의 시비가 있는 곳에서 개최하고 있다.

가넷고개에서 남전리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좌측에 “충혼비”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비의 전면에는 “1977년도 전국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대 표창 수여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1978년 2월 8일 서울로 향하던 모범 용사가 불의의 차량사고로 이곳에서 산화되었기에, 고인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을지부대 장병들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라고 쓰여 있으며, 산화한 12인의 명단이 적혀 있어 오고가는 이들의 눈길이 머물던 곳이었다.

또 남북리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작은 길이 나있다. 100여m 정도 더 들어가면 경로정(敬老亭)이 나온다. 이 경로정 내에는 1967년도에 건립한 장병추도비(追悼碑)가 세워져있다. 이 장병추도비는 육군 3군단장 오덕준 장군이 거북이 등에다 자연석을 세운 석비로 6.25사변 전투 당시 중동부 전선에서 북괴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슬처럼 산화되어간 무명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비이다. 전면 석각에 “향로봉 남강 기슭은 옛날 옛물이로다. 눈보라 치던 날 처참한 싸움터에 쓰러진 전우들의 옛 모습은 간곳이 없도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는이로 하여금 자연히 머리를 숙이게 한다.

이 가넷고개 밑 터널로 밤낮 할것없이 수도 없는 차량들이 서울에서 속초로, 인제에서 서울방향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넘나들고 있다. 이제 머

지않아 이 가넷고개도 그저 옛 이름 그대로 하나의 명물로 남아 있으
라고 본다.

이 “가넷고개”란 지명이 언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명명(命名)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주변에서 이 지역의 땅 모양새, 위치, 색상(色相), 기후, 산물, 교통관계 등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지정되어 전래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요 근래에 고개 밑 터널공사가 완공이 되므로서 이 터널의 이름을 “가넷터널”로 명명하고자 하였으나 “가넷”이란 말이 일본식 이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제터널”로 이름했다는 그러한 주장이 향간에 나돌고 있다. “가넷”이란 어휘는 일본어로서 “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이 고개에 광석이 많이 나므로해서 일본인들이 “가넷고개”라고 불렀다는 증언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어느것이 정설인지 판단이 가지 않는 것이다.

“가 넷 고 개 !”

구름이여, 바람이여!

*그 옛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이제와서 또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바람같이, 구름같이……*

거북바위

최광윤

태산준령에 기대서 언덕만큼이나 나지막한 산이 ‘양지마을’ 을 감싸고 있다. 족히 이십여 채는 될 성 싶은 농가들이 문전옥답을 앞에 두고 오순도순 앉아 있다. 김씨 부부의 집은 좌청룡 우백호를 두루 갖춘 한일자기와집 고택으로 누가 보더라도 평온한 기운을 느낀다. 뒤로는 소나무 야산이 누워있고 왼쪽에는 실개천, 오른쪽에는 바위언덕이며 앞으로는 평퍼짐한 들판을 헤치고 ‘덕천(德川)’ 이 흐르고 있다.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김씨의 몇 대 조상은 끼니걱정을 할 정도로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시주 스님이 들었다. 이 댁 떠느리는 통 크게도 저녁을 지으려던 좁쌀 한 되를 몽땅 털어 시주했다. 스님은 그 대가로 오랍들이를 돌아보기를 청했다. 마당에는 거북이 형상의 바위가 옆산을 결눈질하고 있었다. 스님의 손이 그 거북이를 가리켰다. 거북이의 머리가 부엌을 향하도록 고쳐 놓으면 300년 정도는 재물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면서 홀연히 사라졌다. 저녁때 밭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기가 무섭게 그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스님의 말대로 거북바위를 돌려놓았다. 그 후부터 이 집안은 꿈쩍만해도 재물이 모였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온 지 얼추 300년이 넘었다. 김씨가 장손으로 여섯이나 되는 동생들에게 고루고루 논밭이며 산야를 나누어 주고도 꽤 많은 농토를 깔고 앉은 것은 다분히 조상 덕이었다. 김씨는 한 살 연하의 오씨를 스물일곱 살에 아내로 맞이하여 쉰 두 살을 갓 넘긴 지금, 위로는

노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일남일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사내아이는 대학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고, 두 살 아래인 딸아이는 대학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굴지의 건설회사에 어렵게 취업이 되었으나 장손은 터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부친의 집요한 권고에 따라 집을 떠나지 못하고 일찌감치 영농에 뛰어들었다. 그러저럭 농사일에 빠져들 무렵, 군 4-H연합회장을 맡아 산나물 프로젝트에 매달리면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달콤한 사랑에 취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향은 무시하고 덤석 결혼을 서두른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일 수 있었다. 김씨 내외는 결혼해서부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오로지 아이들의 대학진학에 심혈을 기울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촌에서 땅마지기나 있긴 하지만- 등록금은 물론 하숙비와 책값에다 심지어 용돈마련에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인생의 희비를 떠나서 잠시나마 자신들의 육신을 어루만질 여유도 없이 김씨 부부는 아이들만 쳐다보며 해바라기처럼 살아온 거였다. 사내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뜯어 쓰게 되어서야 이 부부에게 살금살금 삶을 되새김질 할 여유가 피어났다.

김씨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빈틈없는 성격인데 반하여 아내는 현실에 안주하고 단순하면서도 낙천적인 데가 있었다. 어떤 사람의 인생관은 권력이나 부 혹은 사랑의 유혹 보다는 미래와 현재 중 어느 편을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다. 피끓는 청춘의 불같은 사랑 앞에서는 마지못해 숨어버린 각자의 특이한 삶의 자세는 중년을 넘어서면서 점차 윤곽을 드러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괴물로 변해 상대방에게 아무 곳에서 아무 때나 공격의 칼날을 세우기도 하는 법이다.

재작년 2월이었다. 딸아이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고집하며 어학원 등록금에다 숙식비까지 큰 금액을 요구했다. 은행 구좌에 영농자금으로 남겨

놓은 2,000만원에다가 쌀을 내다 팔고 이것저것 걷어 모아 딸아이의 손에 그 돈을 쥐어주고 나니 가게부 잔액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후 열흘 쯤 지났다. 난데없이 단체 관광을 간다고 온 동네가 들떠있었다. 부부 동반하여 태국을 돌아본단다. 저녁상을 앞에 놓고 김씨 부인이 말을 꺼냈다. “여보, 이 번 관광에 빠지는 집은 없어야 한대요.” 김씨가 수저를 들다 말고 되받았다. “그 얘기가 당키나 해요?”

“국내 관광보다 싸답디다. 태국이요.” “얼마씩인데?” “부부동반으로 4박5일에 100만원이랍디다.” 남편은 여기서 가타부타 말을 끊었다. 또 다시 며칠이 흘러 동네에는 그야말로 태국관광의 열풍에 휘말렸다. 저녁상을 물리고 할머니는 말도리 가시고 두 부부만이 앉아있었다. 이번에는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풀었다. “이제 관광비를 내야 한대요. 이달 말까지.” “무슨 돈으로? 포기해요.”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개도 쇠도 다 간다는데 왜 못 가는 거예요?” “당신 생각해 봐요. 우리한테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영숙이 해외 연수비 주고.” “카드 있잖아요. 분할 납부하면 되지요.” “분할 납부하면 누가 돈을 거저 준답디까?” 김씨의 얼굴에 파리한 노여움이 스쳐갔다. “알았어요. 걷어 칩시다. 내 팔자에 무슨 관광?” 이렇게 태국관광은 서로 마음의 상처만 주고 일단락 됐지만 설상가상으로 어디서 관광얘기를 듣고 온 노모를 주저앉히는 일은 참 난감했다. “애들아, 옆집 할멈도 아들내외와 함께 태국 간다더라.” 부인은 고개를 외로 틀고 앉아 침묵했다. 옆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김씨가 마지못해 나섰다. “어머니, 다음에 가시면 안되나요? 지금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평소 시어머니는 아들과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를 들볶았다. 부인은 이러한 시어머니에게 이골이 났고 그 처방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미역국의 효능을 믿었다. 적어도 노인들에게는 잡숫기 쉬운 만큼 속이 편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미역국만한 것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몇

변을 사양하다가 마지 못한 채 미역국 한 사발에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우시곤 했다. “게을러 터져서, 평생 설거지 제때 하는 걸 못 봤구먼,” 부인은 대꾸를 포기하고 어김없이 점심에 미역국을 끓여 상에 올렸다. “어머니, 미역국이 구수한 게 참 좋네요.” “됐다. 어머이나 실컷 먹어라.” 결국 시어머니는 그 날 점심상을 건드리지도 않은 채 물렸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은 태국관광을 다녀왔다. 어디 달나라에라도 갔다 온 것처럼 모여 앉으면 여행추억을 되살렸고 이럴 때마다 김씨부인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곤 했다.

그해에도 봄은 곱게 찾아왔다. 김씨가 친구아들 결혼식에 간 어느 날 부인은 시어머니와 거북바위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다. 마당가엔 살구꽃이 만발하더니 복사꽃이 피고 이어서 앵두꽃이 하얗게 웃었다. 뜰이 꽃향기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에게 바나나를 가져다 드렸다. 부인은 언제나 장날엔 시어머니의 간식으로 바나나를 한 다발 씹 산다. 며느리가 껍질을 벗겨 건네 준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고 그걸 삼키기도 전에 비아냥거리셨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희들도 늙어봐라. 그래야 내 맘을 알게 될 거다. 내가 관광을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아니다. 그저 한 번 해본 소리지.” 짧은 몇 마디 말이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씀이었다. 이럴때면 김씨 부인은 슬며시 친정어머니를 떠올렸다.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린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군말 없이 수발을 드는 올케가 안되 보이긴 하지만 손이 안으로 굶는다고 친정어머니가 더욱 가여웠다.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편한 세상 한 번 못 보고 노년에 그런 몸쓸 병에 시달리는 그 분의 인생은 김씨부인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왔다. ‘그래도 나야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올케보다야 훨씬 낫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크게 잡아 10년 내 외시지. 돌아가시면 다 후회되는 일이고 말고.’ 김씨부인은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하면 그 해결책으로 체념을 끌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

다. 그해 10월 4일, 읍내 장날이었다. 태국 관광이 몰고 온 회오리는 잿아들고 시어머니의 성화도 누그러져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김씨부인은 동네 아낙네들과 어울려 장터를 돌았다. 딱히 뭐 살 것도 마땅치 않아 이면수 두 손과 시어머니에게 드릴 바나나 한 다발을 사 들고 무심코 또래 아낙을 따라 가전제품 가게에 들렀다. 김씨부인이 여기 저기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에 최신형 세탁기가 눈에 잡혔다. 견물생심이라고 불현듯 집에 있는 구형 중고세탁기를 이참에 갈아치울 생각을 품었다. 구입한지는 5년이 됐지만 그런대로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요즘 들어 도중에 정지를 하거나 소위 ‘짤순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손으로 일일이 빨래를 짜내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날 오후 김씨가 밭에서 일하는 동안 새 세탁기는 용달차에 실려 집으로 무사히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 날 밤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 9시 TV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 부인이 슬쩍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오늘 저드래 한번 쳤어요.” 김씨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부인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물었다. “무슨 일?” “세탁기를 샀지요.”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춰 놓 돈이라도 있소?” “6개월 월부로 했어요.” 김씨의 음성이 흔들리며 야유조로 변했다. “월부는 안 갚아도 돼요? 아니면 ‘고스뎁’ 해서 물어 줄 거요?” “내가 30여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맘대로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난 이집 식모가 틀림없구먼요.” “당신이 식모면 난 머슴이지 뭐요? 그런 얘기 말아. 정말 불쌍한 건 나지 당신이 아니야. 세탁기가 망가졌으면 고쳐서 쓰면 되지. 우리 집이 뭐 재벌이라도 됩니까?” “나 참 말을 말아야지. 세탁기가 무슨 사치품이에요? 생활필수품일 뿐이잖아요.” 언제나 경제적인 면에 이르면 두 사람은 마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논하는 토론장에 참가한 학자처럼 적나라하게 이등분됐다. 이런일은 자녀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부인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율에 맡겨서 키우자는 것이고, 김씨는 아

이들이 장래에 잘 살려면 지금부터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였다. 두 사람의 신념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 이상적이기도 하겠지만 갈등을 일으키면 봉합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보였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다. 그 아이는 전교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재였다. 한 학기가 가고 2학기의 9월에 들어서서 연합모의 고사가 있었다. 이 부부는 당연히 성적이 다섯 손가락 내에는 들으리라 믿었건만 의외로 그 등수 밖으로 밀려 나갔다. 성적표가 집으로 통지된 날 밤, 김씨는 딸아이의 예상을 벗어난 성적에 대해 부인과 논의하고 싶었다. “여보, 일 낫잖소? 곧 입시가 다가 올 텐데.” 부인은 태평한 표정이었다. “이제 영숙이도 열아홉 살이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것 아니오? 뭐 생각이 있겠지요.” “생각이라, 아직 보통교육을 받고 있는 철부지요.” “일단 두고 봅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저 지경인데, 딸아이 또한 뭐 다를 바가 있겠소. 자식이 잘못되면 후에 부모가 고생한다구요.” “어쩌다 한 번 성적이 그리 됐구만요. 여보, 영숙이 믿어 보자구요.” “괜찮은 수도권 대학에 갈려면 밤새워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성적 가지곤 어렵도 없어.” 그러던 차에 딸아이가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풀이 죽어 집안에 들어섰다. 김씨가 일어나서 아이를 불러 앉히려는 순간 어느 곁에 부인이 재빨리 일어나서 아이를 맞았다. “왜, 성적이 떨어져서 그러니? 괜찮다. 원래 성적이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법이지. 시험도 운 없는 날이 있는 거야.” 김씨는 속에서 부아가 치밀었지만 아이 앞에서 부인과 다투는 추태를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세월이 가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하루가 멀다하고 부딪쳤고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날에는 부인은 편파적인 시어머니의 질책을 감수해야 했다. 두 부부의 갈등이 극한을 치달은 사건이 일어난 건 올 봄이었다. 서울에서 투기꾼이 ‘양지말’ 까지 찾아들었다. 집 마당에서 마주보이는 앞산

골짜기와 ‘덕천’ 이 맞닿는 곳에 김씨네 밭이 3,000평 있었다. 특히 그 밭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와 가로로 흐르는 ‘덕천’ 과 합수되는 계곡수는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인가는커녕 인적조차 끊어진 이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바위를 뚫어 폭포를 이루면서 너래 반석을 타고내리고 황철나무 물푸레나무가 하늘을 기어올라 원시림을 이루었다. 이 밭엔 김씨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콩밭을 매는 날이면 어린 김씨는 이 계곡에서 가재를 잡았다. 돌맹이를 들쳐 내고 한참을 기다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가재란 놈이 엉금엉금 물 가장자리로 기어 나왔다. 보통 때에는 두세 마리가 고작이지만 운 좋은 날에는 대여섯 마리가 떼를 지어 나올 때도 있었다. 그 놈의 커다란 두 집게발을 피해 허리통을 움키는 일은 일종의 스킬이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감도의 스킨십 이었다. 봄이 되어 파릇파릇 새싹이 돋으면 할아버지는 밭갈이에 나섰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암소 한 쌍을 앞에 세우고 할아버지가 구성진 밭갈이 소리를 계곡에 쏟아놓으면 김씨는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어댔다. “이라, 어 마라.” “뿔릴리, 뿔릴리.” 할아버지의 밭갈이 소리와 손자의 버들피리 소리는 앙상블을 이루고 계곡 메아리가 추임새를 넣으면서 노란 봄날은 구름 속으로 흘러갔다. 이 땅을 억수로 많은 돈을 줄 테니 팔라는 거였다. 3억원을 제안했다. 김씨는 일언지하에 거절 했으나 부인은 그럴싸했다. 그날 투기꾼은 다음날 다시 들를 거라며 일단 돌아갔다. 잠자리에서 부인은 남편을 다그쳤다. “팝시다. 거기서 뭐 나올게 있다고 망설입니까?” 김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래의 땅이오. 두고 봐요. 지금 당장은 별로겠지만.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조상님의 얼이 서려있고 내 추억이 자란 곳이에요.” “민식이가 농사 진답디까? 그 돈으로 시내에 장사 터를 사서 세를 주면 더 낫겠네요. 그리고…, 저, 솔찍히 우리도 돈 좀 쓰고 삼시다. 소문난 김씨네 장손집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아 참 기

가 막혀. 뭐라고요?” 이 말이 몰고 온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첨예한 대립은 승패가 나지 않고 지루한 두 사람의 기싸움으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화근을 만들고 말았다. 다음날 투기꾼들은 점심때가 채 안되어 다시 거실로 들어섰다. “1,000만원을 더 얹겠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내 저었다. “안 팝니다. 돌아들 가세요.” 마침 찻잔을 나르던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참견을 했다. “여보, 팝시다.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얘기는 여기에서 멈췄지만 김씨의 차가운 시선이 부인의 얼굴을 훑는 동안 부인의 얼굴은 온기를 잃고 돌처럼 굳어졌다. 김새를 살피던 투기꾼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중 한명이 얼굴에 일그러진 웃음을 삭이면서 들어 보라는 듯 헛바닥을 꼬아 획 말을 던졌다. “누가 와서 팔라고 사정해도 5억 이내론 팔지 마시오. 참 기막힌 땅입니다.” 순간 부인의 얼굴에 전광석화 같은 놀라움이 지나갔지만 김씨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어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온 채 무표정이었다. 투기꾼들은 물러가고 부부만이 남아 차가운 시선을 방바닥에 묻고 있었다. 한참 만에 부인이 한숨과 짜증을 섞어 말했다. “그 엄청난 액수를. 호기를 놓친 거예요.” “옛 먹이려는 수작을 당신이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이야.” “왜 사람이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에 남편이 버럭 소릴 질렀다. “당신이 뭘 안다구. 그들은 투기꾼이야.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사요.” “설사 투기꾼이면 어때요? 값만 잘 주면 그만이지. 당신처럼 재털 뽑아 제 구멍에 박아서야.” 김씨가 평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부인이 서슴없이 내 뱉은 거였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김씨가 눈을 부라리고 손을 번쩍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부인이 한마디 더 던졌다. “왜, 내말이 틀렸오? 나니 당신하고 여태 살지, 똑똑한 여자 같아 봐요?” 김씨의 손바닥이 부인의 뺨에서 연거푸 두 번 씩이나 굉음을 내며 튕겨져 나왔다. 부인의 울음 섞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더 때려, 어디 실컷 때려봐.” 다음 날 아침

이 되어도 두 사람이 스스로 화해할 기미는 엿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처에 누가 이 내외를 화해시켜줄 사람도 없어 갈라진 상처는 응급치료도 안 된 채 굼아가고 있었다. 그날부터 부부의 잠자리는 아랫방과 윗방으로 나뉘었다. 사실상의 별거가 시작되었다. 끼니때만 노모를 의식해서 안방에 모여 밥을 먹었으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번갈아가며 부부 중 한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어찌다 두 사람이 밥상에 같이 앉아도 말은 고사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7월에 접어들은 어느 초저녁에 남편이 윗방의 부인을 불러 내렸다. 김씨의 음성은 의외로 멍멍했다. “우린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소? 어찌해야 좋겠소?” 부인은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이 순간만은 숨을 한번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럼시다. 이젠 아이들도 다 이해하겠지요? 단지 어머니 뵙기가 좀…” 이 날 저녁 두 사람은 몇 가지 구두 합의에 이르렀다. 7월 중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부인에게는 중당자리 열여덟 마지기를 떼어 주기로 했다. 또 두 사람은 언젠가 날을 정해 좋은 인상으로 읍내에서 이별주를 나누고 할머니에게는 헤어지는 날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언약했다. 서로의 마음속은 어찌 몰라도 걸으론 요즈음 신세대의 이혼 세태와 다를 바 없이 화끈해 보였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른 한 쌍이 상대방에게 크게 양보하고 살아가지 못할 바엔 차라리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을 새로 만나 새 출발을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부도 도저히 메우지 못할 큰 틈새를 확인했다면 아까운 세월만 덧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결심이 필요했다. 쌍방간에 새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세월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럴수록 좋은 것 아닌가! 뭐,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저런 이유로 명색만 부부지 실제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지만 두 사람의 경우에는 각자의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2006년 7월은 평년에 비해 월 초부터 후덥지근했다. 맑은 하늘에 뿌연 연무는 본격적인 짙통더위를 암시했다. 너나없이 나른한 날씨에 긴장을 풀어놓았고 성급한 바캉스 족들은 나들이를 시작했다.

7월 15일이었다. 전날부터 ‘오다 그치다’ 를 반복하던 비가 조반을 먹고 나서는 제법 즐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마침 비 오는 날이라 별로 할 일도 없어 김씨는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러갈 생각을 했다. 장마동안의 눅눅한 날씨 탓에 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해충이 법석을 쳤다. 김씨 트럭이 읍내 로터리에 당도 했을 때 엄청난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파쇄 할 것처럼 쏟아졌다. 김씨는 간신히 농협창고 공터에 차를 들이 밀고 운전석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다.

요즘 김씨부인은 착잡한 마음을 억지로 구슬려 차근차근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날도 조반상을 치우고 찬장을 닦은 후 장롱의 소소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긴 한숨을 연거푸 쉬었다. 장롱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이들 옷가지를 보고는 결국 흐느끼고 말았다.

김씨 부인은 장롱 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방바닥에 팔을 베고 누웠다. 눈을 감으니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이제 와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해 봤지 소용없었다. 며칠째 명치에 붙어 풀떡이던 불덩이가 이때 막 심하게 요동을 쳐댔다. 앞가슴을 풀어 헤쳐 놓아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출입문을 열어젖히는 찰라 엄청난 폭음이 집채를 흔들었다. 놀라 밖으로 공중 튀어 나왔다. 성난 황토 물결이 나무등걸과 바위를 동반하고 노도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하늘과 땅이 서로 들어붙어 구별할 수 없었다. 하늘의 은하수 강물이 ‘양지말’ 로 물길을 돌린 듯 일 초의 여유도 한 점의 여백도 없이 빗줄기는 지면을 강타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신이 살아야 한다기보다는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났다.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큰 눈을 멀거니 뜨고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이미 공포가

검은 눈동자를 남김없이 삼켜버리고 군데군데 붉은 실핏줄로 얽어맨 흰자위가 동작을 정지한 채 엉켜있었다. 시어머니를 들쳐 업었다. 짚단처럼 가벼웠다. 엉덩이를 받쳐 올렸을 때 아드득 소리가 났다. 입만 살았었지 뼈는 끈기를 잃었고 살은 기름기를 유실했다. 마당을 지나 텃밭 가장자리에 아름드리 밤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다. 매년 생밤을 몇 말씩 따내는 나무였다. 밤나무를 향해 사력을 다하여 달렸으나 몇 십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뒤에서는 ‘우당탕’ 소리가 연속적으로 고막을 훑어 내렸다. 어른 키로 한 길 정도 높이에서 가지가 세 갈래진 밤나무 수간(樹幹)에 시어머니를 얹혀놓고, 머느리가 막 오른쪽 다리를 마저 나무 위로 끌어 올린 순간, 뿌리 째 뽑힌 엄청난게 큰 생소나무가 그녀가 섰던 자리를 치며 흘러갔다.

시어머니 등 뒤를 파고 들어가 시어머니와 나무줄기를 싸잡아 안았다. 자신의 블라우스를 벗어 시어머니 어깨에 둘러 드리고 불을 맞댔다. 두 사람이 차지할 공간이 너무 비좁아 두 다리를 밤나무 밖으로 내려놓았다. 양발은 이미 물이 차올라와 발뒤꿈치를 흔들어댔고 비는 더욱 줄기차게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했다. 밤나무가 휘청델 때마다 마치 갓난아이를 안듯이 시어머니를 더욱 힘주어 안았다. 껍질을 흘랑 벗은 통나무들이 끊임없이 계곡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바위 구르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집 앞을 가로 지르는 도로 저편에선 승용차 한 대가 멈추어 섰고 두 사람의 승객이 차문을 열기도 전에 물에 쓸려 내려갔다. 마치 유람선처럼 흔들거리면서 뒤통뒤통 하류로 사라졌다. 천지개벽이었다. 말로만 들던 노아의 방류였다. 짐채가 앞으로 기울며 할머니 방의 바깥벽이 흔들거렸다. 서너 개의 기둥이 빠져나가더니 지붕이 한 쪽으로 쓸려 기왓장들이 물줄기 속으로 흘러 내렸다. 이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한숨 한번 쉬는 시간이면 족했다.

김씨는 강 건너 ‘음지말’ 에 트럭을 세우고 ‘양지말’ 을 건너다보았다. 눈앞에 하천은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바다였다. ‘음지말’ 에서 ‘양

지말' 로 건너가는 다리는 끊어진지 오래였고, 부인과 노모 걱정에 마음만 급했지 별 수는 없었다. 얼마 후에 완전히 남남이 될 부인이건만 그건 차후의 문제였다. 저 지경이 된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도 가당치 않아 보였다.

'양지말' 의 뒷산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강 건너에서 아련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을 회관이 기우는가 싶더니 옥상에 올라가 있던 대엿 명 사람들이 누런 노도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갔다. 김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한참 만에 눈을 떴을 땐 또 다른 참상이 벌어지는 중이었다. 뒷골 입구에서 물길을 꺾어 돌려 김씨 집을 감싸주는 형국의 바위 언덕이 조금씩 조금씩 급류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유난히 높은 바위 위엔 세 사람이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내 저으며 허수아비처럼 흐느적대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하늘에 대호 절규하는 몸짓이건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흡수되어 들리지 않았다. 슬프게도 하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급류는 무참히도 바위와 사람들을 한꺼번에 밀어내리고 말았다.

이제 '양지말' 에서 보이는 것은 김씨 집 뜰 앞에 밤나무뿐이었다. 한 사람이 올라앉아 앞에 누군가를 끌어안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몸체가 허물어지지 않은 걸로 보아 살아 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건 십중팔구는 노모와 아내였다. 누런 물바다에 어둠이 서서히 나래를 펼 때까지 꽤나 오랫동안 밤나무를 눈에 담고 있었다.

김씨는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빗속을 더듬어 밤새도록 산을 돌아 아침녘에 '양지말' 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에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정오를 조금 지나 멈추었다. 차츰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살아남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들었다. 모두들 얼굴이 푸르딩딩하고 팔다리엔 군데 군데 찰과상을 입었다.

김씨는 정강이 밑으로 내려앉은 물살을 발로 차려 밤나무에 다가갔다.

나무 위엔 부인이 노모를 가슴에 파묻고 원숭이처럼 꼬부리고 올라앉아 있었다. 김씨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부인, 부인, 어머니, 어머니.” 그 소리에 부인은 쉰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노모는 몸을 움크린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보기에 두 사람 다 살아 있다기보다는 죽어있는 행색이었다. 부랴부랴 한 팔에 한 사람씩 안고 물 밖으로 나와 산기슭에 내려놓았다. 읍내 병원 침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령거주사기를 꿋고 나란히 누웠다. 저녁녘이 되어 부인은 정신을 차렸으나 노모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노모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진다고 느낄 때 담당 의사가 김씨를 호출해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금 할머니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기력이 쇠한데다 장시간 공포와 추위에 떨고 탈수가 심해서…” 김씨가 말의 핵심을 감지했다.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능력으론, 혹 춘천이나 원주로 나가시려면 저희 구급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허나 기대는 안 하시는 편이…” “저…, 뭐…” 가장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말라붙고 말았다. 의사의 방을 뛰쳐나온 김씨는 한 참 동안 복도 창문에 머리를 내 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자정을 반 시간 남겨놓고 할머니가 부스스 눈을 뜨고 사방을 살폈다. 노모의 얼굴에 탈바가지 같은 웃음이 비쳤다. 김씨는 노모의 손을 잡았다. 핏줄이 앙상한 손등에서 온기가 꺼져가고 있었다. 김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이 부스스 일어나 나와서 김씨 옆에 나란히 섰다. 이 시한부 부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모를 내려다보았다. 노모는 몸을 꼬지라대더니 손을 댕개 밖으로 내놓고 앙상한 왼손 약지에서 옥반지를 뽑았다. 파릇한 옥색깔이 봄에 돌아나는 새싹처럼 신비스러웠다. 시어머니는 눈짓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부인이 한참 허공을 응시하더니 불이 뚫어져라 어금니를 물고 노모에게로 다가섰다. 노모는 부인의 왼 손 약지에 가까스로 옥반지를 끼우고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떨어뜨렸다. “어멈아, 거북바위가 가문을 지켜 줄게야.” 실낱같은 미소가 시어머니 눈가를 번쩍 비추더니 사라지고 다시두 눈을 스투스 감았다. 김씨부인은 그 반지의 내역을 알고 있었다. 대대로 김씨 일가의 장손 며느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반지였다. 이 반지를 내리 받고서야 마침내 장손 며느리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인정 받는 것이 김씨 일가의 가풍이었다. 하루가 지나 할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밀어내며 숨을 지웠다. 내외가 통곡하는 사이 아들과 딸이 당도하고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럭저럭 ‘여내골’ 종중산에 노모를 모셨다. 며칠 후에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마을은 더욱 참담했다. 그 날 김씨 내외는 집터로 향했다. 집터도 마당도 텃밭도 한 덩어리의 자갈밭이 되어있었다. 다행히도 거북바위는 이 물난리를 겪고서도 초연하게 고개를 세우고 안팎주인을 맞이했다. 내외가 거북바위를 한 바퀴 돌았다. 놀랄 일이 벌어졌다. 눈 모습까지는 없었던 거북바위의 얼굴면에 어찌된 일인지 두 눈이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눈 부위에 붙어있던 부드러운 석질이 이번 비에 파여 나감으로써 툭 볼거진 눈에다 쌍꺼풀까지 얻어 정말 거북이가 집안으로 기어드는 착각이 들었다.

부인이 거북바위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하얀 손이 이마를 거쳐서 볼에 이르렀을 때 김씨의 손이 부인의 손을 덮었다.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김씨를 올려다보았으나 그 눈엔 웃음 싹이 돌아 있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인댁 고부(姑婦)를 안고 버터낸 밤나무에 한 참 시선을 엮었다. 그리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살갗이 갈기갈기 찢긴 앞산 발치엔 김씨집 3,000평 넓은 밭은 간데없고 덕천이 파 내놓은 수많은 돌무더기만 시체처럼 깔려 있었다. 오른쪽으로 깊게 암반을 파고 흐르던 계곡수는 물줄기가 잘려져 나가고 바닥엔 나신이 된 나무등걸들이 산모래 위에 덩굴었다. 물살을 헤치고 기어 나오던 가재도 바위에서 숨바꼭질하던 옛메기도 버들치 놀던 파란 강벼들도 모두가 추억

일 뿐 이 계곡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생명을 달고 있는 모든 것이 하얗게 말라 죽어버렸다. 할아버지의 발갈이 소리도 김씨의 벼들피리 추억도 그의 마음속에만 있을 뿐 거기엔 이제 살고 있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그곳에선 파란 미래는 죄다 시들어 버렸다.

임시로 거처할 수해민촌이 김씨네 밤나무가 지척에 보이는 들판 오른쪽 논바닥에 세워졌다. 김씨 부부가 이곳 콘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한지도 달포가 지난 오후였다. 이 내외가 늦더위를 피할 겸 밤나무 그늘을 깔고 앉아 도란도란 나무의 은덕을 되새길 때 낮익은 이장의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공지 사항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이번 폭우로 유실된 농경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심하게 유실된 농경지는 하천 부지로 매입하고 복구 가능한 농경지는 복구비를 지원하여 준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여 많이 참자

翰柱 문부자

지난달 모 부대장의 청탁을 받고 민간상담관의 자격으로 장병들 앞에서 2시간의 강의를 가졌다. 100여명이 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무언가 가슴에 남을 내용을 전하기 위해 며칠 밤을 고심하며 생각하고 자리에 임했다. 젊음의 폐기를 발산하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일 때면 더욱 리듬감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깊이 전달되도록 전심을 다했다. 그 후에 만난 장병들에게서 어떤 전문가의 강의에서도 느끼지 못한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말썸이 많은 장병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싶었던 내 마음에 풍요를 주어 스스로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여기 그 내용을 요점만 간추려 본다.

나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문학 쪽 이야기는 조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젊고 씩씩한 사나이들 앞에 서고 보니 좀 긴장이 됩니다. 아마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젊은 기를 좀 받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보니 여러분들이 육체적 외모로는 씩씩한 아저씨이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불과해서 여러분을 보면 이제 막 수능시험을 끝낸 우리 착한 외손주 생각이 납니다. 해지는 노을 녘 버스를 타고 원통에서 들어오다 연병장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는 군인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저 장병들은 두고 온 식구들이 이 시간 얼마나 그리울까 싶어 가슴이 찡합니다. 나라 법이 무서워 이곳에 와 있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어서 애국하는

마음도 아닐 터이고, 날씨 추운데 운동하고 나서 귀가 얼지 않도록 몸 관리 잘들 하세요.

생각해 보면 2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는 진학하기 위해 공부, 공부만 하다가 대학 입학하고 바로 떠나온 군대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 볼 겨를도 없었을 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떤 재능에 대한 비전이 보일까 생각해 볼 사이도 없이 입대했으니까 조용히 장래를 정립해 보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를 한 번 가져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창조 할 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힘든 사람은 자신의 특기를 익히세요. 그래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재능이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으로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만기씨는 씨름을 좋아하다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21C는 전문적인 기술인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꼭 읽으십시오, 공부만 하느라 온전한 독서를 해독 할 사이도 없었을 겁니다. 역사책을 열심히 읽으면 오늘날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는지 알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고전과 맹, 공자를 읽으십시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옛것을 알아야 현재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 책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보다 앞서 출세하면 남보다 일찍 명퇴 당합니다. 읽을 책이 궁하면 백과사전을 찾아 동물 이름이라도 외우십시오. 개그맨 강성범은 개그도 안돼서 군대나 간다고 와서 2년 동안 동물 이름을 달달 외워서 훌륭한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읽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책을 읽어두면 평생을 울귀먹고 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참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는 일입니다. 참지 못하는 일은 습관이 되기 쉬워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나 화를 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많은 장

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지 못하는 마음은 핵폭탄과 같아 남도 죽이지만 자신도 자멸하는 길입니다. 독약보다 무서운 약입니다. 에때한 때들을 잘 푸는 자만이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에때한 일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잘 섞이는 자만이 퇴출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병사도 참지 못하고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해 자. 타, 모두에게 종말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부모님과 의 잘못된 관계로 힘든 장병이 있겠지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술 잡숫고 횡포를 부리는 부모가 있다면 어무만지세요. 어른이라고 다 잘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부모님도 부모를 잘 못 만났거나 환경이 좋지 못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들도 엄밀히 따지자면 불쌍한 이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분노하는 앞모습만 보지말고 허물어져 작아지는 뒷모습을 보세요. 요즘 아버지들은 설 자리가 작아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는 생활능력 없으면 이혼하고 갑니다. 어머니와는 잘 풀어 가면서 아버지가 뼈 있는 말 한마디하면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번 휴가 가면 반드시 뒤로 가서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또한 세상일이 불확실해 지며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은 내 앞에 굳게 닫혀진 커다란 문만 응시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숨 돌려서 옆을 보거나 뒤돌아보면 그곳엔 조그만 창문이나 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쯤 보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고난만 확대 해 보고 그 뒤에 축복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극 필반>이라고 같아 앉으면 반드시 뜨게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돌일지라도 신은 반드시 있을 곳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참이 괴롭혀서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지금은 질병이나 고참이나 열린 정보화시대 성장해온 똑같은 신세대 젊은이 들인데 머리 좋은 줄

병 괴롭히려면 그 고참은 얼마나 잠 안자고 고민해야겠습니까. 약 올리는 졸병도 있겠으나 비생산적인 일에 골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개그맨처럼 동물이름 하나라도 더 외우는 일이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러한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제복을 입고 무리 속에 살고 있다고 막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지역의 목사님들은 많은 장병들 임무수행 당당히 마치고 무사히 귀가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스님들은 목탁을 두드리며 장병들 무사안위 발원하는 정진 기도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군인들은 텔레파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이니 부모님의 애절한 염원을 믿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2년이란 세월 나를 위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단단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많이 참으십시오.

눈, 물

박돈녀

전날 밤 첫눈이 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밤새 울더니 세상은 온통 순백이다

첫눈이라 업신여긴 내 어리석음.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 추운 날씨가긴 해도 기분 좋은 오전 이었다 골목길을 휘돌아 찾길을 건너 학교길 갑자기 빙판이 나타났다 자전거는 맥없이 넘어지며 나의 다리를 내리쳤다 아찔 “큰일 났다” 나도 몰래 걱정이 앞섰다 경험이 없기에 골절이 되었는지 뼈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 뼈였겠지 왜냐하면 걷기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고 난 골다공증은 안 일거라고 늘 자만했기 때문 이었다. 직장 근무 중인 남편을 전화로 불렀다. 달려온 남편 쏟아지는 나무람 “바보처럼 이런 날 자전거라니 정신이 있어 도대체” 평소 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둥소리만큼 이나 무서웠다 통증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결과는 심하게 입은 골절. 큰 뼈 작은 뼈가 대각선으로 골절 되었다 뼈였을 거라던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자만에 차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곳에선 수술이 힘들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춘천 대학병원으로 떠났다 누워서 병원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하나 둘 지나가는 소나무에 핀 눈꽃은 맑은 산소 향을 피워낸다 파란하늘에 한가롭게 떠있는 뭉게구름은 이엄청난 나의 사고 소식을 모르는 듯 새끼 구름을 꼭 품고 오후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엔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빈 침대도 없어 그동안 안 쓰던 먼지 뽀얀 침대를 가져와 임시

로 거기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니 거기엔 내가 보살피야 할 중풍에 치매까지 앓고 계신 어머니얼굴이 멍하니 떠있다 그때부터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짓누른다 머지않아 연말이라 각종 송년회 며 한해를 결산하는 총회 등등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국악지부에서 제3회 공연을 3일 앞두고 이렇게 되었다 다행이 이튿 날 수술날짜가 잡혔다 6시간의 수술 끝에 병실로 올라왔다 수술은 아주 환상적으로 잘되었다는 의사에 말에 나와 남편을 안도의 숨을 쉬게 하였다. 먼 길 마다않고 많은 고마운 분들이 병실을 찾아와 힘과 용기를 주었다 생각지도 않은 이에게서 꽃바구니가 왔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밖엔 하루 종일 비가 여름비처럼 내린다. 통증과 메스꺼움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옆엔 낮선 간병 사 아주머니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도 발발거리고 바빠 다니니 좀 쉬라고 하느님이 휴가를 주신거야” 함께 웃고 넘기었던 것 다시 꺼내 생각해본다.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음이 편안해 진다 옛날 같았으면 하느님은 “왜 나에게 이런 별을 주셨나” 원망을 했으련만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 병든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셨어도 하느님 원망해 본적이 없다 하느님 앞에 10여년을 탕자로 떠도는 한 마리 양이었기에 주일마다 성당은 나갔지만 세속의 일이 우선이고 하느님을 뒤세운 못난 신자였기에 원망할 자격이 없다 수술을 하고 누워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져본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했던 책을 보아야 겠다 생각하고 책을 펼치니 깨알 같은 글씨가 누렇게 퇴색되어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말해준다. 그동안보지 못하던 드라마도 몇 시에 뭐가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시간에 맞추어 볼 수 있다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2층 내 집을 올라가지 못해 아래층 어머니 집 작은 골방에서 그런대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끔 밖에 돌아가는 일을 전

화로 알려주고 찾아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꺼리로 나를 웃게 해주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벌써 두 달 십일이 넘었다 수술한지 한 달이면 걸을 수 있으려니 두 달이면 걸으려니 희망으로 버텨온 나날들 겨우 목발에 의지하고 설 수 있고 걷는 연습을 한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 집 2층을 목발 짚고 갈수 있으니 말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 낯설다 그렇게 매일 나와 대화하든 화초들이 기운 없이 나를 반긴다 호접난이 노랗게 꽃을 피워 대환영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해마다 봄이면 연분홍 영산홍 이 무궁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나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건만 축 처진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모두 끝났다. 애처로운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파오며 남편에게 슬한 원망을 쏟아 냈다. 얼마나 먹고 싶은 물도 먹지 못했으면 저리 되었을까? 그래도 용감하게 목숨을 부지해준 화초들이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꽃대를 밀어 올려 화사한 꽃을 피워주었다. 고놈들에게 위안을 삼으며 죽어간 몇 개의 화분을 눈발 날리는 밖에 내어놓았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아른거리는 연분홍 영산홍 활짝 핀 놈으로 장날 하나 사다 놓아야겠다

잠깐의 실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후회 내 삶에 얼룩을 남겼다 부모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몸속에 쇠를 넣었다는 후회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이 무겁다 희끗희끗 하던 남편의 머리가 요즘 더 하얗게 시었다 말은 안했어도 그동안 너무너무 남편이 고마웠다.

소녀의 기도

한명숙

거리는 비에 젖어 흐득흐득 흐느끼고 있었다.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끈 적한 바람은 실 사이 없이 불어댄다. 약속 시간이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주인을 잃은 대문은 열쇠가 굳게 잠긴 채 끄떡도 않는다. 어쩌면 일부러 안 들어오는 건지도 모른다. 서너 번쯤 그와 술을 마신 적이 있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엉망으로 취해 어디서 어떻게 그와 작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지루함을 달래려고, 아니 기다림이 초조해 우산으로 팔랑개비를 돌리며 새벽까지 있었다. 가슴까지 차오른 답답함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내게 질리고 만 것일지도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게 아마도 지치고 말았을 것이다. 비를 흠뻑 맞고 으스스 한기가 돌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이구, 이놈의 팔자, 개도 안 물어 갈 팔자.” 아침부터 작은어머니의 뒤틀려진 심사가 악다구니를 하며 돼지 먹이로 모아둔 구정물을 이리저리 휘 젖는다. 먹이는 줄 생각도 안하고 화풀이를 구정물통에 해댄다. 어느 때나 별 다를 것 없는 아침, 서른 해를 살면서 그 반은 아마도 즐기차게 들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마당을 향해 나 있는 방 창문을 열고 작은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한 마디 하려고 십년을 넘게 신경통으로 다리를 못 쓰는 하반신을 고쳐 앉으며 물끄러미 쳐다본다.

낡고 늙어 부쩍 소리가 요란해진 냉장고처럼 할머니의 신경통은 아마도 이젠 새로 고침이 소용없을 것이다. 상반신을 곳곳이 쳐들고 있

는 모습이 흡사 저승사자의 모습이다. 눈 가장자리에는 안경을 낀 듯 시커멓게 기미가 덮여있다. 얼굴 표정조차도 굳어 주름살이 깊게 패여 거무스름한 자국이 생겼다. 얼른 봐도 심사가 곱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침저녁이 따로 없는 나의 귀가는 이제 그들에게 무관심이다. “이제 그만 하구요.” 아버지께선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한마디를 조용하게 내뱉곤 외양간으로 갔다. 그래도 작은 어머니께선 하던 말을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에게 향하는 도전이므로 작은 어머니께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작정인 듯싶다. “그놈의 아들, 팔자에 없는 아들이 계집만 얻는다고 덜컥 나온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밤새 할머니께선 환갑을 내다보는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며 어느 집에 마땅한 아들 낳아 줄 씨받이를 얘기했을 것이다. 작은 어머니께선 할머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지 않아도 읽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더 그 이야기를 오래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 날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태어 나오지 못할 아들이란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몇 년간을 이어오는 투쟁이다. 3일마다 찾아오는 시장 차의 '소녀의 기도'가 멀리에서 희미하게 들려온다. 시장 차에는 고무장갑에서부터 오뎅, 두부, 반짚고리, 효자손, 아기기저귀 흘림방지용으로 쓰던 노란 고무줄등 그야말로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녀의 기도를 은은하게 틀어놓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가 오면 시장이 온다고 한다. 혹은 소녀의기도가 온다고도 한다. 언젠가 걸어서 시내를 가는데 시장차를 만나서 신세를 진적이 있다. 어김없이 소녀의 기도는 흘러나오고 시내까지 가면서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음악을 감상하는 건지 소녀의 기도에 심취해 고뇌의 찬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아침 밥상에 미역국이 올랐다.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 시킬만한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한여름 청청히 물오른 계절임에도 그 푸르름을 잊고

산지가 오래다. 시골에 아침은 새벽이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비에 젖은 유리창은 쉬임 없이 덜컹거렸다. 햇살이 퍼지지 않았는데도 문창 호지가 눈 내린 아침처럼 환했다. 큰어머니께서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정말 팔자에 아들이 없는 건지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죽은 것이다. 삼년 뒤 어머니를 들이셨고 어머니께선 내리 딸만 넷을 낳았지만 나를 넷째 딸로 남겨두고 아래로 두 동생은 두 둘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가끔씩 나는 죽은 동생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동생들은 나보다 훨씬 자라 있곤 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길을 우리는 나란히 작은 발자국을 만들며 학교를 갔다. 교실 안에 해맑은 웃음소리를 넓게 퍼트리고 드넓은 산등성이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가며 소리쳤다. "저기야, 저기에 있어." 꿈속에서는 내 다리가 멀쩡했다. "같이 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대도 내 목소리는 저만큼 깊은 산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죽을힘을 다해 동생들을 따라 겨우 산등성이를 오르면 거기엔 늘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다. 터벅터벅 힘없이 학교로 돌아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밀려와 창가를 적시고 있었다. 어둠이 빛을 싸안고 안개처럼 자욱이 내려 덤힐 때의 교실은 무덤 속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대청소를 하느라 동강이 초를 문질러 반질반질 닦아놓은 교실은 들어서기조차 겁이 날 정도로 반짝거린다. 다리 한쪽이 짧은 나는 그때서야 멀쩡했던 다리가 짧아 있음을 느끼고 이내 동생들을 찾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아들은 없어." 작은 어머니가 막내를 낳던 날 절규처럼 외쳐대던 외마디! 술한 연민으로 밤을 지센 고통은 피와 땀과 젖 냄새가 비릿하고 후덥덥하게 뒤섞여 스러져 있었다. 자신은 이미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막내는 3일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작은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패인 주름살은 할머니를 닮아가고 있었고 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은 날로 짝이 무력무력 자라날 뿐이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족은 늘 살얼음판이다. 끝내 아들 손주를 보지 못하고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작은 어머니를 빼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다. 눈을 뜨면 아들타령에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당신이 아들을 못 낳은 대가로 할머니의 구박을 대신해 죄를 사면 받는 느낌이었을까? 서럽게 울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었고 혀를 차는 일이었지만 누구하나 울지 말란 소리도 하지 않았다.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대신했고 작은 어머니께선 신들린 여자처럼 통곡을 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지 3년 만에 죽었다. 마을 어귀 소나무가 뻗뻗이 들어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넓은 능선을 따라 큰 무덤이 두 개 있고 한가위 때만 유일하게 어린애들이 놀이터로 변하는 그래서 평소에는 숨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곳에서 병풍하나 없이 동네 사람들이 인정으로 열기설기 만든 관 앞에 술잔이 놓여 진 조그만 상을 받고 세상과의 이별을 했다고 했다. 섬 특유의 토속 신앙은 교묘하게 다섯 자매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코 나에게나 할머니한테는 서로의 존재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어머니가 서방질을 해서 병신이 되었다고 악담을 해댔다.

새벽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였으리라. 비라도 한줄기 내릴 것 같은 한기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다. 식구마다 마루로 뛰쳐나와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다. 언니의 큼지막한 가방, 무거운 눈 커플을 간신히 쳐들어 올리고 밖을 본다. 사위에 가득 찬 적요, 섬뜩 하리만큼 살 갓을 스치는 느물거림이 손끝을 짜릿하게 스쳐간다. 창밖은 이미 부엌에 흐려지고 있었다.

"어머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 한 점의 동요도 없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애써 슬픔을 감추는 언니의 모습은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여자란 명어로 분노나 모멸

감으로 가슴을 아파해야 하는 것인지, 착한 언니는 모든 걸 숙명처럼 받아드린 듯 했다. 7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고 시댁으로 부터 당하는 괴로움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슨 별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 셋째 언니가 집을 나갔다고 형부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때처럼 역시 언제 나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을 나갈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게 형부의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자식한테 특별하게 애착이 많았던 언니가 어린 조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갔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같은 아버지의 같은 어머니, 그래서 마음한구석에서부터 큰언니로 자리 잡고 있었던 존재로부터의 배반과 환멸, 분노는 내게 또 다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뿐이었다. 1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언니의 지독한 냉정함은 어디에서 늘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엔 터를 제대로 팔지 못했다는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성차별을 당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내가 그런 냉랭한 가족 속에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도 안가고 남자들이나 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열정은 동족으로부터의 성차별의 대한 반항이었는데도 모른다. 내가 결혼을 할 시기에 사람들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를 보고 내림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엔 뭐가 뭔지를 몰랐다. 풀마저 썩어 한갓 먼지로 풀풀 날릴 때 까지도 백골이 되지 못한 어머니의 죄 많은 뼈에서 밤마다 그 무엇인가가 나와 한풀이를 해대는 것이라고도 여겼다.

시골뜨기의 서울 첫 나들이에 모든 것은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혼자 여관으로 갔다. 낮설음에 대한 불감증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당혹한 손끝을 할퀴는 듯 한 짜릿함과 가슴앓이는 그 후로도 월중 행사처럼 찾아 들었다. 당연히 나는 의식을 치루는 하룻밤을 어김없이 보내야 했다. “잠간 쉬었다 가실 건가요?” 방하나 달라는 말에 여관

주인은 잠간 쉬었다 갈 거라며 위아래로 가자미 같은 시선을 던진다. 늘 상 접하는 의례적인 행사이므로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룻밤 잘 껴예요.” 적어도 편안한 밤이 되지 않을 거란 것은 여관주인의 눈길에서부터 느낄 수 가 있었다. 당연히 여자 혼자서 여관에 오면 몇 십분 지나서 어떤 사내든 올 것이라 여긴 것인지.... 침대 방은 내게 불편함으로 온돌방으로 달라 그랬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하룻밤도 침대하고는 영 궁합이 안 맞는다. 203호, 이 층으로 올라오는 내 뒤통수에 대고 엄제짚 올 거냐며 다시 한 번 더 나를 시험한다. 곁의 건물과는 달리 방안은 그럭저럭 지낼만했다. 이상하게 생긴 의자가 덜렁 놓여 있고 의자의 사용방법을 설명한 듯한 코팅된 A4용지가 생똥맞다는 느낌을 받은 것 빼고는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첫 비행기를 예약했으므로 커튼을 내리고 일찌감치 불을 켜다. 사각 모양의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여간해서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네온사인이 깜빡거릴 때마다 가슴도 같이 두방망이질 친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나를 야유하듯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유리알처럼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스쳐 지나가는 눈 빛, 무엇인지 모르는 게 또다시 가슴을 할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 속삭이는 것도 갖고 아니면 무슨 예언의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언어들 이 줄줄이 흘러진다. 입안이 까칠하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목마름에 잠이 깬다. 새벽이었다. 모래알을 씹은 것처럼 사금거리는 기분 나쁜 증세에 물 한 모금을 들이 키고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부터 시장차가 보이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부인이 집을 나가 몇 년을 찾아다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식상한 일이다. 그의 죽음은 ○○○등의 제목을 달고 지방신문의 하단 일단기사로 보도 되었겠지.

나 역시 그때 차를 얻어 타고 시내를 갈 때 보았던 고뇌에 찬 그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볼 뿐이다. 부인을 찾기 위해 시장차를 궁리해내서 소녀의 기도를 매일 듣고 있었던 것일까? 소녀의 기도의 작가였던 바다체프스카는 27세의 짧은 일생을 마친 아마추어 음악가였지만 이 한 곡으로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어렵고 힘겨운 현실속의 삶을 뒤로한 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모스크바로 향하려 하는 소녀 이리나, 새 세계에 대한 갈망어린 기도를 진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처럼, 어쩌면 시장 차의 그 주인은 바다르체프스카처럼 자기 삶의 부분 중 많은 시간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박을 치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순애보의 해피엔딩으로 부인을 찾아 손을 꼭 잡고 희한의 눈물을 흘리는 상상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듣고 다녔는지도, 혹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을 더 끌고 싶었는지도 어쨌든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바다르체프스카의 33곡 중 한곡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 한 가지를 매듭 짓고 싶어 내가 태어 난지 서른 세 해 되던 날 7년 전 난 무작정 어느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바바리코트에 여행용 가방 하나를 둘러메고 집을 나섰다.

내림굿을 받는 게 나의 팔자라면 도전해보고 싶었다. 체면도, 명예도 다 버리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오만 심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분명해지리라.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작정이었던 태생은 친화되지 못한 사회 환경 속에서 기피증이란 내가 붙인 병명을 안고 아무것도 찾지 못해 도피하듯 강원도의 한 시골로 찾아 들어갔다. 몇 해가 지나면서 난 이미 시골에 익숙해져서 아쉬움 없이 살아간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실언을 당해 왔다는 등 무슨 피치 못 할 죄를 짓고 피신해 왔다는 등 작은 일로도 입방아에 오르기를 어색해 하지 않았다.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고 나 나름대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동네 사람들도 마주하기를 기꺼워한다. 다행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서른아홉이 될 때까지 사업이라고 하던 것을 정리한 덕에 끔찍이 아프지 않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어디에 매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간간히 동네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을 받는 것도 큰 보탬이 된다. 시골집이라고 하지만 그럭저럭 갖추어 다 갖추어 산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읍내를 나가서 도서관 들러 필요한 책을 빌리고 쌀, 조미료 등 내가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것들을 구입하고 들어온다. 도랑가에는 돌미나리, 고양이밥, 솔 고장이, 달개비등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살고 있다. 넓은 개울이 돌아 나가는 집 뒤 개울가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이다. 아침마다 일어나 개울로 나가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받아내곤 하는 나의 일상은 너그러운 편이다. 악몽 같은 밤이 오지 않는 한.

언제부터인가? 맑게 흐르는 물속에 하얀 미소를 머금은 동자승이 앉아 있는 꿈을 꾸곤 했다. 아니, 어찌면 세상에 피어보지도 못한 동생들의 낯일지도 모른다. 여자라는 이유로 태어남 그 존재부터 차별을 당해야 했던 가여운 낯일지도..... 한 시간을 넘게 받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기도 한다. 고요한 호수를 헤엄쳐 다니며 수초나 보드라운 용단이 깔린 넓은 공간을 미끄러지듯 흐느적거리며 손끝은 나른하리만큼 평화롭다. 감촉을 느낄 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실어증! 멍하니 새파란 입술 사이로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꼬집어 내야하는데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는데 한 마디도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나도 모르는 행동을 가끔씩 했었고 때론 한숨을 쉬고 알지 못할 욕지거리를 내뱉고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어찌면 내게서 그가 떠나간 것도 우연인지도 모른다. 도저히 융화되지 않는 나를 버거워 하며 그와 처음 가슴 아픈 이별을 할 때

그는 나를 붙잡고 영영 울었다. 몇 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당신은 왜 사랑을 할 때 옷을 다 벗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니 내게는 첫 남자였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해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알몸으로 그와 같이 자본적이 없는 것 같다. "....." "더러운 수업에 강의를 받은 기분이군."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그를 위해 내가 해 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열정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마음으로부터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어김없이 모든 건 실패로 끝나고 만다. 어쩌면 이게 신이 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밤마다 치루어 내야 하는 모호한 기분을 갖고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내게도 고통이었다. 살아있는 무언가와의 소통이 안 되는 기분! 그러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더러운 욕정! 쇼파에 우두커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있는 데로 올리고 두꺼운 솜이불을 꺼내 몸을 내던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몸이 축축해져 느낌마저 아찔하다. 관속에 누워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인지를 확인하려 손을 내밀어 보지만 소용이 없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생생하다. 뒷목을 타고 내려오는 정액이 금방이라도 몸속으로 들어 올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다. 따뜻한 난로 주위를 감싸 안으며 금방이라도 눈이 펄펄 쏟아질 것만 같은 어두침침한 분위기, 현기증이 날 만큼 목덜미를 애무하는 짜릿함이 전신으로 흘러내린다. 무언가에 홀린 듯 몇 시간이 흐른 듯하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 본 듯한 남자의 채취, 몸에서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돌아서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꺼안았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였다. 아니, 어디에서 봤는지도 모른다. 꿈속에서이거나 아주 익숙한 누구인지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다. 몽정이었다. 문득 문득 떠오르는 소름 끼치는 아찔함이 식은땀을 뺏아내고 있었다. 더러운 욕정이 꿈틀거린다. 흐트러진

생각들을 추스르려 안간힘을 쓰지만 자꾸만 밀려오는 과거의 악몽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꿈속을 헤 메이듯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자궁으로 들어온 바람이 뱃속까지 올라와 오장을 뒤흔들어 구역질이 난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바탕 헛구역질을 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 고개를 쳐드는 순간 또렷하지 않는 목소리가 귓속을 울린다. 두 손으로 귀를 가리고 문을 열고 뛰쳐나오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화장실 문턱 아래로 길게 뚫린 터널로 빨려들 듯 미끄러지면서도 아무 저항도 못하고 손만 허우적대며 소리를 질렀다. 아무소리도 입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거세당한 말처럼 무기력하고 의식이 없다. 벌써 아침인가? 희미꾸리한 빛이 커튼을 드리운 창살을 비집고 들어온다. 생각해보니 어젯밤 한숨도 못자고 점심을 먹고 난 후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무작정 집을 나섰다. 동해안으로 쪽 뺨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달린다. 가끔씩 바다를 알리는 네온싸인이 간간이 눈에 들어오고 비릿한 갯내음이 전신을 타고 내린다. 유년의 섬 특유의 맛처럼 감칠맛 난다. 오징어 배가 지금쯤 출항을 할 때인가? 낮게 드리운 저녁이 배의 흔들림을 알려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처럼 긴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둥, 둥, 둥.”

큰 바위를 날카로운 비수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모퉁이에서 신명나게 굿판이 벌어졌다. 강원도 특유의 꼬불꼬불한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 마다 바위에 가려진 불빛이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머리에 고깔을 쓰고 연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벌고 있는 두 남녀 사이로 무녀인 듯한 사람이 설 사이 없이 오색치마 펄럭거리며 땀을 빼고 있다,

“둥, 둥, 둥”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줄 조그만 섬에서의 애정을 한이 맺힌 듯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둥. 둥, 둥.” 야릇한 과거의 한 모퉁이가 가슴을 오려내듯 긴 한숨을 토해낸다. 이대로 시간이 멈출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던 그리움이 가슴을 조여 온다. 느즈막이 떠난 길이여서 그런지 어느새 밤이 되었다. 골목들로 많은 이야기들이 숨 쉬는 마을은 지난 기억의 나의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에 한번 왔던 길이건만 왜 이렇게 생소하고 찾기가 힘든지... 언젠가 느닷없이 집을 떠나 무작정 돌아다니다 식당에 들러 아바이 순대를 시켜놓고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가볍게 비웠던 기억이 나서 이리저리 찾는 데도 전에 왔던 식당은 보일 것 같지 않다. 이대로 돌아설까? 남아 빠진 기와지붕 틈새로 드문드문 돌아난 시든 풀들이 이따금 생각 난듯 바람에 흔들린다. 모퉁이를 막 돌아서 나오려는데 기침소리가 났다. 절 표시가 있고 깃발이 꼽혀진 허름한 집에서 지팡이를 겨우 짚고 한 발자국씩 옮기는 할머니, 허물어지다 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이 만지면 금방이라도 사각거리며 손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이파리를 몇 개 달고 있다.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외면하고 미친듯이 골목을 빠져 나왔다. 그대로 무작정 걸었다. 한참을 걸어 무엇에 이끌리듯 다시 바다로 나왔다. 겨울의 초입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무서울 만큼 한적한 방파제, 넓은 시야에 어머니 젖 냄새 같은 비릿한 내음이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친다. 모든 게 꿈이길,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는 40대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기를.....

"따르릉, 따르릉." 파도에 문혀 핸드폰 음이 끊어질듯 자지러지게 울린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는 사이 몇 번 울리던 벨소리가 멎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같은 느낌에 핸드폰을 꺼냈다. 가물가물 잊혀져가는 추억처럼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부재중전화의 낱말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진다. 확인을 눌러 전화기를 귀에다 댄다.

"여보세요?" "예 최석주입니다." "....." " 듣고 있습니까?" "네." 냉정하리만큼 싸늘한 공기가 감돈다. "착각한줄 알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뒤 목을 감싸고 달려들 것 같은 목소리는 꿈속을 헤메 듯 막걸리 몇 사발이 나른하게 취해 물미역 같이 미끄러지는 오후처럼 흐물 거린다. "계속 거기에 그렇게 서 있을 겁니까?" "무슨 말씀을..." "예, 뒤를 돌아보십시오." "뚜뚜뚜뚜."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린 상대는 전화를 끊고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는다. 그렇구나. 십여 년 전에 선을 본 남자였지.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내가 보기 좋게 거절했고 몇 번인가를 애절하게 전화통화를 요구했던 그 남자! 마치 집나간 마누라라도 찾은 것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를 아무 저항 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그러게요?" "여기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 당연히 따라 올 것이라 여겼는지 성큼성큼 앞서서 모래알을 흩어 놓는다. 먼수평선을 사각유리창에 풍경화처럼 안고 있는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착각한줄 알았습니다."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낸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래 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이야기들을 쏟아놓는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여기를 옵니다. 서울에서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면 머리를 식히려 꼭 이곳에 오지요."

"....." "여행 오신건가요?"

"아뇨,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단지 몇 년 전 잠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뿐인데 구지 사생활을 말해야 되나 생각했다. "참 인연이 많네요." 그렇다. 무슨 인연인가를 끊임없이 만듦과 사느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 인연에 몸서리치면서도 그 윤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다보면 거기에 숙제가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제가 여기 오

면 가끔씩 들리는 곳인데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산하는 그를 남겨놓고 찻집을 나왔다. 그의 말처럼 그는 바람 쐬러 온 것 같았다. 어차피 먼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내가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찻집을 나온 석규는 의아해 하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내 차를 탔다. 한참을 그가 안내하는 데로 가는데 그가 먼저 말을 꺼낸다. “잠시, 여행 온 게 아니군요.” “.....” “차 번호표도 그렇고 ...”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그랬군요.”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 만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설악역〉

여기면 나도 가끔씩 오는 곳이다. 처음 강원도로 여정을 잡고 동해안을 돌아 설악동을 들러서 나오다 간판이 참 멋지다는 생각에 들렀던 게 동해안을 지날 때면 꼭 들르곤 한다. 통나무집에 카페안의 분위기는 아늑하다. 2층으로 된 카페는 식사하는 데와 차를 마시는 곳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참 편안하다. 어떤 곳은 차를 주문하기도 식사를 하기에 미안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주인 역시 매너가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올 때는 편안한데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손님을 대한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면서 깜짝 놀라하는 주인은 이상한 시선을 남기고 최대한 아늑한 탁자로 안내한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도 궁금해 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알아내기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란 걸 깨달은 후에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식사를 하실 거죠?” 메뉴판을 받아들든 그는 친절하게 물어온다.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러지요.” “예, 저는 늘 제가 먹는 걸로 갖다 주시구요. 정민씨는...” “같은 걸로 주세요.” 뭘지는 모르지만 구지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아~ 와인도 주세요.” 바닷가의 밤은

고즈넉하다. 구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열정은 절정에 도달한다. “설악산은 언제와도 참 좋아요.” 그는 한참만에야 와인을 따르며 말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궁금증도 한계가 여기인가 보다.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 정착한 곳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씩씩하게 남자들이나 할 만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남자들이나 할 만한 사업? 오랫동안 ‘남자’란 단어에서 해방되어 성에 대해 잊고 산지 오래다. 그저 이정민이란 이름석자로 사는 생활에 불만을 가져 본지가 아득하다. “아뇨, 그냥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지내고 있어요.” “아! 놀랍군요. 전혀 정민씨 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때 선을 보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 “첫 눈에 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정민씨와 선을 보고 정말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 여자라면 내 일생을 바쳐도 후회가 없다 생각했죠.” “.....” 한참을 과거를 회상하는 듯 말이 없다 이야기를 다시 한다. “그런데 보기 좋게 딱지 맞은 겁니다. 하하.” 원망도 아닌,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는 그의 웃음은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다. “그리고 그 후로 선을 서너 번 봤나? 이러다 장가 못가겠다 싶어 아무하고나 결혼했죠.” 사람들은 늘 조금만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 옛날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새 밝은 어둠이 질게 드리워져 있었다. 속초 앞바다의 희미한 불빛들이 파도의 밀려 파르르 떠다. “가슴이 확 트이지 않나요?” 그는 바닷가 모래사장 가운데로 달려가 팔을 번쩍 들고 가슴으로 바다를 마시고 있었다. 문득 소년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전에 선 볼 때 보이지 않았던 순수함이 보인다. “정민씨,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보세요.” 서른 살의 내가 아님을 느끼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서른아홉! 아직도 30대라고 우겨도 되지만 스스로 40대이기를 원하는 여자!

그래서 인생은 별거 아니며 중후하게 늙어가는 자신을 생각하는 여자!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빨리 되기를 기도하며 살았다. 여자이기도, 어머니이기도, 빨리 포기하고 싶었다. 섬 특유의 갯비린 내는 늘 새롭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만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오징어배가 저만큼 살아질 때까지 그와 나는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다. 그에게도 많은 날들이 상처로 다가왔음을 알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받았나 봅시다.”

“.....” “아무하고나 결혼해서 살다보면 사랑이 생기고 살다보면 자식을 낳고 살다보면 정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내게 질렸는지 3년도 안돼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오게 되었죠.” “많이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내가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이젠 오히려 편안합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내가 조금 편하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세탁소에서 옷을 찾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며 몇 번째 서랍장에 손수건, 몇 번째 서랍장에 양말, 그런 메모가 붙여 있는 어머니의 손길이 사라지고 아침을 부랴 부랴 식빵 한 조각을 우유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민씨를 만나려고 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예?” “아, 농담입니다. 정민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요. 소녀 같은 표정이며 모든 게 진실이죠.” 그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곱씹듯 얽은 웃음을 보인다. “아, 결혼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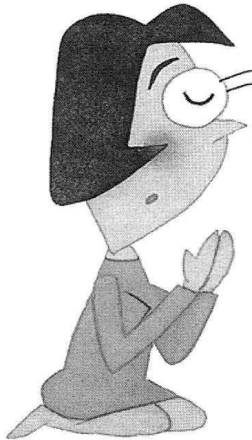
“아뇨.” “와~ 가슴이 설레 이는군요. 몇 년 전에 섰던 여자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닷가에서 이렇게 재회를 하다...”

“.....”

“오늘 밤, 인생의 남을 만난 추억을 만들어야겠는데요?” 그의 아무렇지도 않는 농담이 가느다란 설레 입을 가져다준다. 한참을 잊고 살았던 그 무엇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저~기, 정민씨.”

“.....” “우리 오늘, 세상 연인들이 하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그는 어렵사리 말을 꺼내고 무슨 심판이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뻘뻘 쳐다본다. 심장이 멎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잊었던 단어들인가? 그 말을 뱉어놓기가 무섭게 그는 정말 연인처럼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린 연인처럼 바닷가를 쉬임없이 걸었다. 때론 예전에 선뵈던 애기도 하고, 초등학교 시절 소꿉장난하던 이야기, 학창 시절의 아름다웠던 이야기들, 오랫동안 사귀어 온 것처럼 그렇게 웃기도 넘어지기도 하며 바닷가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다. “저, 오늘 정민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분명 그이도 현철이 처럼 나를 경험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칠 것이다. 하지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는 나를 체념하듯 그가 이끄는 데로 따라갔다. 저녁을 먹었던 <설악역> 옆에 있는 아담한 모텔! 그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것인지 조금은 들뜬 남자의 씩씩함을 보인다. “제가 먼저 씻겠습니다. 제가 씻는 사이 겁나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는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난 그가 먼저 샤워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가 샤워장으로 들어간 다음 살며시 나와 버리는 상상을 했는지도 모른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다를 한 아름 담고 있던 창문은 작은 신음을 거침없이 거센 바람으로 방안에 쏟아 놓는다. 그가 샤워장에서 나오자 릴레이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받듯 얼른 들어갔다. 그는 오랜 시간 샤워를 하는 나를 많은 인내를 하며 기다려 줬다. “바람이 너무 차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내게 그는 커피를 한잔 건넨다. 그리고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테이블 의자에 앉힌다. 커피 잔을 이유 없이 손으로 감싸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부할 수 없는 무엇에 이끌려 그

를 받아드리면서도 두려웠다. 한참을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몸을 추수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무기력함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아침이었다. 그도 몇 년 만의 안식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일어나려는 나를 살포시 안았다. 예고도 없이 평온하게 찾아오는 무엇은 이제 끝임을 알려주는 것인가?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목이 차올라 기쁨인지 슬픔인지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 일 없었듯이 아침 바다는 거기에 그렇게 있었다.



외로움을 이겨낸 한계산성아!!!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인제군지사장 신 동 현

가을 햇살이 따사로이 주변의 산과 강은 물론 거리에 쌓인 낙엽에 드리우는 어느 날.....

우리 일행은 한계령이 시작되는 옥녀탕 휴게소를 출발하여 한계천을 건너 입산을 시작하자 계곡이 나타나 우리를 반겼다. 오색의 낙엽을 밟자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가 귓가에 들리면서 산중으로 걸음은 계속되었다.

힘준한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서 빨강고 노오란 단풍잎 사이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하였다. 은은히 산을 감싸고 나뭇잎에 반사되는 가을 햇빛 사이로 말없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곽이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세련되지도 규칙적이지도 않았지만 투박하면서 순수하고, 가지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당함에 왈각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년의 모진 비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월의 역사를 밟으면서 세인들의 관심밖에 내쳐져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한계산성!!!

이제 그대는 외롭지 않으리라.

과거의 세찬 바람도

어지러웠던 혼란의 흔적도

이제 그 옛날의 천년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위풍당당함을 오늘에 밝고 내일 날을 이어가리라. 그대와 함께하는 우리가 있음에.....

- 2008년 10월 30일 한계산성을 다녀와서 -

새하얀 명함 한 장

이영웅, 김소운

1932년 9월1일, 이날은 관동일대에 지진이 엄습하여 수십만의 인명을 일순에 앗아간 비운의 날이었다. 더욱이 일본인들의 유언비어로 해서 내 동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원한과 애통이 사무친 날이기도 하다.

잠시 오사카의 고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다마쓰꾸리에서 아베노로 가는 기차에서 차장과 나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뒤쪽 승강대 곁에 서있던 나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듯이 두 손가락으로 내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나는 한복차림이었고 일본인이 모두 원수로 보였던 나였다. 차장이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순간 내 짧은 피는 역류했다.

차장과 나는 승객들의 주시를 받으면서 전차는 어느새 아베노 종점에 닿았다. 도착한 후에 도 나와 차장의 시비는 끝나지 않았고 차장패들이 몰려와 대기실 같은 곳으로 갔다. 2,30명쯤 되는 패거리들은 내 주위를 둘러쌌고 기차에선 기고만장했던 나도 포로 신세였다.

바로 그 때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중년의 신사 하나가 나타났다. 키는 작지만 몸집은 울차게 생긴 40연배의 인물이다. 신사는 비장한 어조로 패거리들을 꾸짖었다. 물론 그 신사는 일본인이었고,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때 불덩이 같은 감동이 내 가슴에 스쳤다.

차장 패들은 잠잠해졌고 그는 나를 전차길까지 데리고 나오며 명함 한 장을 내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오늘 일은 부디 잊어주오. 그리고 일본인들이 모두 저 사람들과 같다고는 행여 생각지 마오”

내 기억 속에 지금도 때 묻지 않은 채 간직되어있는 명함 한 장.....

그는 30년이 지난 1953년 나와 다시 재회를 했고, 내가 간행했던 문고들에도 적지 않은 협력을 해주었다. 그 뒤 몇 해 안가 그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일본과 일본인을 누구 못지않게 안다는 사람으로 동시에 그들의 그릇됨과 잘못을 헤아림에서도. 그러나 일본엔 어찌 의인이 없으리오! 나는 소년기에 내 가슴에 감동의 불씨를 심어준 그 신사의 눈에 어려있었던 그 눈물로 해서, 굴욕과 비분에 이를 갈지언정 일본을 원수로만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을 이야기

나영옥 (인제군 북면 한계리 949-7)

“언니 들깨 다 비지 얹고 왜 저기 조금 냉겼어?”

“으~응 감나무가 없으니까 다람쥐하고 새들 그거라도 먹으라고~”

작년 이맘때 타작한 들깨 몇 뒷박을 좀 더 말리려고 햇볕 잘 드는 장독대에 놓았더니 꽃 밭 돌 밑에 사는 다람쥐 한 마리가 먼저 시식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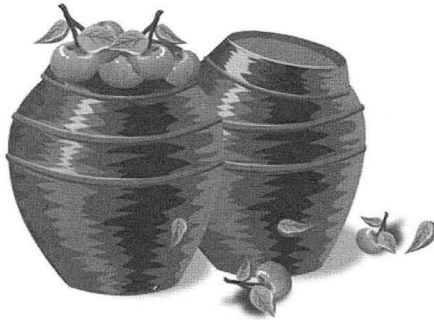
치매로 몸져누워 계시는 어머니 요양을 위해 서울을 떠나 이곳 인제군 아름다운 한계리 산자락에 살게 된지 벌써 4년이 되었다. 어머니 보살피는 틈틈이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 씨앗을 뿌리며 가꾸어 나눠 먹고 거두는 신기함과 재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좋아 하는 꽃들을 100여종이 넘게 심어 가꾸고 나누어 주며 꽃들과 인사하는 즐거움은 어떠한가. 어느 날 또 하나의 일을 벌리기 로 했다.

어렸을 적 고향집 뒷결 장독대의 넓은 돌에 신발 벗고 앉아 소꿉놀이 하던 추억, 솜바꼭질 할 때면 크고 많은 향아리 틈 사이에서 숨죽이고 아꼈던 추억을 생각하며 늘 갖고 싶었던 장독대를 그럴 듯하게 만들었다. 수도를 끌어 오고 둥글둥글한 돌로 테두리를 장식했다. 겨우내 밤낮으로 덮고 열어 주며 애지중지 키운 배추가 삭막한 이른 봄에 장독대 옆에 노랗게 피어, 어머니에게 일찍 꽃을 보여 줄 수 있어 좋다. 배추꽃이 질 무렵 바로이어 연보랏빛 무꽃이 오래도록 피어 벌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는 봉숭아꽃· 맨드라미· 채송화· 나팔꽃· 창포 등, 장독대 곁에는 우리 토종 꽃을 심었다. 지금은 구절초 꽃이 깊어가

는 가을을 장식하고 있다. 크고 작은 향아리에 물을 끼얹으며 행주질을 하면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향아리들은 투박하지만 참 예쁘기도 하다. 마~악 젓살 오른 애기 엉덩이 처럼 이쁜 꼬막단지, 터질듯 탱탱한 아가씨들의 방댕이 같은 고추장 단지, 펴퍼짐한 아지매들의 궁둥이를 닮은 듯 한 간장 된장 향아리, 미끈한 새우 젓동이, 저마다 잘 생겼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우울해질 때 면 더욱 장독대를 닦아댄다. 그러노라 면 기분도 상쾌하고 다시 힘이 생긴다. 우리 집 장독대에는 단골손님들이 있다. 향아리들과 어우러지게 커다란 수련화분 둘을 놓았는데 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토종 개구리가 들어앉아 있더니 올챙이 몇 마리 곱실댄다. 노랑·자주·황금빛 고운 자태의 몇 송이 수련 꽃이 지고,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무성한 수련잎과 줄기가 모두 잘려 없어졌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근대도 뿌리만 남았다. 설마 개구리가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안 간다. 동네사람에게 물어본 즉 고라니 짓 일 거란다. 지난겨울 우리 텃밭에 어린 고라니 새끼 한 마리 나타났던 기억이 난다. 눈이 많이 와 먹을 게 없어 내려왔나 싶어 얼른 식빵을 놔 주었지만 놀라서 잽싸게 사라져 애처로웠던 그 귀여운 녀석. 아무튼 그 후 수련과 근대의 새순이 나오고 두 번을 더 뜯기었다. 우리 집에 맛있는 야채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새순이 자랄 때 쯤 해서 밤에 살살 내려오는 것일까? 근대 가까이 있는 몇 포기 배추에는 벌레등살 때문에 약을 한번 친 탓인지 멀쩡하다. 소행으로 보아 매번 한 마리가 다녀 간 것 같다. 미안한 듯 배추를 밟지 않고 조심스럽게 먹고 간 것이 한편 고맙기도 하다. 부탁이야 알미운 녀석아 근대는 내가 사 먹을 수 있지만, 수련은 손대지마. 계속 가물은 요즈음 너희들도 목말라 하겠지.

오늘도 흥스럽게 뿌리 만 남은 근대와 수련 화분에 물을 듬뿍 부어주고, 곱게 접은 봉투마다 ‘2008년 00꽃씨’ 라고 새기며 행복하다.

이제 소담한 가을걷이 끝나면 햇 고추로 고추장을 담을 거야.
큰 항아리는 된장을 담아 묵혀 두면 좋겠지.
더 큰 항아리에 어머니 쾌유를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야지.
그리고 이 가을 단풍처럼 빛깔고운 사랑과 꿈도 담아야해



어머니

나영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45-36)

우리 집 텃밭 - 그 자그마한 땅에서 온갖 채소들이 잘도 자란다.

상추와 아욱 · 쑥갓 · 부추 · 근대까지 이웃집에 나누어 주고도 우리 식구 먹기 덤쳐 난다. 봄이 되면 우리 언니는 어김없이 밭을 일구고 씨앗 뿌리며 물을 주고 싹이 띄우기를 기다린다. 땅은 한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품어주며 키워내는 어머니 같다. 우리 어머니, 언니와 함께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게 된지 4년이 되었다.

그저 장수하시나 보다 했더니 팔순을 넘기면서 실어증과 더불어 치매증상을 보이셨다. 서서히 운동기능 마저 상실되면서 대소변은 물론 일으켜 앉히고 식사를 도와드려야 한다. 어쩌다가 한번 씩 당신 손으로 직접 떠 잡수시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감격한다. 어려운 고비를 몇 번씩 잘 넘기셨다. 때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간 일 뿐 오늘 어머니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마음은 녹아내린다. 양상한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시는 손길... 언니와 나를 알아보기는 하시는지?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신다. 때로 살포시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시는 그 눈길 만 으로서도 우리는 기뻐한다. 며칠 전부터 가끔씩 손가락이 비틀리며 다리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에 의사선생님의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약하고 있어 우리의 가슴은 찢어 질 듯 아프다. 불쌍한 내 어머니, 70여 년 전 광주에서 육 고녀를 졸업하셨다. 교육열 높은 양반 가문에 태어나 곱디곱게 자라 양반집 골라 시집오셨다. 꽃 같은 32살, 나의 돌을 3일 지나고 흘

로 되시어 평생을 수절하며 우리 4남매를 키우셨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 할 수 없는 나를 공부 잘 한다고 지극히 사랑해 주셨고 약사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나의 어머니! 그러나 나 또한 딸 셋 낳고 혼자되어 당신 닮은 듯 살게 되니 얼마나 가슴 아파 하셨겠는가? 오빠의 수고도 덜고, 부족하나마 마지막 효도라도 하고 싶어 언니와 함께 이 설악의 산자락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종일토록 어떠한 요구도 표현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한 마디 라도 말을 시켜 대화하고 싶은게 우리의 소망이다. “엄마 저 꽃 좀 보세요. 저 무우꽃 좀 보세요. 예쁘지요?” 고개라도 꼬덕이면 그것만 으로도 기쁘다. 지난 겨우내 아침저녁으로 덮고 주고 열어주며 유별나게 꽃가꾸기를 좋아하는 언니의 극성으로 이른 봄 창밑에 핀 노오란 배추꽃을 한껏 예쁘게 감상했다. 금년에는 또 다른 창밑에 무우꽃도 예쁘게 피워 보겠다고 정성을 들이던 언니와 앉아 어머니께 말을 시켜보려 애써본다. 때로는 어머니 웃게 해 드리려고 어린애처럼 장난을 걸며 넘어지는 시늉을 해본다. 언니와 둘이서 마구잡이 춤이라도 추어서 엄마가 웃으면 우리도 함께 웃으며 행복하고 가슴 깊은 곳은 아파온다. 어느 날 “엄마 저 산 좀 보세요. 저 산이 무슨 산 이예요?” “설악산” 아!~ 엄마가 설악산을 기억하시다니. 언니가 아침식사 준비 하는 동안 나는 엄마 공부 하자며 창문 앞으로 모시고 간다. ‘저 산은 설악산’ ‘바로 앞은 교회’ 늘 입 버릇 처럼 알려 드렸었다. “엄마 저기 하얗게 아름답게 드리운게 뭐예요?” “안개” “야~ 우리엄마가 안개라고 말씀하신다.” 이곳 설악산 자락에 하얀 운무가 산허리를 휘감고 드리우면 아름답기 그지 없다. 언니와 나는 어린 아기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처럼,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늘어나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 한 마디에도 감격하곤 한다. 장미꽃을 꺾어다 보여드리니 모른다고 하신다. 아- 그래도 모른다는 말이라도 반갑다. 지금 86세 현재의 건강으로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모른다. 저 이망을 털고 언제 맑은 정신이 돌아오실지... 언제 우리에게 “영옥야” “영희야” 라고 불러 주실지... 어머니! 좀 더 맑은 정신이셨을 때 당신을 모시지 못 했음을 후회 합니다. 기력이 있으셨을 때 함께 살지 못 했음을 후회 합니다. 고운 자태로 책과 신문읽기를 무척이나 즐거워 하셨는데 이제는 신문을 드려도 귀찮은 듯 밀쳐 내신다.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당신의 모습조차 누구인지 모르신다. 초점마저 흐려진 저 눈망울에 담겼을 모진 세파의 굴곡들을 이제 무엇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 당신 가슴속에 묻힌 한을 한없는 사랑으로 녹이시고 생명의 대지로 품어 주십시오. 마른 땅에 새싹이 돋듯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십시오.

고마워요, 생쥐

정무교(인제인터넷신문 취재부장)

서울에서 인제로 이주한 지 석 달이 되던 때 벌어진 일이다. 그때까지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생활이라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다(화장실은 부엌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잠에 취한 채로 문을 미는데 킁킁한 부엌에서 뭔가가 후다닥 숨는 모습이 졸린 눈에 보였다. 순간 쥐라는 직감이 들면서 잠이 확 달아났다. 쥐는 내가 바퀴벌레와 함께 가장 싫어하는 녀석이었다. 사방이 틀어 막혀서 들어올 구멍이 없는 부엌에 어떻게 녀석이 들어왔을까, 하는 의문을 떠올릴 정신은 없었다. 불을 켜자 먼저 부엌 구석에 봉지에 담긴 채로 놓아둔 쌀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저 녀석이 저 밭로 내 양식을 헤집고 다녔단 말인가! 으!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나는 당장 녀석을 몰아낼 도구를 찾다가 구석에 세워둔 긴 우산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녀석을 쫓아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얼굴을 찡그리며 녀석이 숨은 장소를 들쭉셨다. 몰아치는 우산 끝에서 우왕좌왕하는 녀석은 작은 쥐였다. 계속 몰아대자 녀석은 구석을 타고 활짝 열려 있는 문을 지나 반대쪽으로 도망을 쳤다. 녀석이 내게 달려 들까봐 가슴이 쿵쿵 거렸다. 이번에는 녀석을 반대로 몰았다. 그러자 녀석은 처음에 숨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를 어찌!’ 용기를 내서 다시 몰았더니 녀석은 이번에도 문을 지나고 좀 전에 도망갔던 곳도 지나서 바닥과 벽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얼른 그 틈을 보았다. 길게 벌어

진 그 틈은 밖으로 이어진 통로가 틀림없었다. 녀석은 이곳으로 부엌을 들락거렸고, 내가 열어준 문은 항상 닫혀 있어서 지나쳤던 게다.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틈을 막을 뭔가를 찾다가 종이상자를 찢어서 길게 벌어진 틈을 막았다. 상자를 다 썼는데도 틈의 끝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 틈은 매우 좁아서 쥐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막아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마땅한 뭔가가 없기에 한쪽에 있던 접이우산을 그 틈에 뉘어놓고 보니 딱 맞았다.

친구가 선물한 그 우산은 외제 명품우산이었다. 비닐가죽에 담겨 있는 자태만 보아도 보통 우산이 아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귀티가 흘렀다. 비닐가죽에 달린 자크를 내리고 우산을 꺼내 펼치면 더욱 멋졌다. 청색 바탕에 작은 무늬가 박힌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면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다. 길을 다니다가 다른 우산에 부딪칠까봐 조심했고, 차에서건 어디서건 잃어버릴까봐 항상 쥐고 있었던 이 우산은 내게, 자부심이었다. 그 다음날부터 집을 나가거나 들어오면 그 틈을 확인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징그러운 녀석을 부엌에서 다시 보는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았다. 틀어막은 곳은 별 이상이 없었다. 녀석의 얼굴을 잊어갈 즈음의 어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열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어제 일기에 보에 비가 온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긴 우산을 쓸까?’ 망설이다가 접이우산을 데뷔(?)시키려고 틈을 막아놓은 우산을 집었다. “어!” 비닐가죽집이 조금 뜯겨 있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어이가 없었다. 곡식창고의 맛을 본 녀석을 과소평가한 게 화근이었다. 녀석이 이곳을 재탈환하려고 호시탐탐 작업을 했구나. 씹쓸함을 달래며 비닐가죽집은 버리고 우산만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우산을 꺼내어 폈다.

“이게 뭐야!” 퍼든 우산에는 손바닥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비닐가죽집은 작은 구멍이지마는 그 안에 돌돌 말려 있는 우산은 큰 구멍이 난 것이었다. 망연자실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날뛰었다.

‘이 빌어먹을 쥐!’

아끼고 아낀 우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가지다니! 우산을 뚫은 쥐도 밟고, 조심성 없이 우산을 틈에 놓아둔 내 판단도 밟게 생각되는 그 순간, 뭔가가 번쩍 뇌리를 때렸다. ‘그깟 우산이 뭐 길래!’ 아, 그랬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 동안 그깟 우산으로 나를 값지게 보이려고 했었구나! 우산으로 으스대며 자신을 우산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우산이 망가질까봐, 어디다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우산에 붙잡혀 살며 한낱 우산을 나보다 값지게 여겼던 것이다. 구멍 난 우산을 바라보자니 쓴웃음이 나오며 허영심을 깨닫게 해준 쥐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얼른 구멍 난 우산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아가페와 에로스

백 창 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사랑을 정의할 때엔 몸과 마음을 갈라 놓아야 한다.

머리 속에서 맴도는 감정과 몸으로 느껴지는 뜨거움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마음과 연인의 마음을 구분해서 다른 범주에 넣어 놓고선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서양종교에서도 신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칭하고 그 외의 감정을 에로스로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 순결함을 두고 성직자의 덕목으로 에로스를 억누를 것을 강권했을 터이다. 사랑이란 게 단순하게 둘로 나누고 통제될 수 있는 것일까? 이토록 단순하게 둘로 쉽게 나뉘어져서 아가페는 키우고 에로스는 퇴폐의 영역에 가두어 버리면 인간의 사랑은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게 있어 이 질문은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비롯됐다.

그룹 벨의 ‘멀어지다’ 라는 노래인데 가사는 점점 멀어지는 마음이 어찌면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욕심이었나 보다고 독백을 한다.

중년의 공간에선 단순한 트로트의 리듬과 가사가 복잡한 마음을 달래준다.

‘아저씨’ 의 감상에는 트로트 박자가 생활리듬과 일치한다.

트로트에서 보이는 사랑은 어떤 질차가 생략돼 있다.

바로 사랑이 집착은 아닌가 하며 고민하는 ‘연애의 감정이 그것이다.

아가페든 에로스든 감정이란 억지로 재단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트로트의 영역에 잠

간 들어온 젊은 감성의 이별노래는 아가페와 에로스 사이에서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내린천의 물결을 따라 국도를 운전해 지나가면서 ‘멀어지다’의 가사가 귀에 걸렸을 때 이별의 아픔을 준 사람의 모습을 꺼내 보려 했다.

이별의 노래가 감정을 휘몰아 치는 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쉬움 때문이다.

그런 묵은 감정을 꺼내서 노래와 함께 내린천에 흘려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감정 끝에서 걸려 나온 건 아내의 수줍은 모습이었다.

중년의 두께가 어렸던 기억을 가둔 것인지는 몰라도 이제 아련한 사랑의 기억이 찬란한 애정의 노래와 함께 아내에게 향해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문화와 유적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백 창 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아무런 준비없이 집 앞 도로로 뛰쳐 나온 후였다.

이쯤에서는 다투었던 발단이 뭘였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내는 내게 뭘 해달라고 했고 밤이 깊어서야 생각해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내의 요구는 분명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분담하자는 것이었겠지만, 비틀린 맘으로 엉뚱한 대답으로 큰 소리를 내 버렸으니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경기였다.

치량한 물골로 찬바람을 쐬고 나니 매섭게 찢러 오는 건 현실의 고통이었다.

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소통을 향해 가는 가장 손 쉬우면서도 정확한 방법이 말이다.

아내가 처음 내게 요구한 것은 말을 통해서였고 내가 대응한 것은 호통이었으니 언어가 단절되었고 소통은 끊겼다.

게다가 서둘렀던 탓에 휴대전화도 두고 나왔다.

처음엔 말을 끊었고 그 다음으로 말을 전달해 주는 장치를 잃었으니 모든 소통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밤하늘의 별만 하염없이 셀 뿐이다.

무심히 인제 거리를 바라보느라니 저 산천 어딘가에 있을 산성이라든가 유적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든다.

유적이 황폐화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것 또한 소통이 끊겼기 때문은 아

닌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몸뚱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리려는 현재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비로소 생동감을 갖게 된다.

문화의 생명은 포장하는 데에 있지 않다.

유적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매점을 설치하면 얼마간 사람들이 찾겠지만 의미없이 포장만 한 유적은 소통하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주차장도 황폐화되고 유적은 처음보다 더 훼손된 채로 주차장의 무게를 같이 떠안고 다시 산골 깊숙이 숨어 버리게 된다.

문화와 유적은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해야 하고 우리의 필요에 맞춰 같이 호흡해야 생명력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하늘의 별빛을 보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에 아무렇게나 신고 나온 운동화가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에 교훈 한 움큼 쥐었다. 소통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어머니의 초상

박 돈 녀

개망초 메밀꽃처럼
흐드러진 묵밭을 지나
뽕나무 우거선 콩밭을 가면

울어매 누에치던 잠실(蠶室)이었다
누에 한밥 받아 뽕 먹는 소리
양철 지붕위 비 오듯

뜬눈으로 새운 사나흘 밤
누에는 무럭무럭 바삐 집 짓고
누에고치 유월 찢레꽃 처럼 열린다

내일이면 공판장 가는 날
등수 잘 받아야 할 텐데
돈 받으면 나가야 할 돈들

아버지 기다리며 서성이는 울 어매
해마다 이맘때면 늘 그런데

만고풍상에 찌든 그때 그 모습
흑백 사진으로 남아 빛 바랜채 걸려있네.

갯골

金園 박돈녀

화전 밭 비탈 길
숨 가쁘게 오르던 길
솔 향 번져오는
내 그리움이 노닐던 곳

화전민 모여 살던 정든 이웃들
산산이 헤어져 어디로 갔을까
자욱자욱 묻어나는 지난세월들

망초꽃 흐드러진 빈 학교터
인적 드문 풀 숲엔 산딸기 외롭다
지금도 변치 않은 개울 물소리
굴참나무 숲 사이 산새들 소리
갈잎 같은 그리움이 여기에 있다.

(갯골 : 강원도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산골)

석류

박정옥

시(詩)라고 써서 메일로 보내놓고
걸으면서 자면서
며칠을 앓았다
가나다라
가갸거겨 부끄러워

열병 처럼 확확 달아오르는 열기
아이 의 첫 걸음 은 기특 하기나 하지

여드레 인가
아흐레 인가

석달 열흘 만큼 이나 길었던
김멜일 도 없는 겨울밭고랑 에서 만난바람

신열 로 앓던 가슴
쏟아지는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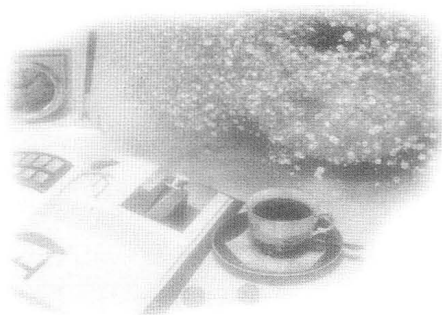
안개꽃

박정옥

비오는날이 장날
질척질척
추적추적

빗줄기 따라 비린내도 헤엄친다
뽕튀기 앞에 줄서 있는 착한깡통 들

칙칙하던 시장에
평
안개꽃 이 핀다.



어머니! 꿈에라도

杜宇 원영애

어머니! 꿈에라도 오시면
오신다면

흑백사진 속 흰 치마저고리
쪽머리 하고 오실까
오얏꽃 핀 들을지나 개울건너 우리 집
찾아오실까
오월이면 감자밭두렁
쇠비름 김매러 호미 들고 오실까
어머님 눈감고 누워
삼삼히 그리운 고향집 그리며
아이들 뛰놀던 앞마당
보라붓꽃 웃는 장독대
둘러보러 오실까
부엌 앞 샘물 길어 밥 짓는 냄새
아궁이속 콩깍지 토닥토닥 불꽃 이는 소리
그 소리 지금도 들리실까
솔뚜껑 밥물 넘치면
행주로 눈물 닦아주며
화로 불 뚝배기 장 끓는 냄새 생각나실까
여름 날
모깃불 날리는 툇마루 누워

흰 호청 덮어주시던 어머님 손길

어머니! 꿈에라도 오시면
오신다면.



가을걷이

杜宇 원영애

가을햇살 반짝 드니
부지깁이 덜렁 깃단치고

두렁 콩 바람날까
도리깨 얼쭈 두둥기니
콩 까투리 냅다 심술 났네

말이 멩석 펼친 뜰에
빨간 고추 벌렁 누워
햇살놀이 즐기고

외양간 지붕 위
박 넝쿨 댕기 풀어
만삭된 아즙니 배 처럼
매달려 데롱이네

소 몰고 들어오는 할배 등 지개에
누런 호박 달처럼 웃고
멍멍이 꼬리치며 반기니
여물 냄새 뽕양계 마중 나오네.

괭이로 파서 만든 고추밭

김종근 (북면 월학3리1반)

비탈진 한적한 오솔길에
빛도 잠시 머문 메마른 곳
낙엽을 퇴비 삼아 밭거름 하고
쉬엄쉬엄 일구어낸 고추밭
흙 엮고 이랑지고 정성들여 씨 놓아
움트고 새싹나 애정어린 바쁜 손길 청하리라

하루에도 서너번 밭길 닿아 북돋워 보살피니
주위 풀숲과 잘 어우러져
꽃피고 새울며 벌 나비 넘나들어 녹음방초 시절이라
조물주의 오묘한 조화로
영롱한 이슬처럼 빛어낸 작은 열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베푸는 만큼 얻어
우리네 조상은 농사가 으뜸

풍요로운 삶 희열과 환희로
나약한자 흙내음과 더불어 정말 행복해
미물의 씨앗이 건실하게 자라 피약벌에서
잔가지 꺾어 정성스레 지주대 세우니
어느새 고추잠자리 숨터라

근처 하루살이 먹이사슬 되어 앉고 날아

허공을 신나게 땀도네

솔밭 사이로 시원한 바람 이마에 흐른 땀 씻어주고
질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왕매미들 마음껏 목청 놓아 노래 사랑해
까망 옷 차려 입고 허기진 배 움켜쥔 채
나팔 불고 행군하며 마냥 빨아대는 산모기 Ep
서로 실랑이질 하다가 끝내는 지친 몸 부여잡고
터벅터벅 돌아서는 이 내 맘
동틀 무렵 맑은 공기 힘차게 가르고 뒷동산에 올라
심호흡부터 일과는 시작
무성한 숲 풀벌레 울어대고
머지않아 고추밭 잡초는 사라지리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대지는 온통 가뭄에 접어들어 단비만을 못내 기다려
배낭에 물병 넣어 언덕길을 단숨에 오르며
작물은 반가워 넌지시 인사를 하네

연약하게 자란 온갖 작물의 결실
기대하는 수확량 너무 못미처
언젠가 식탁에 다양한 성찬
맛깔스럽고 분위기 좋은 만찬회 너무나 화기애애
몸소 겪은 경험은 구수한 재담으로
단란한 우리 가정 웃음꽃 피네

강인한 정신 검게 내 모습 눈가에 지긋이 미소 지으며

아하! 농군의 아들이라
저 푸른 초원 위에 팥이 파서 일구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청산에 살리라
잡초가 많은 산 비탈진 곳을
팥이로 파서 만든 고추밭



안개꽃



정 순 덕

먼동은
잠 빛을 털어내느라 부산스럽다

푸름한 안개속, 느린자동차
불빛도 희미하다

전조등 깜빡하고
“안녕하세요”
세 옥타브 짙은 목소리

하루를 즐겁게 하는 길라잡이
미화원 심 주사는
안개 속에 피는 꽃이다

매초롬한 아침공기 마시며
안개 꽃 닮은
하루를 시작 한다

한계산성



정 순 덕

가뭄으로 한계천은
옹돌뭉돌 돌들이 드리났다

천변에 200년 수령의 소나무
붉은 거북등 당당하다

등산로 없는 성골
안흥민 장군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몽고 군을 쳐 부셨던 그, 함성 따라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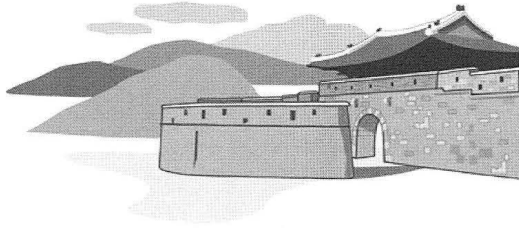
천연의 험준함을 그대로 에둘러
썰기돌 박아 포곡식으로 쌓은 성
천 년을 외롭게 지키고 있다

무릎까지 빠지는 낙엽 속
어딘가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텐데
후손들에게 하고픈 말 있을 텐데

무더진 나는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성마른 바람소리 만 듣는다

자그락 자그락
천 년 성을 거닐며
멀리 안산을 바라본다

*안흥민-고려시대 산성방호별감



그루 같이(二毛作)

오정진

금쪽같은 봄철을 어정거려 보내고
여름마저 흥풍거렸더니
이 가을 벼농사가
죽정이 뿐이다

서리는 어느덧 하얗게 내리고
허전한 가슴 달랠 길 없어
겨리를 메워 그루를 갈아엎고
보리씨앗을 뿌린다

일년이 사계절임을 왜 모르랴 만
정성을 다해 다시 씨앗을 심는 뜻은
이제야 철이 들어
새롭게 살고픈 욕심 때문이다

수확이야 내가 아니면 어찌랴
누군가가 거두어 드린다면
그 또한 보람 아닌가

아침마다 된서리 강산을 덮는데
허전한 가슴 달래면서
벼 그루 갈아엎고 보리씨앗을 심는다
허락되지도 않을
또 다른 봄을 꿈꾸면서.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이생명.

오정진

잠 앓오는 밤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다

어쩔까
동북아세아 해뜨는 곳
이 한반도

아리랑의 한(恨)서린 가락속에
역경의 고개 수없이 넘고 있는
이 겨레를 어쩔까

평화와 생명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
이 피맺힌 비원(悲願)이
언제나 풀릴까

지어머니
제 새끼 데리고
지아비 바라보며
마음 놓고 편안히 사는 그날

아!
어쩔까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이 생명
우리 모두 들
겨레의 제단에 사르면

비 개여 무지개 뜨듯
그 날이 꿈처럼 오겠지

아직도 고동치는
이 생명

- 73회 생일을 맞아 -

제 5 장

임서전



출품자 명단

강순복 강순옥 고춘길 권혁선 김운성 김영자 김영순 김병곤 김옥남 김인국 김창석 박복순
 박희순 백옥희 서혜숙 김정례 김윤혜 김명인 김연주 양연화 양은주 양현숙 유금실 송영만
 우성옥 유정원 엄종규 오혜숙 임영순 엄윤순 안미영 이춘녀 전영자 전영옥 정진숙 장남근
 정귀례 조정옥 정경화 천영식 최은희 최옥림 최수자 최태홍 최원영 최옥매 한순자 한길용
 한주림 허경순 허영숙 전승우 김태형 박관용 박세빈 이지엽 이지수 한최이 김연경 현명철
 신동현 이슬기 김 연 박은숙 이지녕 함영민 오미혜 김수진 김진수 박소영 최수아 김 향
 서성호(이상 73명)



인제문화학교(한글반)



인제문화학교(한문반)



인제서회(기린서학회)



인제서회(북문서학회)

서여기인 書如其人으로 가는 여정旅程에서

서예는 유구한 역사의 동양 전통예술입니다. 점과 선, 획의 아름다움, 필압(筆壓), 운필(運筆)의 지속과 먹의 농담(濃淡), 문자간(文字間)의 여백(餘白)과 균형이 일체가 되어 이루어 지는 조형예술입니다.

예로부터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 마음에 새기는 경구(警句) 가운데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아.” 즉,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예를 단순히 아름다운 글씨를 쓰기위한 기술이나 기교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먼저 스스로의 인격 도야(陶冶)에 힘써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학(儒學)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줄여 말하면 “인간의 본질은 도덕성에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주 자연의 법칙과 합일될 수 있다.”는 것으로 거칠게 요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인합일’ (天人合一)의 길이며, 인간의 영원한 이상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예는 올바른 서법을 통해 이러한 이상과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술 창작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서예는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작가 자신의 인격 수양이 크게 요구되며, 가장 중요한 예술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대표적 예술가 소동파(蘇東坡)는 “쓰다 남은 붓이 쌓여 산과 같다 하더라도 기(氣)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책(冊) 만 권을 읽어 그 의를 파악하면 비로소 신에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대한 이해가 깊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소양을 쌓을 때 비로서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서여기인”의 정신을 죽비(竹扉) 소리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혼미스러운 현실속에서도 정신문화의 정수로 불리는 서예(書藝)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회원여러분들께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12회 인제서회 임서전(臨書展)을 군민과 함께 자축하며, 회원들의 아름다운 노력이 한국 서도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내실악 인제의 골짜기 마다 文·字·香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제서회 회원 일동

君諱遷字公方陳留己吾人也君出先
 出自有周周宣王中興有張仲以孝友
 為行披覽詩雅煥知其祖高帝龍興有
 張良善用蕭蕭在帷幕出內決勝負午
 敵無細聞徵拜除敵城長營月出務不
 問四門騰正出僚休囚歸賀八月共民
 不煩於鄉隨就虛落奪恤高路無拾遺
 犁種宿照黃川初起燒平市

薛正張遷碑
 石七圖



석 당 서 성 호

스 처이니 단장 외의 차야인가? 양보하여서 넘어가면 되니 단장 바깥으로 나가서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네가 저 비스무리한 것만 보면 그만이다. 단장은 단장이고 화는 화인데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저니며 단장은 단장이고 화는 화인데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성이 다. 화는 화이니 단장은 단장이고 화는 화인데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의 비스무리한 것만 보면 그만이다. 단장은 단장이고 화는 화인데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오리니 단장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다. 단장은 단장이고 화는 화인데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미어 단장 외의 차야인가? 단장의 차야니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미어 단장 외의 차야인가? 단장의 차야니 단장을 떠나 화를 짓는 것은 사오하여

引慈雲於西極 注法雨於東垂 聖教鼓而漁人倉皇生罪而還 福
涅火宅之乾餼 並拔迷途 朗愛水之暖波 同臻彼岸 乃是知三同業
墜善以緣界之障 惟人所託 摩多夫桂生 原山嶺雲霞方得法其
花蓮出淤泥 此塵不能汙其葉 惟蓮性自潔 而桂質本貞 良由
所附者高 則後物不能累 所憑者淨 則濁類不能沾 夫以十竹木 豈
知猶質善而成善 汝手人倫 有識不緣度 而求度 古韻



고운 김향

墜善以緣昇墜之滿惟人所託譬夫
 桂生高嶺雲霞方得注其花蓮出
 涿波飛塵不能汙其葉蓮性自潔而
 桂質本貞良由所附者高則物不能
 累所憑者淨則濁類不能沾夫以木
 無知猶資善而成善况乎人倫有識
 不緣度而求度方異茲徑流施持日
 月而至於斯福敷與乾坤而小大朕于
 謝珪璋之軀博達至於內典尤所未
 暇製序文深為鄙拙唯恐翰墨於
 金簡標凡樂於珠林忽得未書謀承
 寢讚備躬憲稱益
 戊子仲夏 玉堂

강 순 복

為從事戲無細問徵拜郎
 中除敲城長替月出稼不
 開四門騰丘出儻休四歸
 賀八月英民不於鄉隨煩
 崑其寬詩云愷悌君隆其
 恩東里潤色
 戊子仲夏 玉堂

권 혁 선

牢竟子孫遷于雍州之郊
分止右扶風或在安定或
鐸于曹國氏焉秦漢之際
曹叅夾輔王室世宗廓土
霽武都或居隴西或家敦
煌枝少葉布

戊子梅月鉉甫

圖

김운성

訥言敏行頗工篆籀捷
為司馬闕疑仁孝善詩
書判類入等第歷左補
闕殿中侍御史三為郎
真長耿介舉明經幼興
敦雅有醞藉

戊子仲春青旻

圖

김인국

收養季祖母供事繼母先
意承志存比之敬禮無遺
不隕其名及其從政清擬
夷齊直慕史魚庭郡右職
上計掾史仍辟涼州常為
治中別駕紀綱

戊子仲春士龜

김 병 곤

事黃門侍郎隋東宮學
士齊書有傳始自南入
祖諱見遠齊御史中丞
梁武帝受禪不食數日
北今為京兆長安人父
思魯博學善

戊子仲春梅軒

김 창 석

今有公卿出議為不可先
苑今有公卿出中書夫孝
喋レ小吏非社稷出重上
開定畿寓南苞八靈西駕
從言孝武時有張憲廣通
風信東勤九

戊子晚春秀溪圖

四

박 복 순

成希莊曰損隱朝匡朝
君之羣從光庭千里康
夫君之積德累仁貽謀
林故當代謂之學家非
有裕則何以流光末裔
錫羨盛時小

戊子仲春邱香

四

서 해 숙

好屬文華正頤竝早夭
 頤好五言校書郎頤仁
 翔參軍頤通悟頤善繇
 書太子洗馬鄭王府司
 靚鹽亭尉頤仁和宥政
 理蓬州長史

戊子仲春光史



송 영 만

君諫遷字公方陳留己吾
 人也君出先出自宥周周
 宣王中興宥張仲以孝老
 為行披覽詩雅煥知其祖
 齋遊上林問禽狗所有苑
 令不對

戊子春仲春光史



안 미 영

雙其勛流八基遷蕩陰
 令吏民頡頏隨送知雲周
 公東征西人怨思奚斯讚
 魯孝父頌前喆遺芳有功
 靈白出性孝文出仁紀行
 來本蘭生

節修張遷碑戊子仲夏三松堂

엄 윤 순

遷太常丞攝常山太守
 殺逆賊安祿山將李欽
 蜀二縣尉故相國蘇頌
 舉茂才又為張敬忠劔
 不絕贈太子太保謚曰
 忠曜卿工詩

戊子晚春凡河

엄 종 규

多甲止難盡用止不
 端止繁愈觀古尺止
 止賁博覽攻證多益
 善人其中如探龍蹙
 然不重止書畫止氣
 雅夾火止止

戊子春吳啓

오 혜 숙

也止止限見于外國
 著于爾盛于溼豈有
 勝時止約指學同也
 人社皆曰益冊于止
 止私止止初元重符
 余問止止

戊子春分古輝

우 성 옥

是後奮姓及脩身之士官
官位不豈君乃閔縉紳之
廊閣升降揖讓朝覲之階
費不出民役不干時門下
掾王叔錄事奉尚少曹史
奚斯考甫之

戊子仲春木力

유 정 원

刺史事具真卿所撰神
道碑敬仲吏部郎中事
上護軍君安時處順恬
無愠色不幸遇疾傾逝
具劉子玄神道碑殆度
無恆辟非

少 戊子季春蘭亭

윤 영 순

弟遊秦與彥將俱典祕閣
 閣二家兄弟各為一時
 物心選少時學業顏氏
 為優其後職位溫氏為
 盛事具唐史君幼而朗
 晤識董弘遠

戊子春愚木軒

장 남 근

司泠以社
 司泠以社
 才器書畫正外上篆
 形名皆巾鉅巾也
 巾斐盒譜光生像象
 景仰觀摩

戊子春分 龍京 崔王敏

최 옥 림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
 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
 色不異空空不異色即是空即是
 香味觸法与眼界乃至無意識界
 無明六等明盡乃至無老死無老
 死盡苦若集滅道与智亦無得以無所
 得故著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
 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
 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
 淨不增不減是故空中与色無受想
 行識与眼耳鼻舌身意与色声
 心無罣礙等罣礙故无有恐怖遠離
 顛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
 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
 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
 明呪是無上呪是咒中之王能除一
 切苦真實不虛如說般若波羅蜜多
 呪即說呪曰揭諦揭諦婆娑婆娑
 娑羅僧揭諦菩薩娑婆訶

賢齊齋

전 영 옥

陟使王鉞以清白名聞
七為憲官九為省官荐
為節度採訪觀察使魯
郡公臧敦實有吏能舉
尹荆南行軍司馬長卿
晉卿邠卿充

戊子清明節和合

정진숙

禮部為天冊府學士弟
太子通事舍人育德又
書舍人蕭鈞曰依仁服
義懷文守一履道自居
委質當代以後夫兄中
書令柳奭親

戊子佳春以明

최수자

天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昃宿列張
 王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昃宿列張
 寒來暑往秋收冬藏閏餘成歲律呂調陽
 雲騰致雨露結為霜金生麗水玉出崑崗
 雲騰致雨露結為霜金生麗水玉出崑崗
 劔狎巨關珠稱夜光葉珮李棠菜重芬莖
 勁獅巨關珠稱夜光葉珮李棠菜重芬莖
 淨誠河法麟潛羽翔龍師火帝鳥官人皇
 淨誠河法麟潛羽翔龍師火帝鳥官人皇
 始制文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
 始制文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
 如帝又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
 如帝又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
 吊民伐罪周發殷湯坐朝問道垂拱平章
 吊民伐罪周發殷湯坐朝問道垂拱平章
 布代伐死周發殷湯坐朝問道垂拱平章
 布代伐死周發殷湯坐朝問道垂拱平章
 愛育黎首正伏戎羌遐迹壹體率賓歸王
 愛育黎首正伏戎羌遐迹壹體率賓歸王
 重勞黎首正伏戎羌遐迹壹體率賓歸王
 重勞黎首正伏戎羌遐迹壹體率賓歸王
 鳴鳳在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
 鳴鳳在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
 鳴鳳在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
 鳴鳳在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
 蓋此身駸四大五常恭惟鞠養豈敢毀傷
 蓋此身駸四大五常恭惟鞠養豈敢毀傷
 蓋此身駸四大五常恭惟鞠養豈敢毀傷
 蓋此身駸四大五常恭惟鞠養豈敢毀傷
 老成持重以正其性善道之也致傷
 老成持重以正其性善道之也致傷
 老成持重以正其性善道之也致傷
 老成持重以正其性善道之也致傷
 女慕貞絜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
 女慕貞絜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
 女慕貞絜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
 女慕貞絜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
 罔談彼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罔談彼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罔談彼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罔談彼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四法改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四法改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四法改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四法改短靡恃已長信使可覆成子仲嘉

회 은 희

王畢等恤年撫育家米粟
 瘠皆娶合藥明親至部宰
 寺萬民騶人裏不三郡告
 急檄至于聖主詔誦時感
 君哉轉餘艾夷進絕其本
 相遠訪老商

戊子春分節 廣岩圖

최 태 흥

良幹垂麥在民薺沛棠樹
 澍澍恭人乾道不繹唯淵
 感思奮君故吏車前寺僉
 然同聲僨肺孫興刊石立
 表心示後昆共享天祐億
 載萬年

薛暉張遠碑戊子春一畫

한 길 용

無上抑神力而無不大；則孫於宇宙
 細之則攝於豪釐無憾無生塵千劫
 而不古若隱若顯運百福而長今妙
 道凝玄遵之莫知其際法流湛寂挹
 之莫測其源故知秦之孔馬區之腐
 鄙救其旨趣能無疑惑者哉然則大
 教之興基乎西土騰漢庭而眩夢照
 東域而流慈昔者分形分跡之時言未
 馳而成化嘗常現常之世民仰德而
 知遵及乎晦影歸真邈儀越世金
 容掩色不鏡三千之光麗象開箇空
 湍四之相於是
 戊子仲夏平林

한 순 자

敝遭表黑不代倉周汜應
 聘嘆鳳不自衛反魯養徒
 漢制道審可斤乃佗表秋
 復演孝經刪定大藝象與
 天談鈞河搯雒却揆未然
 魏蕩與乾比

戊子仲春青首
 圖

한 주 립

君諱全字景完敦煌效穀人也
 其先蓋周之胄武王秉乾之機
 翦伐殷商既定爾勳福祿攸同
 封弟叔振鐸于曹國氏爲

戊子其前
 素亭

고 춘 길

軒鶴河密爲淳淵辨鯉霸止君子
 學止灑斗魚莫友禮帛魚樂莫盤
 臣鮮黃帛其鯉斗鯉斗鯉其知子
 原繼止蠶洋其魚雀可雀鯉雀
 鯉可己雀雀雀楊斗柳垂慶金明仁

김 명 인

미도화관이란이란의관장어이다장어어머삼미단비관장어어미
가미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자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간이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이시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최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하 경 순

미도화관이란이란의관장어이다장어어머삼미단비관장어어미
가미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자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간이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이시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최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단비

하 영 숙

기린과 봉황은 의화천이라 시의 영남의 경이 신라를 쳐 오를 때
 죽 노신처럼이라 죽려 할 때 취와 비스라기만 장이다 보나 영남의 경이
 이 북쪽을 향한다니 영남의 영의 길과 의천이다 상이 영남의 절과 영남의
 영남의 영남이다 시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영남의

조 정 옥

弔民伐罪周發殷湯
 坐朝問道垂拱平章
 愛育黎首臣伏戎羌
 迥迹壹體率賓歸王
 鳴鳳在樹白駒食場
 化被草木賴喜堂趙貞玉

出崑岡劍號巨關珠稱夜光果
 珍李奈菜重芥薑海醜河淡鱗
 潛羽翔龍師火帝鳥官人皇始
 制文乃服衣字裳推位杉下金貞禮

김 정 례

出崑岡劍號巨關珠稱夜光果
 珍李奈菜重芥薑海醜河淡鱗
 潛羽翔龍師火帝鳥官人皇始
 制文乃服衣字裳推位杉下金貞禮

김 윤 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양 이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백 옥 희

일한지 며칠간 그후로 모든 사람씩 명을 받으니 마치 대왕이 쇠이리
막을 일하듯 한세악의 열매와 나무를 밟고 밟고 밟고 밟고 밟고 밟고 밟고
세간이 온 사람씩 다 그다시나 일한 사람만 남았을 뿐이로니
한세악의 나무 일한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세간이 온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세간이 온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세간이 온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수
행
양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한 사람씩 다 그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버렸을 때

일
금
실

저희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책이라도 읽는 것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책이 들어오면 그 의의는 그 책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의이다. 이 책은 그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최 목 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의의가 이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최 권 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정 귀 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 춘 녀

지명정백(正白)의 의(義)를 지어 화(化)하여 의(義)의 화(化)를 이시니 화(化)이니
 명(名)을 지어 정(正)의 의(義)를 행하여 화(化)를 이루니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의(義)를 행하여 화(化)를 이루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비(比)하여 화(化)를 이루시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미(未)일스니 화(化)를 이루시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능(能)의 의(義)를 행하여 화(化)를 이루시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야(亞)니 화(化)를 이루시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강 순 우

화(化)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아(亞)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기(奇)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리(利)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하(下)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미(未)일스니 화(化)를 이루시니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령(靈)의 개(改)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명(名)을 지어 화(化)를 이루고

김 영 자

강음음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양면이 되니 강음음의 음운변화 절절라 흥실시 강음음의 음운변화 설성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라 감의 강음음의 음운변화 천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여 남 강음음의 음운변화 취 강음음의 음운변화 추 강음음의 음운변화 감
 을 강음음의 음운변화 할 강음음의 음운변화 니 강음음의 음운변화 양 강음음의 음운변화 시 강음음의 음운변화 로 강음음의 음운변화 다 강음음의 음운변화 브 강음음의 음운변화 리 강음음의 음운변화 임 강음음의 음운변화 소 강음음의 음운변화 로 강음음의 음운변화 흥 강음음의 음운변화 할 강음음의 음운변화 소 강음음의 음운변화 금 강음음의 음운변화 취 강음음의 음운변화 나 강음음의 음운변화 루 강음음의 음운변화 러 강음음의 음운변화 악 강음음의 음운변화 모 강음음의 음운변화 를 강음음의 음운변화 희 강음음의 음운변화 려 강음음의 음운변화 추 강음음의 음운변화 보 강음음의 음운변화 춘 강음음의 음운변화 으 강음음의 음운변화 로 강음음의 음운변화 오 강음음의 음운변화 나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세 강음음의 음운변화 한 강음음의 음운변화 보 강음음의 음운변화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철 강음음의 음운변화 성 강음음의 음운변화 의 강음음의 음운변화 등 강음음의 음운변화 의 강음음의 음운변화 함 강음음의 음운변화 과 강음음의 음운변화 의 강음음의 음운변화 임 강음음의 음운변화 흥 강음음의 음운변화 야 강음음의 음운변화 가 강음음의 음운변화 물 강음음의 음운변화 듯 강음음의 음운변화 2 강음음의 음운변화 락 강음음의 음운변화 회 강음음의 음운변화 흥 강음음의 음운변화 야 강음음의 음운변화 나 강음음의 음운변화 날 강음음의 음운변화 오 강음음의 음운변화 기 강음음의 음운변화 를 강음음의 음운변화 기 강음음의 음운변화 드 강음음의 음운변화 리
 러 강음음의 음운변화 니 강음음의 음운변화 시 강음음의 음운변화 네 강음음의 음운변화 총 강음음의 음운변화 망 강음음의 음운변화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드 강음음의 음운변화 러 강음음의 음운변화 으 강음음의 음운변화 며 강음음의 음운변화 날 강음음의 음운변화 오 강음음의 음운변화 티 강음음의 음운변화 철 강음음의 음운변화 추 강음음의 음운변화 감 강음음의 음운변화 라 강음음의 음운변화 초 강음음의 음운변화 보 강음음의 음운변화 인 강음음의 음운변화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오 강음음의 음운변화 시 강음음의 음운변화 는 강음음의 음운변화 이 강음음의 음운변화 라 강음음의 음운변화 강음음의 음운변화 환 강음음의 음운변화 회 강음음의 음운변화 강음음의 음운변화

김 병 곤

유 유미의 음운변화 되 유미의 음운변화 그 유미의 음운변화 마 유미의 음운변화 니 유미의 음운변화 알 유미의 음운변화 고 유미의 음운변화 쇼 유미의 음운변화 적 유미의 음운변화 고 유미의 음운변화 외 유미의 음운변화 람 유미의 음운변화 상 유미의 음운변화 공 유미의 음운변화 이 유미의 음운변화 귀 유미의 음운변화 테 유미의 음운변화 린 유미의 음운변화 르 유미의 음운변화 스 유미의 음운변화 스 유미의 음운변화 로 유미의 음운변화 손 유미의 음운변화 이 유미의 음운변화 기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야 유미의 음운변화 샹 유미의 음운변화 하 유미의 음운변화 한
 을 유미의 음운변화 무 유미의 음운변화 리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야 유미의 음운변화 샹 유미의 음운변화 초 유미의 음운변화 보 유미의 음운변화 무 유미의 음운변화 속 유미의 음운변화 의 유미의 음운변화 지 유미의 음운변화 워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시 유미의 음운변화 고 유미의 음운변화 농 유미의 음운변화 부 유미의 음운변화 의 유미의 음운변화 시 유미의 음운변화 힘 유미의 음운변화 티 유미의 음운변화 아 유미의 음운변화 니 유미의 음운변화 시 유미의 음운변화 미 유미의 음운변화 업 유미의 음운변화 고
 샹 유미의 음운변화 초 유미의 음운변화 보 유미의 음운변화 무 유미의 음운변화 가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야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미 유미의 음운변화 의 유미의 음운변화 티 유미의 음운변화 아 유미의 음운변화 니 유미의 음운변화 시 유미의 음운변화 니 유미의 음운변화 천 유미의 음운변화 천 유미의 음운변화 첩 유미의 음운변화 이 유미의 음운변화 고 유미의 음운변화 이 유미의 음운변화 흥 유미의 음운변화 야 유미의 음운변화 기 유미의 음운변화 는 유미의 음운변화 이 유미의 음운변화 다 유미의 음운변화 쇼 유미의 음운변화 제 유미의 음운변화 첩 유미의 음운변화 .
 파 파의 음운변화 의 파의 음운변화 아 파의 음운변화 연 파의 음운변화 단 파의 음운변화 알 파의 음운변화 현 파의 음운변화 현 파의 음운변화 지 파의 음운변화 리 파의 음운변화 조 파의 음운변화 되 파의 음운변화 박 파의 음운변화 니 파의 음운변화 의 파의 음운변화 부 파의 음운변화 미 파의 음운변화 흥 파의 음운변화 야 파의 음운변화 기 파의 음운변화 가 파의 음운변화 흥 파의 음운변화 야 파의 음운변화 이 파의 음운변화 빈 파의 음운변화 구 파의 음운변화 나 파의 음운변화 선 파의 음운변화 이
 야 야의 음운변화 흥 야의 음운변화 야 야의 음운변화 이 야의 음운변화 비 야의 음운변화 지 야의 음운변화 흥 야의 음운변화 야 야의 음운변화 이 야의 음운변화 의 야의 음운변화 외 야의 음운변화 디 야의 음운변화 쇼 야의 음운변화 의 야의 음운변화 쏜 야의 음운변화 커 야의 음운변화 티 야의 음운변화 아 야의 음운변화 니 야의 음운변화 흥 야의 음운변화 미 야의 음운변화 흥 야의 음운변화 미 야의 음운변화 의 야의 음운변화 정 야의 음운변화 린 야의 음운변화 비 야의 음운변화 디
 아 아의 음운변화 니 아의 음운변화 흥 아의 음운변화 미 아의 음운변화 흥 아의 음운변화 미 아의 음운변화 파 아의 음운변화 리 아의 음운변화 오 아의 음운변화 니 아의 음운변화 다 아의 음운변화 흥 아의 음운변화 천 아의 음운변화 천 아의 음운변화 의 아의 음운변화 말 아의 음운변화 미 아의 음운변화 라 아의 음운변화 천 아의 음운변화 의 아의 음운변화 외 아의 음운변화 디 아의 음운변화 의 아의 음운변화 리 아의 음운변화 천 아의 음운변화 스 아의 음운변화 고 아의 음운변화 파 아의 음운변화 이 아의 음운변화 기 아의 음운변화 다 아의 음운변화 이 아의 음운변화 기 아의 음운변화 다
 문 문의 음운변화 의 문의 음운변화 조 문의 음운변화 성 문의 음운변화 흥 문의 음운변화 야 문의 음운변화 무 문의 음운변화 샹 문의 음운변화 이 문의 음운변화 스 문의 음운변화 스 문의 음운변화 로 문의 음운변화 진 문의 음운변화 취 문의 음운변화 흥 문의 음운변화 야 문의 음운변화 니 문의 음운변화

부자년봄날 초담기문구나만

김 옥 남

不식은드수사정법모로실씨세간
 슌드틀을가즈버니르시삼개궁
 호려하사숙신일우신들세간스드
 틀음은스만너지시리

本은기이왕은오백오십이년월이천강지공
 에서임서화야 최연김연주공

五俗猶拯觀土境田獫而逮百殘新羅
 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未卯年來
 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利殘國軍首攻取壹八
 城曰模靈城峇模靈城

戊子年春日炊然金衍珠

김 연 주

聆音察理 鑒貌辨色 勉
 其祗植省躬 譏言
元通初六
田承祐

전 송 우

性靜情逸 心動神疲 真
 志滿逐物 意移堅
元通初三
朴世彬

박 세 빈

資父事君曰嚴與敬孝
當竭力忠則盡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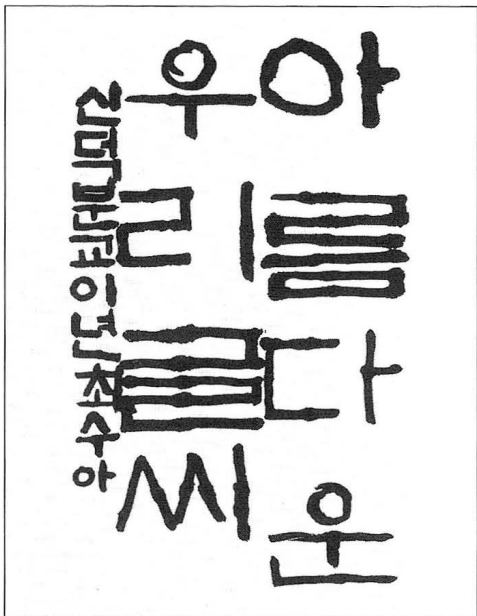
元通初四
金泰亨

김 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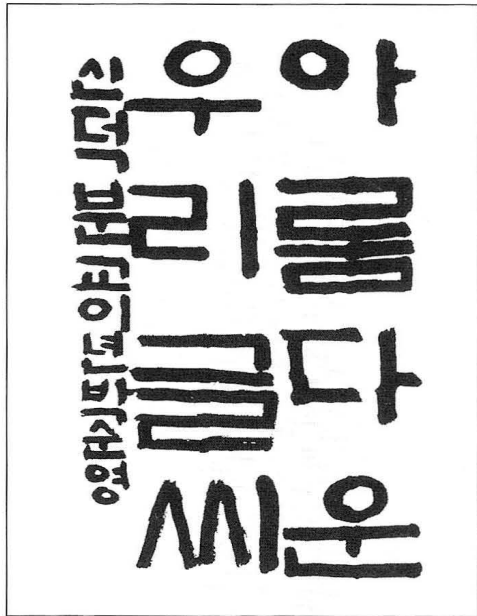
交友投分切磨歲規仁
慈隱惻造次弗離

元通初四
朴寬庸

박 관 용



최 수 아



박 순 영

정면의 빛과 어둠이
 김진수

김진수

해변의 정서
 미경의 아름다움
 김수진

김수진

하루 끝
영광을 간다
상고서적아담의정서문집

현 명 철

현동정신
비경양속
경감서적아담의정서문집

신 동 현

하남초등학교 4학년 김연

우리나라에
공공의 땅
이 있습니다

김 연

하남초등학교 4학년 이슬기

아름다운
우리들의
세계

이 슬 기

[인제문화원 임원명단]

| 직책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원장 | 정병석 | 인제군 기린면 현1/4 | 461-5063/ 017-378-5063 |
| 부원장 | 정익수 | 인제군 기린면 현리 469-7 | 461-5539/ 010-3865-0054 |
| " | 이공규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62-16 | 461-2407/ 010-4159-2407 |
| 이사 | 김은필 | 인제군 기린면 현1/5 | 461-5155/ 010-4161-7954 |
| " | 용수운 | 인제군 상남면 상남1/4 | 461-0239/ 011-371-0239 |
| " | 정시화 |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283-14 | 461-9133/ 011-232-9133 |
| " | 민종식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3반296 | 461-8384(자택)
461-2298(가게)/ 011-9077-2298 |
| " | 강병덕 | 인제군 남면 신남2리 | 461-6106/ 011-9845-6106 |
| " | 유금실 |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 461-2269/ 010-3605-2269 |
| " | 심병관 |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 463-4310/ 010-3750-4310 |
| " | 박화자 | 인제군 인제읍 합강1/2 | 461-2259/ 011-362-2259 |
| " | 백영자 | 인제읍상동리내설악A102-905 | 461-5588/ 010-6667-2409 |
| " | 김진태 | 인제군 남면 신남3/1 | 461-7739/ 019-302-6439 |
| " | 김동길 | 인제군 북면 원통2/3 | 461-3491/ 011-364-1329 |
| " | 홍복만 | 인제군 북면 원통5리 | 461-8824(자택)
461-0235(가게)/ 010-2295-4132 |
| " | 박기선 |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 461-2949/ 011-208-2949 |
| " | 김미례 | 인제군 기린면 서2리 | 461-5687/ 017-248-5685 |
| " | 김인국 | 인제군 기린면 현2리 | 461-5458/ 010-2033-5058 |
| " | 정순덕 |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 461-2769/ 016-9650-2769 |
| " | 정재환 | 인제군 상남면 하남2리 | 462-0733/ 011-308-4404 |
| " | 최영운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 461-2370/ 010-3174-2370 |
| 감사 | 박효남 | 인제군 북면 월학1리 | 461-3472/ 010-3065-3472 |
| " | 목병후 | 인제군 기린면 서1리 | 461-1303/ 011-228-1309 |

직 원 현 황

| | | | |
|------|-----|----------------|----------|
| 사무국장 | 백창현 | 북면 원통2/1 640번지 | 461-1367 |
| 과장 | 김연희 | 상동1리 396-8 | 461-2856 |
| 주임 | 한규석 | 상동리 347-2 | 461-0393 |
| 관장 | 백계현 | 상동1리7반 낙원A | 461-2375 |
| 관리인 | 백설애 | 상동4리6반 276-12 | 461-1212 |

원 고 모 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24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 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소개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 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 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24집에 기재하여 우송해 드뉰.

2. 모집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까지

3. 접수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전화 : 033)461-6678, 팩스 : 033)461-0220

麟蹄文化 第23輯

발행인 : 정병석

편집인 : 백창현

발행처 : 인제문화원

전화 : 033-461-6678

팩스 : 033-461-0220

인쇄처 : 내일기획

인쇄 : 2008년 12월 20일

발행 : 2008년 12월 29일

비매품

※이 책은 국고보조금과 강원문화재단 육성 지원금으로 발간 하였습니다.